

평가원 코트

국어 문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태초에 지문과 선택지는 일치하였다
문제로 만들기 위해 불일치를 만들었다
가공하면 모든 것이 일치한다

책 사용법

수능은 수능만의 독특한 답의 기준이 있다. 정답이 되는 기준이 내신이나 모의고사와 다르다. 수능만의 정답 판단 기준. 그것이 평가원 코드다. 물론 평가원 코드를 평가원에서 공개한 적은 없다. 공개할 수 없다. 평가원은 '평가'하는 기관이지 '교육'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책에 수록된 평가원 코드들은 지금껏 출제된 기출 문제를 관찰해서 정리한 결과물이다. 관찰의 기록이지 내가 발명한 것이 아니다.

이 책은 기출 문제집이 아니다. 기출을 평가원 코드에 따라 정리한 책이다. 책의 올바른 사용법은 **풀이를 먼저 읽고**, 문제를 보는 것이다. 문제집처럼 문제 풀고 해설 읽고 해서는 안 된다. 문제를 많이 못 풀어서 점수가 안 올랐던 게 아니다. 문제 푸는 방법을 몰라서 점수가 안 올랐던 것이다. 문제를 많이 풀 때가 온다. 수능이 가까이 왔을 때는 정말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한다.

시험을 신비화하는 모든 가르침에 반대한다.

어떤 학생이 시험을 잘 칠까? 시험에 나올 것을 공부한 학생이다. 어떤 것이 시험에 나오는데? 시험에 나온 것이 또 시험에 나온다. 입시 문제는 전에 없던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공개된 지식' 내에서 약간의 응용력을 더해 푸는 문제이다. 입시의 본질이 그렇다. **효율적인 공부**는 **기출 문제를 관찰해서 패턴을 발견하고, 이를 반복 연습하는 것이다.** 과학적 사고라는 게 별 게 아니다. 관찰하고 또 관찰해서 패턴을 찾는 것이다.

잘못된 가르침은 수험생을 재수의 길로 인도한다. 재수생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 왜 대학 간 친구가 축제에서 밤을 새워 놀 때, 독서실에서 졸린 눈을 비비며 mp3로 음악을 들어야 했는지. 대학은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머리로 가는 것도 아니다. '방법'이 있어야 한다. 가르치는 사람들이, 시험 점수를 '노력'이나 '머리' 따위의 애매모호한 말로 신비화하지 마라. 노력했는데 점수가 안 나온 학생을 욕보이는 것이고, 점수가 안 나온 학생을 머리가 나쁜 학생으로 저주하는 것이다. 수험생은 누구나 열심히 하려고 한다. 선생이 다시 그것을 강조할 이유가 없다. 선생의 의무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모든 문제는 일치로 풀린다.

답은 문제 안에 있다. 그런데 왜 못 찾나? 출제자가 일부러 찾기 어렵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그게 그 분들 일이니까. 그러나 어렵게 만들었다면 쉽게도 만들 수 있다. 어려운 것을 쉽게 만드는 가공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치환, 조건화이다. **일치로 풀다가 안 풀리면, 치환, 조건화를 해서 일치로 푼다.** 모든 국어 문제를 일치로 푸는 것이 왜 가치가 있을까? 네가 따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책의 구성과 특징

- 한 지문 - 한 문제로 편집했다. 무엇이 시험에 반복되어 나오는지 쉽게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 각 문제마다 출처/난이도/코드를 표기했으며, ★이 ★★★★★ 이상인 문제는 100점 방지용 문제이다.
- 책은 얇지만 많은 문제를 실었다. '책 사용법'에 따라 올바르게 공부한다면, 3주에 1회독이 가능하다.
- 문항은 별권으로 분리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으나 문항도 코드는 동일하다.
- 중간 중간 에세이가 있다. 인문 교양이라 생각하고 부담 없이 읽었으면 좋겠다.

책에 담긴 문제들

비교

1. 수능 2015 A형 8 셋 비교 [1권 p.12]
2. 수능 2015 B형 6 비교 대상 유무 [1권 p.13]
3. 수능 2015 A형 20 AB와 AC [1권 p.14]
4. 수능 2015 A형 30 ★ A와 A의 B [1권 p.15]
5. 수능 2015 A형 28 ★ A 뿐만 아니라 B [1권 p.16]
6. 수능 2015 B형 16 연철 분철 [1권 p.17]
7. 수능 2015 A형 3 상관과 필요 [1권 p.18]
8. 수능 2015 A형 7 수요 공급 [1권 p.19]
9. 수능 2014 A형 29 ★★★★★ 양과 모양 [1권 p.20]
10. 수능 2014 A형 30 ★★★★★ 초점과 초점 거리 [1권 p.24]
11. 수능 2010 49 ★★★★★ 관념과 물리 [1권 p.26]
12. 모의 2006 6월 42 ★★★★★ 사실과 당위 [1권 p.30]
13. 예비 2014 A형 7 ★★★★★ 사실과 당위 [1권 p.34]
14. 모의 2009 6월 16 ★★★★★ 유무와 양 [1권 p.36]
15. 수능 1997 40 ★★ 유무와 비교 [1권 p.38]
16. 수능 2009 27 ★ 유무와 양 [1권 p.39]
17. 수능 2012 47 ★ 유무와 다소 [1권 p.40]
18. 수능 2013 27 여부와 양 [1권 p.42]
19. 모의 2008 6월 19 ★★ 여부와 양 [1권 p.44]
20. 수능 2005 33 양과 질 [1권 p.45]
21. 수능 2013 29 고정과 변화 [1권 p.46]
22. 예비 2014 A형 26 ★★★★★ 고정과 변화 [1권 p.48]
23. 모의 2012 9월 24 가능 불가능 [1권 p.49]
24. 수능 2006 35 ★★ 물리와 화학 [1권 p.50]
25. 수능 2009 16 ★★ 반복과 변주 [1권 p.51]
26. 모의 2014 6월 A형 28 ★★ 개연과 필연 [1권 p.52]
27. 수능 2001 28 수단 목적 [1권 p.53]
28. 수능 2014 B형 27 ★★★★★ A와 A의 차이 [1권 p.54]
29. 모의 2009 9월 15 ★★★★★ A와 A의 차이 [1권 p.58]
30. 수능 2003 18 ★★★★★ A와 AB [1권 p.60]
31. 수능 2000 23 ★★ A와 AB [1권 p.61]
32. 모의 2009 9월 42 ★★ A와 AB [1권 p.62]
33. 모의 2014 9월 A형 26 대상과 대상의 속성 [1권 p.64]
34. 모의 2010 6월 40 ★★★★★ 사실과 사실적 주장 [1권 p.66]
35. 모의 2008 9월 37 ★★★★★ A와 A의 B [1권 p.68]
36. 수능 2005 30 ★★★★★ A와 A의 B [1권 p.70]
37. 수능 1998 17 ★★ A와 A의 B [1권 p.71]
38. 모의 2007 9월 50 ★★ A와 A의 B [1권 p.72]
39. 모의 2012 6월 29 A와 A 역할 [1권 p.73]
40. 예비 2014 A형 2 ★★★★★ A는 B뿐만 아니라, C이다. [1권 p.74]
41. 모의 2014 6월 B형 21 A와 달리 B [1권 p.76]
42. 모의 2010 9월 37 ★★★★★ A는 B가 아니라 C이다. [1권 p.77]

43. 수능 2002 22 ★★★★★ A는 B가 아니라 C이다. [1권 p.78]
44. 모의 2008 6월 47 ★ A는 B라기보다 C이다. [1권 p.79]
45. 수능 2004 39 ★ A는 B가 아니라 C이다. [1권 p.80]
46. 모의 2009 6월 13 ★ A는 B가 아니라 C이다. [1권 p.82]

47. 수능 2011 34 ★★ 최상급과 비교급 [1권 p.84]
48. 모의 2005 9월 38 ★ 최댓값 [1권 p.86]
49. 수능 1996 23 ★★ 공통점 찾기 [1권 p.88]
50. 예비 2014 B형 29 ★★★★★ 이항대입어 [1권 p.90]
51. 모의 2014 6월 A형 20 다르다 [1권 p.92]
52. 모의 2014 6월 A형 24 달리 [1권 p.94]
53. 모의 2010 9월 18 ★ 보다 비해 [1권 p.96]
54. 수능 2011 26 ★ 비해 [1권 p.98]
55. 수능 2014 B형 30 ★ 만큼 [1권 p.100]
56. 수능 2000 64 ★★★★★ 유무와 비교 표현 [1권 p.101]
57. 수능 2006 37 ★★★★★ 빨리와 바로 [1권 p.102]

비례

1. 수능 2015 B형 25 ★★ 비례 [1권 p.104]
2. 수능 2015 B형 26 ★★★★★ 비례 [1권 p.106]
3. 수능 2015 A형 18 비례 [1권 p.110]
4. 모의 2014 9월 B형 28 ★★★★★ 비례 [1권 p.112]
5. 모의 2014 9월 B형 29 ★★ 비례 반비례 [1권 p.116]
6. 모의 2007 6월 36 ★★★★★ 비례식 만들기 [1권 p.119]
7. 예비 2014 A형 19 ★★★★★ 비례 [1권 p.120]
8. 예비 2014 A형 20 ★★★★★ 비례 [1권 p.122]
9. 모의 2014 6월 A형 2 비례 반비례 [1권 p.124]
10. 모의 2009 6월 14 비례 반비례 [1권 p.126]
11. 모의 2009 9월 43 ★ 비례 [1권 p.128]
12. 모의 2014 6월 B형 22 비례 [1권 p.130]
13. 모의 2011 6월 38 ★★ 비중 [1권 p.131]
14. 모의 2010 6월 27 비중 [1권 p.132]
15. 모의 2010 6월 29 ★ 비중 [1권 p.133]
16. 모의 2014 9월 A형 19 비중 [1권 p.134]
17. 모의 2014 9월 A형 20 상관관계 [1권 p.136]
18. 모의 2014 9월 A형 21 ★★★★★ 비중 [1권 p.138]
19. 모의 2014 9월 A형 29 ★ 그래프 [1권 p.140]

부정

1. 수능 2015 B형 22 억제 못하다 [1권 p.144]
2. 모의 2005 6월 19 ★★★★★ 부정 [1권 p.146]
3. 모의 2007 6월 49 ★★★★★ 부정 [1권 p.148]
4. 모의 2013 6월 21 ★ 이중 부정 [1권 p.150]

시간

1. 수능 2015 B형 11 ★★★★★ 지키다 [1권 p.152]
2. 수능 2015 A형 11 ★★ 합쳐지다 [1권 p.153]
3. 수능 2015 A형 27 기여하다 [1권 p.154]
4. 수능 2015 B형 14 추가 [1권 p.155]
5. 수능 2015 B형 17 기원 [1권 p.156]
6. 수능 2015 B형 18 통해 [1권 p.157]
7. 수능 2015 B형 20 설정 [1권 p.158]
8. 수능 2015 A형 2 순서 [1권 p.159]
9. 수능 2015 A형 6 배경 지식 [1권 p.160]

10. 모평 2015 6월 B형 6 ★★ 사제 [1권 p.161]
11. 수능 2011 45 ★★★★★ 시간 표현 [1권 p.162]
12. 수능 2010 21 ★★★★★ 내용 순서 [1권 p.164]
13. 모의 2005 6월 59 ★★★★★★ 사실과 당위 [1권 p.166]
14. 수능 2008 34 ★★★★★ 시작 [1권 p.167]
15. 수능 2002 27 ★ 새로운 [1권 p.168]
16. 수능 2006 23 개조 [1권 p.169]
17. 수능 2010 42 ★ 시작 [1권 p.170]
18. 모의 2008 6월 28 ★★ 발생 [1권 p.171]
19. 모의 2006 9월 29 ★★★★★ 시작 [1권 p.172]
20. 수능 1997 43 ★★ 나타나다 [1권 p.174]
21. 모의 2014 9월 A형 25 ★ 도입 [1권 p.175]
22. 수능 2014 A형 26 시행 [1권 p.176]
23. 모의 2014 9월 A형 15 ★ 고치다 [1권 p.178]
24. 모의 2007 6월 26 ★ 심화 학습 [1권 p.179]
25. 모의 2006 6월 9 ★★★★★ 개선 [1권 p.180]
26. 모의 2012 6월 48 ★ 추가 [1권 p.182]
27. 수능 1996 44 ★★ 부터 [1권 p.183]
28. 수능 2006 52 ★ 미리 [1권 p.184]
29. 수능 2014 A형 17 보다 먼저 [1권 p.185]
30. 모의 2010 6월 21 ★★★★★ 빨리 [1권 p.186]
31. 수능 1994-1 45 효능 [1권 p.189]
32. 수능 2002 47 ★★ 영향 [1권 p.190]
33. 수능 1999 26 ★ 그리하여 [1권 p.192]

34. 수능 1995 50 ★ 성립과 역할 [1권 p.193]
35. 모의 2013 6월 44 ★★ 선후 [1권 p.194]
36. 수능 2012 17 ★★ 선후 [1권 p.195]
37. 모의 2013 6월 45 ★★ 순서 [1권 p.196]
38. 수능 2006 55 ★ 목적 [1권 p.198]
39. 모의 2010 9월 38 ★★ 수단과 결과 [1권 p.200]
40. 수능 1999 24 ★★ 수단과 목적 [1권 p.201]
41. 수능 1997 50 ★★ 수단과 목적 [1권 p.202]

42. 수능 2014 A형 25 동시 [1권 p.202]
43. 수능 2014 B형 28 동시 [1권 p.204]
44. 수능 1998 59 동시 [1권 p.206]
45. 모의 2011 9월 39 하며 [1권 p.208]

46. 예비 2014 A형 27 ★★★★★ 유지 [1권 p.209]
47. 수능 2010 15 ★★ 과정 [1권 p.210]
48. 모의 2013 6월 19 계속 [1권 p.211]
49. 모의 2008 6월 34 ★★★★★ 일사와 계속 [1권 p.212]
50. 수능 2014 A형 24 ★ 발전 과정 [1권 p.213]
51. 예비 2014 B형 23 ★★★★★ 연속과 단절 [1권 p.214]
52. 수능 2009 17 ★★ 선후와 동시 [1권 p.215]
53. 모의 2012 9월 47 순서와 동시 [1권 p.216]
54. 모의 2010 9월 44 ★★★★★ 과정과 결과 [1권 p.217]
55. 모의 2009 6월 15 ★★★★★ 계속과 순간 [1권 p.218]
56. 모의 2007 6월 20 ★★★★★ 시간과 공간 [1권 p.220]
57. 수능 2000 25 ★★★★★ 사제 [1권 p.221]

공간

1. 모의 2005 6월 47 ★★★★★ 부분과 전체 [1권 p.224]
2. 모의 2010 6월 22 ★★★★★ 물리적 안과 개념적 안 [1권 p.226]
3. 수능 2014 A형 20 ★★★★★ 경계선 [1권 p.228]
4. 수능 2014 B형 20 ★ 사이 [1권 p.232]
5. 수능 2012 20 ★★★★★ 경계선 [1권 p.234]
6. 수능 2001 53 ★★ 경계선 [1권 p.236]
7. 수능 2001 54 경계선 [1권 p.237]
8. 모의 2013 6월 23 내외 [1권 p.238]
9. 수능 1999 56 ★ 내외 [1권 p.240]
10. 모의 2008 9월 34 내외 [1권 p.241]
11. 모의 2008 9월 49 ★★ 내외 [1권 p.242]

12. 수능 2009 45 ★★★★★ 위치 [1권 p.244]
13. 모의 2012 9월 36 ★ 위치 [1권 p.246]
14. 모의 2006 6월 52 ★★ 위치 [1권 p.247]
15. 수능 2005 34 ★ 위치 [1권 p.248]
16. 수능 1995 18 위치 [1권 p.249]
17. 수능 2001 30 부분과 전체 [1권 p.250]

방향

1. 수능 2004 45 ★★★★★ 방향 [1권 p.252]
2. 수능 2014 B형 21 ★ 인과관계의 방향 [1권 p.256]
3. 수능 2014 A형 28 ★★ 직선과 회전 [1권 p.258]
4. 수능 2000 17 ★ 안으로와 밖으로 [1권 p.260]

5. 수능 2010 26 상관관계 [1권 p.261]
6. 예비 2014 B형 8 ★★★★★ 표 그래프 [1권 p.262]
7. 수능 2012 30 ★★ 극대화 [1권 p.266]
8. 수능 2011 46 ★★ 민감 [1권 p.268]
9. 수능 2010 22 ★ 민감도 [1권 p.270]
10. 모의 2006 9월 28 ★ 출발선과 도착점 [1권 p.271]
11. 모의 2012 9월 23 ★★ 출발선과 도착점 [1권 p.272]
12. 모의 2009 6월 44 ★★★★★ 출발선 [1권 p.274]

행위자

1. 수능 2015 B형 19 ★★ 행위자 불일치 [1권 p.278]
2. 수능 2015 A형 10 행위자 불일치 [1권 p.279]
3. 수능 2015 B형 4 행위자 불일치 [1권 p.280]

4. 예비 2014 A형 4 ★★★ 행위자 불일치 [1권 p.282]
5. 수능 2008 23 ★ 행위자 불일치 [1권 p.284]
6. 수능 2007 49 ★★ 행위자 불일치 [1권 p.285]
7. 예비 2014 B형 6 ★★★★★ 행위자 불일치 [1권 p.286]
8. 예비 2014 B형 17 ★★★★★ 행위자 불일치 [1권 p.288]
9. 모의 2014 6월 A형 26 행위자 불일치 [1권 p.289]
10. 모의 2014 6월 A형 4 행위자 불일치 [1권 p.290]
11. 모의 2014 6월 A형 6 행위자 불일치 [1권 p.292]
12. 모의 2014 6월 A형 29 ★ 행위자 불일치 [1권 p.294]
13. 모의 2014 6월 A형 30 행위자 불일치 [1권 p.296]
14. 모의 2014 6월 B형 3 행위자 불일치 [1권 p.297]
15. 모의 2014 6월 B형 8 ★ 행위자 불일치 [1권 p.298]
16. 모의 2014 6월 B형 19 ★★ 행위자 불일치 [1권 p.299]
17. 모의 2014 6월 B형 20 행위자 불일치 [1권 p.300]
18. 모의 2014 9월 A형 24 행위자 불일치 [1권 p.301]
19. 모의 2011 9월 40 ★★ 행위자 불일치 [1권 p.302]
20. 모의 2008 6월 20 ★★★ 행위자 불일치 [1권 p.303]
21. 모의 2010 6월 37 ★★★ 행위자 불일치 [1권 p.304]
22. 모의 2009 6월 18 ★ 행위자 불일치 [1권 p.306]
23. 모의 2008 9월 26 행위자 불일치 [1권 p.308]
24. 모의 2005 6월 29 ★★★ 행위자 불일치 [1권 p.309]
25. 수능 1996 25 ★★ 행위자 불일치 [1권 p.310]
26. 모의 2006 6월 8 ★★★ 인물과 장소 [1권 p.311]

27. 모의 2007 9월 58 ★★ 행위자 일치 [1권 p.312]
28. 수능 2014 A 16 ★ 행위자 일치 [1권 p.314]
29. 수능 2008 25 ★ 행위자 일치 [1권 p.316]
30. 수능 2007 40 ★★★ 행위자 일치 [1권 p.317]
31. 수능 2004 40 ★★ 행위자 일치 [1권 p.318]
32. 수능 1995 57 행위자 일치 [1권 p.319]
33. 예비 2014 A형 3 ★★ 행위자 일치 [1권 p.320]
34. 예비 2014 B형 3 ★★★★★ 행위자 일치 [1권 p.322]
35. 모의 2011 9월 48 ★★★ 행위 일치 [1권 p.324]
36. 모의 2015 9월 B형 13 ★ 행위자 일치 [1권 p.326]

수

1. 수능 2015 A형 26 ★ 수 [2권 p.12]
2. 수능 2015 B형 7 다양성 [2권 p.13]
3. 수능 2015 A형 1 확인 [2권 p.14]
4. 수능 2015 A형 4 확인 [2권 p.15]
5. 수능 2015 B형 21 평균값 [2권 p.16]

6. 모의 2007 6월 31 수 [2권 p.18]
7. 수능 2012 22 ★★ 수 [2권 p.20]

8. 모의 2008 6월 29 ★★★★★ 수 [2권 p.24]
9. 수능 2009 19 ★★★★★ 수 [2권 p.26]
10. 모의 2010 9월 33 ★★★★★ 수 [2권 p.27]
11. 모의 2007 6월 33 ★★★★★ 수 [2권 p.28]
12. 수능 2009 18 ★★ 수 [2권 p.30]
13. 수능 2007 20 ★★ 수 [2권 p.31]
14. 수능 2010 25 수 [2권 p.32]
15. 수능 2013 44 ★★ 수 [2권 p.34]
16. 수능 2007 37 ★★★ 수 [2권 p.36]
17. 예비 2014 A형 16 ★★★★★ 수 [2권 p.38]
18. 예비 2014 A형 21 ★★★★★ 수 [2권 p.40]
19. 모의 2014 6월 A형 21 ★★★★★ 수 [2권 p.42]
20. 모의 2014 9월 A형 16 수 [2권 p.44]
21. 모의 2013 6월 42 ★★ 수 [2권 p.46]
22. 예비 2014 B형 21 ★★★★★ 수 [2권 p.47]
23. 모의 2012 6월 35 ★ 수 [2권 p.48]
24. 모의 2009 6월 33 ★ 수 - all some [2권 p.49]
25. 모의 2005 6월 30 ★★★★★ 수 [2권 p.50]

태

1. 수능 2013 42 태 [2권 p.52]
2. 수능 2001 20 ★ 태 [2권 p.53]
3. 수능 2013 24 태 [2권 p.54]
4. 수능 2010 23 태 [2권 p.55]
5. 수능 1997 24 태 [2권 p.56]
6. 수능 2012 24 ★ 태 [2권 p.57]
7. 예비 2014 A형 28 ★★ 태 [2권 p.58]
8. 모의 2014 6월 B형 17 ★ 태 [2권 p.59]
9. 모의 2014 9월 B형 19 태 [2권 p.60]
10. 모의 2011 6월 18 태 [2권 p.61]
11. 모의 2011 6월 27 ★★★★★ 태 [2권 p.62]
12. 모의 2006 9월 26 ★ 태 [2권 p.63]

기준

1. 수능 2013 31 ★★★ 이중 잣대 [2권 p.66]
2. 모의 2005 6월 46 ★★★★★★ 이중 잣대 [2권 p.68]
3. 모의 2007 6월 58 ★★★★★ 측정값으로 기준값 구하기 [2권 p.70]
4. 수능 1998 16 ★★ 측정 기준과 측정 대상 [2권 p.73]
5. 수능 2008 36 ★★ 기준 바꾸기 [2권 p.74]
6. 수능 2014 B형 26 ★★★ 숨은 비교 기준 [2권 p.78]
7. 모의 2009 6월 26 ★★★★★ 측정 기준과 측정 대상 [2권 p.80]
8. 모의 2012 9월 49 ★ 측정 기준과 측정 대상 [2권 p.82]
9. 수능 2007 48 ★★ 기준과 측정값 [2권 p.84]
10. 수능 2006 54 ★ 고정값과 변화값 [2권 p.85]
11. 모의 2006 9월 39 ★★★★★ 기준 변경 [2권 p.88]
12. 모의 2012 9월 19 기준이 값을 바꾼다 [2권 p.90]
13. 수능 2003 37 ★★ 다른 기준 [2권 p.91]
14. 모의 2010 6월 17 ★ 다른 기준 [2권 p.92]
15. 모의 2006 6월 37 다른 기준 [2권 p.93]

- 16. 수능 2002 56 ★★ 다른 기준 [2권 p.94]
- 17. 예비 2014 A형 6 ★★★★★ 보는 기준 [2권 p.96]
- 18. 모의 2009 6월 24 ★★ 기준의 불변성 [2권 p.98]
- 19. 모의 2007 6월 7 ★★★★★ 그래프의 기준 [2권 p.100]
- 20. 수능 2003 21 ★★ 기준이 되는 글 [2권 p.102]
- 21. 수능 1997 30 ★ 공통점 [2권 p.103]
- 22. 모의 2006 6월 28 ★★ 비교 기준 [2권 p.106]
- 23. 모의 2013 6월 24 ★ 비교 기준 [2권 p.108]
- 24. 모의 2010 6월 20 ★ 비교 기준 [2권 p.110]
- 25. 모의 2009 6월 43 ★ 기준 표현 [2권 p.112]
- 26. 수능 2012 45 ★ 기준 표현 [2권 p.113]
- 27. 수능 1995 53 ★★ 기준 없이 측정 불가 [2권 p.114]

단어 치환

- 1. 수능 2015 A형 24 대상 [2권 p.116]
- 2. 모의 2012 9월 22 수단 [2권 p.118]
- 3. 예비 2014 B형 30 ★★★★★ 수단 [2권 p.119]
- 4. 수능 1994-2 23 ★★ 수단 결과 [2권 p.120]
- 5. 모의 2009 6월 45 ★★ 당위 [2권 p.121]
- 6. 모의 2014 9월 B형 8 당위 [2권 p.122]

문장 치환

- 1. 수능 2004 51 ★★★★★★★★★ 반례 [2권 p.128]
- 2. 모의 2014 6월 B형 18 ★ 반례 [2권 p.130]
- 3. 수능 2002 30 ★★★★★ 반례 [2권 p.132]
- 4. 수능 2000 44 ★★★★★ 반례 [2권 p.130]
- 5. 수능 2001 41 ★★★★★ 반례 [2권 p.135]
- 6. 모의 2005 6월 28 ★★★★★ 반례 [2권 p.136]
- 7. 모의 2008 9월 44 ★ 반례 [2권 p.138]
- 8. 모의 2010 9월 31 ★ 반례 [2권 p.139]
- 9. 수능 2008 45 ★★ 전제 [2권 p.140]
- 10. 모의 2007 6월 48 ★ 생략된 전제 [2권 p.142]
- 11. 수능 2009 42 ★★★★★ 생략된 전제 [2권 p.144]
- 12. 수능 2007 35 ★★★★★ 생략된 전제 [2권 p.146]
- 13. 모의 2006 9월 43 ★ 조건문 [2권 p.149]
- 14. 수능 2014 A형 22 조건문 [2권 p.150]
- 15. 수능 2003 24 ★★★★★ 조건문 [2권 p.152]
- 16. 모의 2014 9월 A형 27 ★ 조건문 [2권 p.154]
- 17. 모의 2008 6월 35 ★ 조건문 [2권 p.156]
- 18. 모의 2008 6월 48 ★★★★★ 조건문 [2권 p.157]
- 19. 수능 2009 26 ★ 조건문 [2권 p.158]
- 20. 모의 2014 6월 B형 11 반대 해석 [2권 p.159]
- 21. 예비 2014 A형 24 ★★★★★ 반대 해석 [2권 p.160]
- 22. 모의 2014 9월 A형 17 ★★★★★ 반대 해석 [2권 p.162]

- 23. 수능 2009 35 ★★ 반대 관계 [2권 p.164]
- 24. 수능 2013 23 ★★ 반대 관계 [2권 p.166]
- 25. 수능 2002 48 비판 [2권 p.168]
- 26. 수능 2002 18 ★★★★★ 후건 긍정의 오류 [2권 p.170]
- 27. 모의 2011 6월 14 ★★ 후건 긍정의 오류 [2권 p.172]
- 28. 수능 1996 24 ★★★★★ 선언지 부정식 추론 [2권 p.174]
- 29. 모의 2010 9월 20 ★★ 선언지 부정식 추론 [2권 p.176]
- 30. 수능 2009 43 ★★★★★ 모순 관계 [2권 p.178]
- 31. 예비 2014 B형 24 ★★★★★ 추론 [2권 p.180]
- 32. 모의 2011 6월 13 추론 [2권 p.181]
- 33. 수능 2010 6월 47 ★★★★★ 유추 [2권 p.182]
- 34. 모의 2008 6월 39 ★★★★★ 원인 추론 [2권 p.184]
- 35. 수능 2014 A형 23 원인 추론 [2권 p.186]
- 36. 수능 2013 45 ★ 인과 추리 [2권 p.188]
- 37. 수능 1994-1 56 인과 [2권 p.189]
- 38. 수능 2008 19 인과 [2권 p.190]
- 39. 수능 1994-2 54 ★ 의도 확대의 오류 [2권 p.191]
- 40. 수능 1995 59 인신공격의 오류 [2권 p.192]

범주 치환

- 1. 수능 2015 A형 13 ★★ 범주 [2권 p.194]
- 2. 수능 2015 A형 15 ★ 범주 외부 [2권 p.195]
- 3. 수능 2015 A형 16 범주 교차 [2권 p.196]
- 4. 수능 2015 A형 17 ★ 범주 교차 [2권 p.197]
- 5. 수능 2015 A형 22 범주 [2권 p.198]
- 6. 수능 2015 A형 29 ★ 범주 교차 [2권 p.200]
- 7. 수능 2004 50 ★★ OI [2권 p.202]
- 8. 모의 2011 6월 17 ★ OI [2권 p.204]
- 9. 수능 2014 A형 18 표 만들기 [2권 p.205]
- 10. 모의 2010 6월 11 ★★ 범주 구분 [2권 p.206]
- 11. 수능 2000 63 ★★ 범주 구분 [2권 p.208]
- 12. 수능 1998 18 범주 구분 [2권 p.209]
- 13. 모의 2014 6월 A형 18 범주 구분 [2권 p.210]
- 14. 수능 2012 19 ★★★★★ 한 범주가 둘로 쪼개짐 [2권 p.212]
- 15. 예비 2014 A형 22 ★★★★★ 범주 구분 [2권 p.214]
- 16. 모의 2007 6월 60 ★★ 범주 구분 [2권 p.215]
- 17. 수능 1994-2 24 범주 구분 [2권 p.216]
- 18. 수능 1997 41 ★★ 범주 형태 [2권 p.217]
- 19. 모의 2013 6월 48 ★ 범주 비교 [2권 p.218]
- 20. 수능 2014 A형 27 범주 비교 [2권 p.222]
- 21. 수능 2011 33 ★★★★★ 범주 교차 [2권 p.224]
- 22. 수능 2005 25 ★★ 범주 교차 [2권 p.228]
- 23. 수능 2011 25 ★★ 범주 교차 [2권 p.230]
- 24. 모의 2014 6월 B형 28 범주 교차 [2권 p.232]
- 25. 모의 2014 9월 A형 23 ★ 범주 교차 [2권 p.234]
- 26. 모의 2013 6월 32 범주 교차 [2권 p.235]

- 27. 모의 2012 6월 47 범주 교차 [2권 p.236]
- 28. 수능 1999 18 범주 교차 [2권 p.237]
- 29. 모의 2013 6월 49 ★★ 범주 외부 [2권 p.238]

지문 조건화

- 1. 수능 2015 B형 21 ★★★★★ 서론 규칙 [2권 p.240]
- 2. 수능 2015 B형 24 글쓰기 규칙 [2권 p.241]
- 3. 수능 2015 A형 19 $x=y$ [2권 p.242]
- 4. 수능 2015 A형 25 $x=y$ [2권 p.243]
- 5. 수능 2015 B형 23 $x=y$ [2권 p.244]
- 6. 수능 2015 A형 9 조건 일치 [2권 p.245]

- 7. 수능 2011 36 ★★ $x=y$ [2권 p.246]
- 8. 수능 2003 41 ★★ $x=y$ [2권 p.247]
- 9. 수능 1994-2 45 ★★ $x=y$ [2권 p.248]
- 10. 수능 2008 35 ★★★★★ $x=y$ [2권 p.249]
- 11. 수능 2010 50 ★★ $x=y$ [2권 p.250]
- 12. 수능 1996 39 ★★ $x=y$ [2권 p.251]
- 13. 모의 2007 9월 52 ★★ $x=y$ [2권 p.252]
- 14. 모의 2006 6월 41 ★★★★★ $x=y$ [2권 p.254]
- 15. 모의 2008 9월 35 ★★★★★ $x=y$ [2권 p.256]
- 16. 모의 2006 6월 38 ★★ $x=y$ [2권 p.257]
- 17. 모의 2005 6월 22 ★★★★★ $x=y$ [2권 p.258]
- 18. 모의 2005 6월 26 ★ $x=y$ [2권 p.259]

- 19. 수능 2012 43 ★★★★★ 서론 규칙 [2권 p.260]
- 20. 수능 1994-2 52 ★★★★★ 주제문의 위치 [2권 p.261]
- 21. 수능 2007 24 ★★ 서론 규칙 [2권 p.262]
- 22. 수능 2004 21 ★★ 서론 규칙 [2권 p.263]
- 23. 수능 1997 33 ★★★★★ 서론 규칙 [2권 p.264]
- 24. 수능 2007 46 ★★★★★ 서론 규칙 [2권 p.265]
- 25. 수능 2005 24 서론 규칙 [2권 p.266]
- 26. 예비 2014 B형 19 ★★ 반복되는 단어가 주제 [2권 p.267]
- 27. 예비 2014 B형 22 ★★★★★ 반복되는 단어가 주제 [2권 p.268]
- 28. 수능 1994-1 28 ★★ 그러므로 [2권 p.269]
- 29. 수능 2000 45 ★★ 이상의 사례들은 [2권 p.270]
- 30. 수능 1994-1 57 ★★ A but B [2권 p.271]
- 31. 수능 2000 14 ★★ A but B [2권 p.272]
- 32. 수능 2005 49 ★★ A but B [2권 p.273]
- 33. 수능 1997 46 ★★ A but B [2권 p.274]
- 34. 수능 1994-1 44 ★★ 서술어 [2권 p.275]
- 35. 수능 2014 A형 19 ★ 끊어 읽기 [2권 p.276]
- 36. 수능 2008 40 ★★★★★ 끊어 읽기 [2권 p.277]
- 37. 모의 2014 6월 A형 10 주아서술어 붙일치 [2권 p.278]
- 38. 모의 2010 6월 18 제한적 용법 서술적 용법 [2권 p.279]

- 39. 수능 2004 24 ★★★★★ 개념 조건화 [2권 p.280]
- 40. 모의 2014 6월 B형 29 ★★★★★ 개념 조건화 [2권 p.282]
- 41. 모의 2013 6월 20 개념 조건화 [2권 p.286]

- 42. 수능 2010 44 ★ 개념 조건화 [2권 p.288]
- 43. 모의 2012 9월 35 ★★ 개념 조건화 [2권 p.289]
- 44. 모의 2012 6월 13 개념 조건화 [2권 p.290]
- 45. 모의 2012 6월 14 개념 조건화 [2권 p.292]
- 46. 모의 2014 9월 A형 11 ★★ 개념 조건화 [2권 p.293]
- 47. 모의 2012 6월 30 ★ 단어 조건화 [2권 p.294]
- 48. 모의 2011 9월 50 ★★ 단어 조건화 [2권 p.296]
- 49. 모의 2011 6월 15 단어 조건화 [2권 p.298]
- 50. 모의 2012 6월 49 ★ 범주 조건화 [2권 p.299]
- 51. 모의 2011 9월 42 ★★ 비율 조건화 [2권 p.300]
- 52. 모의 2011 9월 45 ★★ 상황 조건화 [2권 p.302]
- 53. 모의 2013 9월 45 ★★ 비례 조건화 [2권 p.304]

- 54. 수능 2004 41 ★★ 서술어 조건화 [2권 p.306]
- 55. 수능 2011 35 ★ 비교 조건화 [2권 p.307]
- 56. 모의 2014 9월 A형 18 ★★ 예시 조건화 [2권 p.308]
- 57. 수능 2006 38 예시 조건화 [2권 p.309]
- 58. 모의 2013 6월 46 ★★★★★ 예시 조건화 [2권 p.310]
- 59. 수능 2002 59 ★★ 유사 구조 [2권 p.312]
- 60. 수능 2005 54 유사 구조 [2권 p.313]

발문 조건화

- 1. 수능 2007 23 ★★★★★ 모든 발문은 일치를 묻는다. [2권 p.316]
- 2. 예비 2014 B형 20 ★★★★★ $A \subset B$ 라면, $A \cap B$ 는 A [2권 p.318]
- 3. 모의 2010 9월 45 ★★★★★ 부정의 부정의 부정 [2권 p.320]
- 4. 모의 2010 6월 30 ★★★★★ 발음 [2권 p.322]
- 5. 모의 2005 6월 8 ★★★★★ 절충 [2권 p.324]

선택지 조건화

- 1. 수능 2008 46 ★★★★★ 대립어 찾기 [2권 p.326]
- 2. 수능 2003 19 ★★ 대립어 찾기 [2권 p.330]
- 3. 수능 2005 31 ★★ 대립어 찾기 [2권 p.332]
- 4. 수능 2001 55 ★★ 가장 엉뚱한 선택지가 답이다 [2권 p.333]
- 5. 수능 2004 42 ★★ 다른 것이 답이다 [2권 p.334]
- 6. 모의 2011 6월 37 ★ 선택지 소거법 [2권 p.335]
- 7. 모의 2013 6월 25 ★★★★★ 선택지의 공통점 [2권 p.336]
- 8. 모의 2010 9월 15 ★★ 선택지들의 특징 [2권 p.338]
- 9. 모의 2009 6월 25 ★★★★★ 반복되는 단어가 키워드 [2권 p.340]
- 10. 수능 1994-2 22 ★★ 반복되는 단어가 키워드 [2권 p.341]
- 11. 수능 1997 44 ★★ 보다 간단한 것이 답이다 [2권 p.342]
- 12. 수능 2007 34 ★ $x=y$ [2권 p.343]
- 13. 수능 2003 42 ★★ 선택지 문장 조개기 [2권 p.344]
- 14. 모의 2014 6월 B형 23 ★ 선택지 부정하기 [2권 p.346]
- 15. 수능 2012 49 ★★ 선택지 부정하기 [2권 p.348]
- 16. 수능 2000 13 선택지를 먼저 본다. [2권 p.350]

현대시

1. 수능 2015 A형 31 $x=y$ (범주) [3권 p.15]
2. 수능 2015 A형 32 자극 (내외, 선후, 방향) [3권 p.16]
3. 수능 2015 A형 33 -에서 벗어나게 하다 (부정) [3권 p.17]
4. 수능 2015 B형 43 ★★ 과거 현재 (시간) [3권 p.19]
5. 수능 2015 B형 44 행위자 불일치 [3권 p.20]
6. 수능 2015 B형 45 ★★★★★ 만들다, 완성, 미완 (변화 불변) [3권 p.21]
7. 수능 2014 A형 31 영탄 (단어 치환) [3권 p.24]
8. 수능 2014 A형 33 사제 [3권 p.25]
9. 수능 2014 B형 41 ★★ 사제 [3권 p.27]
10. 수능 2014 B형 42 ★ $x=y$ (범주) [3권 p.28]
11. 수능 2014 B형 43 ★ 극복, 의지 (태) [3권 p.29]
12. 수능 2013 33 부정 [3권 p.31]
13. 수능 2013 34 지문 검색어 (조건화) [3권 p.32]
14. 수능 2013 35 다른 단어 같은 개념 [3권 p.33]
15. 수능 2012 31 다른 단어 같은 개념 [3권 p.35]
16. 수능 2012 32 OI (범주) [3권 p.36]
17. 수능 2012 33 변화 (조건화) [3권 p.37]
18. 수능 2012 34 ★ <보기> 없이 풀기 (조건화) [3권 p.38]
19. 수능 2012 36 유사 구조 (문장 치환) [3권 p.39]
20. 수능 2011 13 딱하다 (단어 치환) [3권 p.41]
21. 수능 2011 14 ★ 사제 [3권 p.42]
22. 수능 2011 15 병치 (단어 치환) [3권 p.43]
23. 수능 2011 16 ★ 갈망 (태) [3권 p.44]
24. 수능 2010 33 ★★ 범주 [3권 p.46]
25. 수능 2010 34 ★★ 주술 (단어 치환) [3권 p.47]
26. 수능 2010 35 ★ 상반되다 (수) [3권 p.48]
27. 수능 2010 36 ★ 직유 (단어 치환) [3권 p.49]
28. 수능 2010 37 OI (범주) [3권 p.50]
29. 수능 2009 28 ★★★★★ 사제 (단어 치환) [3권 p.52]
30. 수능 2009 29 범주 [3권 p.53]
31. 수능 2009 30 ★ -때 (의미 단위 : 범주) [3권 p.54]
32. 수능 2009 31 <보기> 없이 풀기 (조건화) [3권 p.55]
33. 수능 2009 32 화합, 여럿이 모여서 [3권 p.56]
34. 수능 2009 33 -로 (방향) [3권 p.57]
35. 수능 2008 15 상승 하강 (범주) [3권 p.59]
36. 수능 2008 16 ★ 선택지 조건화 [3권 p.60]
37. 수능 2008 17 ★★ 많- (부정) [3권 p.61]
38. 수능 2007 28 ★★ 비림직하다 (단어 치환) [3권 p.63]
39. 수능 2007 29 ★ 유무 (조건화) [3권 p.64]
40. 수능 2007 30 ★★ 의지, 저항 (긍정) [3권 p.65]
41. 수능 2007 31 ★ 범주 [3권 p.66]
42. 수능 2007 32 ★★ 호응 (단어 치환) [3권 p.67]
43. 수능 2006 16 내외 [3권 p.69]
44. 수능 2005 17 ★★★★★ -밤 (의미 단위 : 범주) [3권 p.71]
45. 수능 2004 15 부제, 결핍 (단어 치환) [3권 p.73]
46. 수능 2004 16 ★★ $x=y$ (범주) [3권 p.74]

47. 수능 2004 17 ★★★★★ 입구와 출구 (방향) [3권 p.75]
48. 수능 2004 18 ★★ $x=y$ (범주) [3권 p.76]
49. 수능 2004 19 ★★ $x=y$ (범주) [3권 p.77]
50. 수능 2003 14 ★★ 범주 교차 [3권 p.79]
51. 수능 2003 15 ★★ 반어 (행위자 불일치) [3권 p.80]
52. 수능 2003 17 ★★ 서술어 (조건화) [3권 p.81]
53. 수능 2002 15 ★★ 행위자 불일치 [3권 p.83]
54. 수능 2002 16 ★★★★★ 역설 [3권 p.84]
55. 수능 2002 17 ★★ 범주 치환 [3권 p.85]
56. 수능 2001 13 이상향 (미래) [3권 p.87]
57. 수능 2000 31 ★★ 미지의 세계 (미래) [3권 p.89]
58. 수능 2000 32 ★★ 반복 (조건화) [3권 p.90]
59. 수능 2000 33 ★★★★★ 조건화 [3권 p.91]
60. 수능 2000 35 ★★ 유사 구조 (문장 치환) [3권 p.92]
61. 수능 2000 36 ★★★★★ OI (범주) [3권 p.93]
62. 수능 2000 37 ★★ 선택지 조건화 [3권 p.94]
63. 수능 2000 38 ★★ 동일하다 (수) [3권 p.95]
64. 수능 2000 39 ★★★★★ 선택지 조건화 [3권 p.96]
65. 수능 1999 16 ★★ A 임에도 B하다 (문장 치환) [3권 p.98]
66. 수능 1999 17 ★★ 조건화 [3권 p.99]
67. 수능 1998 20 ★★ $x=y$ (범주) [3권 p.101]
68. 수능 1997 54 ★★ 반어 [3권 p.103]
69. 수능 1996 18 ★★ 문장 치환 [3권 p.105]
70. 수능 1995 33 ★★ 작품 내부 외부 (공간) [3권 p.107]
71. 수능 1994-2 31 ★★ -을 (의미 단위 : 범주) [3권 p.109]
72. 수능 1994-2 32 ★★ 행위자 일치 [3권 p.110]
73. 수능 1994-1 20 ★★ 배경 (단어 치환) [3권 p.112]

고전 시가

1. 수능 2015 A형 43 자문자답 (단어 치환) [3권 p.115]
2. 수능 2015 A형 44 예정되다 (사제) [3권 p.116]
3. 수능 2015 A형 45 부정 [3권 p.117]
4. 수능 2015 B형 31 OI (범주) [3권 p.119]
5. 수능 2015 B형 32 해소 (선후) [3권 p.120]
6. 수능 2015 B형 33 ★★ 의인화, 비유 (선후) [3권 p.121]
7. 수능 2015 B형 34 ★ A but B (범주) [3권 p.122]
8. 수능 2014 A형 38 대상 (단어 치환) [3권 p.124]
9. 수능 2014 A형 40 ★★ 시간 공간 (비교) [3권 p.125]
10. 수능 2013 47 심화, 적게 (선후) [3권 p.127]
11. 수능 2011 28 ★ 선정후정 (범주) [3권 p.129]
12. 수능 2008 29 ★★★★★ 반대 관계 [3권 p.130]
13. 수능 2008 31 ★★ 범주 교차 [3권 p.131]
14. 수능 2007 54 ★★ 되다 (행위자) [3권 p.133]
15. 수능 2007 55 ★★ 무료하다 (부정) [3권 p.134]
16. 수능 2007 56 ★★ 가난 (부정) [3권 p.135]
17. 수능 2006 25 구속, 벗어나다 (부정) [3권 p.137]
18. 수능 2006 28 ★★ 시대 (범주) [3권 p.138]

19. 수능 2006 30 $x=y$ (범주) [3권 p.139]
20. 수능 2005 38 ★★★★★ 수 [3권 p.141]
21. 수능 2005 40 ★★★★★ $x=y$ (범주) [3권 p.142]
22. 수능 2005 41 ★★★★★ 현학적, 허물 (부정) [3권 p.143]
23. 수능 2005 42 ★★★★★ 선경후정 (범주) [3권 p.144]
24. 수능 2004 52 ★★★★★ 거리가 멀다 (심상, 시점) [3권 p.146]
25. 수능 2004 53 ★★★★★ 행위자 불일치 [3권 p.147]
26. 수능 2004 54 ★★★★★ 선후 [3권 p.148]
27. 수능 2004 55 ★ 창안하다 (시간) [3권 p.149]
28. 수능 2004 56 ★★★★★ OJ (범주) [3권 p.150]
29. 수능 2003 28 ★★★★★ 비교 (범주) [3권 p.152]
30. 수능 2002 37 ★★ A but B (범주 교차) [3권 p.154]
31. 수능 2002 39 ★★★★★ 반례 [3권 p.155]
32. 수능 2002 40 ★★★★★ 혼자 (수) [3권 p.156]
33. 수능 2002 41 ★★★★★ 때 ≠ 배경 (시간 ≠ 공간) [3권 p.157]
34. 수능 2001 46 ★ $x=y$ (범주) [3권 p.159]
35. 수능 1999 52 ★★ A but B [3권 p.161]
36. 수능 1999 53 ★★ 유사 구조 [3권 p.162]
37. 수능 1999 54 ★★ 선후 [3권 p.163]
38. 수능 1998 62 ★★ 시간의 공간화 (시간 공간) [3권 p.165]
39. 수능 1998 63 ★★ 무상감 (범주) [3권 p.166]

현대 소설

1. 수능 2015 A형 38 단어 치환 [3권 p.170]
2. 수능 2015 A형 39 가절, 대립, 연대 (부정) [3권 p.171]
3. 수능 2015 A형 40 $x=y$ (범주) [3권 p.172]
4. 수능 2015 A형 41 없다, 절망 (부정) [3권 p.173]
5. 수능 2015 A형 42 ★★★★★ 행위자 불일치 [3권 p.174]
6. 수능 2014 A형 34 ★★ 초점 화자 [3권 p.178]
7. 수능 2014 A형 35 포기, 절망 (태) [3권 p.179]
8. 수능 2014 A형 36 반대 해석 (문장 치환) [3권 p.180]
9. 수능 2014 A형 37 ★ 수 [3권 p.181]
10. 수능 2014 B형 35 ★ 행위자 일치 [3권 p.184]
11. 수능 2014 B형 37 ★★ 회피, 치유 (부정) [3권 p.185]
12. 수능 2013 17 여러 (수) [3권 p.188]
13. 수능 2013 20 ★★ 물리다 (선후) [3권 p.189]
14. 수능 2012 14 완고함 (시대) [3권 p.192]
15. 수능 2012 16 시제 [3권 p.193]
16. 수능 2011 40 성격 구체화 방법 [3권 p.196]
17. 수능 2011 41 행위자들 사이 (행위자) [3권 p.197]
18. 수능 2011 42 무심 (부정) [3권 p.198]
19. 수능 2011 43 저항 (태) [3권 p.199]
20. 수능 2010 38 ★★ 생동감 (단어 치환) [3권 p.202]
21. 수능 2010 39 ★ 시대를 벗어난 인간 (시간) [3권 p.203]
22. 수능 2010 40 ★★ 공간 비교 (시대) [3권 p.204]
23. 수능 2010 41 ★★ 시대 (태) [3권 p.205]
24. 수능 2009 20 ★★ 시대 교차, 공간 교차 (범주) [3권 p.208]

25. 수능 2009 21 위해, 목적 (태) [3권 p.209]
26. 수능 2009 22 ★ 하고 싶다 (태) [3권 p.210]
27. 수능 2009 23 ★ <보기> 없이 풀기 (조건화) [3권 p.211]
28. 수능 2008 47 ★★★★★ 초점 화자 [3권 p.214]
29. 수능 2008 48 ★★ 내부 외부 교차 (공간) [3권 p.215]
30. 수능 2008 49 $x=y$ (범주) [3권 p.216]
31. 수능 2008 50 ★ 품위 (시대) [3권 p.217]
32. 수능 2007 15 ★ 보여주기, 말하기 (행위자) [3권 p.220]
33. 수능 2007 16 ★ 배경 (선후) [3권 p.221]
34. 수능 2007 17 ★ 인과 (선후) [3권 p.222]
35. 수능 2007 18 ★ 경계심 (부정) [3권 p.223]
36. 수능 2006 56 ★★ 초점 화자 [3권 p.226]
37. 수능 2006 57 잃어버리다, 노력하다 (태) [3권 p.227]
38. 수능 2006 58 시대, 작가 (범주) [3권 p.228]
39. 수능 2007 59 OJ (시대) [3권 p.229]
40. 수능 2005 56 ★★ 대과거 과거 현재 (범주) [3권 p.234]
41. 수능 2005 57 ★ 반성, 무섭다 (부정) [3권 p.235]
42. 수능 2005 59 ★★★★★ 긍정 부정 (공간) [3권 p.236]
43. 수능 2005 60 ★★ 다른 것이 답 (선택지 조건화) [3권 p.237]
44. 수능 2004 29 ★★ 범주 교차 [3권 p.240]
45. 수능 2004 30 ★★ 하나의 개념은 단수 (수) [3권 p.241]
46. 수능 2004 31 ★★★★★ 중심, 자세하다 (수) [3권 p.242]
47. 수능 2004 32 ★★★★★ 범주 교차 [3권 p.243]
48. 수능 2004 33 유사 구조 [3권 p.244]
49. 수능 2003 52 내외 (공간) [3권 p.248]
50. 수능 2003 53 ★★ -별로 다르게 (수) [3권 p.249]
51. 수능 2003 54 ★★ 서술어 [3권 p.250]
52. 수능 2002 32 ★ 주제 (시대) [3권 p.254]
53. 수능 2002 33 ★★★★★ 연민 (부정) [3권 p.255]
54. 수능 2002 34 ★★ 반대 관계 (문장 치환) [3권 p.256]
55. 수능 2002 35 독백 (수) [3권 p.257]
56. 수능 2001 47 ★★ 시작과 끝의 수일치 [3권 p.260]
57. 수능 2001 50 ★ 호응 (조건화) [3권 p.261]
58. 수능 2000 55 ★★ 경계선 (공간) [3권 p.264]
59. 수능 2000 59 ★★ 바꾸다 (선후) [3권 p.265]
60. 수능 2000 60 ★★ 가정법 [3권 p.266]
61. 수능 1999 40 ★★★★★ 가부장 (시대) [3권 p.270]
62. 수능 1999 41 ★★ 유무 (비교) [3권 p.271]
63. 수능 1998 35 범주 구분 [3권 p.274]
64. 수능 1998 38 ★★★★★ 주관 객관 (비교) [3권 p.275]
65. 수능 1997 35 ★★★★★ A but B (조건화) [3권 p.278]
66. 수능 1997 36 ★★ A but B (조건화) [3권 p.279]
67. 수능 1997 38 ★★ 흥정 (시대) [3권 p.280]
68. 수능 1997 39 ★★★★★ $x=y$ (범주) [3권 p.281]
69. 수능 1996 32 ★★ 대과거 과거 현재 (범주) [3권 p.284]
70. 수능 1996 33 선택지 조건화 [3권 p.285]
71. 수능 1995 14 ★ 서술어 [3권 p.287]
72. 수능 1995 15 ★ 대화 (수) [3권 p.288]
73. 수능 1995 16 ★★ 두 공간 (범주 교차) [3권 p.289]

- 74. 수능 1995 17 ★★ S-P (조건화) [3권 p.290]
- 75. 수능 1994-2 20 ★ 누를 수 없다 (태) [3권 p.293]
- 76. 수능 1994-1 21 ★ 바꾸다 (선후) [3권 p.295]
- 77. 수능 1994-1 25 ★ 아이러니 [3권 p.296]
- 78. 수능 1994-1 26 ★★ 4.19 정신 (시대) [3권 p.297]

고전 산문

- 1. 수능 2015 A형 34 끊어 읽기 (의미 단위 : 범주) [3권 p.302]
- 2. 수능 2015 A형 35 ★★★★★ 개념 일치 [3권 p.303]
- 3. 수능 2015 A형 36 ★ 개념 불일치 [3권 p.304]
- 4. 수능 2015 A형 37 송곳 (부정) [3권 p.305]
- 5. 수능 2015 B형 35 행위자 불일치 [3권 p.308]
- 6. 수능 2015 B형 36 범주 교차 [3권 p.309]
- 7. 수능 2015 B형 37 방향 (수) [3권 p.310]

- 8. 수능 2014 A형 41 ★★ 행위자 불일치 [3권 p.314]
- 9. 수능 2014 A형 43 ★★ 행위자 불일치 [3권 p.315]
- 10. 수능 2014 A형 42 ★ 강화 (선후) [3권 p.316]
- 11. 수능 2014 B형 31 출연 (순간) [3권 p.320]
- 12. 수능 2014 B형 32 ★★ 바라보다 (방향) [3권 p.321]
- 13. 수능 2014 B형 33 ★★ 입구와 출구 (방향) [3권 p.322]
- 14. 수능 2014 B형 34 ★★ 서로 (수) [3권 p.323]
- 15. 수능 2013 15 과상하다, 돕다 (부정) [3권 p.325]
- 16. 수능 2012 26 성찰, 풍자 (부정) [3권 p.328]
- 17. 수능 2012 27 ★ 하며 (선후) [3권 p.329]
- 18. 수능 2011 47 ★ 행위자 불일치 [3권 p.332]
- 19. 수능 2011 48 ★ 담 (경계선) [3권 p.333]
- 20. 수능 2011 49 ★★ A의 B와 A의 C [3권 p.334]
- 21. 수능 2010 16 자신 (행위자 불일치) [3권 p.339]
- 22. 수능 2010 17 ★ 범주 [3권 p.340]
- 23. 수능 2010 18 행위자 일치 [3권 p.341]
- 24. 수능 2009 47 ★★★★★ 행위자 일치 [3권 p.344]
- 25. 수능 2009 48 ★★★★★ 범주 [3권 p.345]
- 26. 수능 2009 49 ★★★★★ 개념 불일치 [3권 p.346]
- 27. 수능 2008 27 ★★ 묘사 (행위자 불일치) [3권 p.350]
- 28. 수능 2008 28 ★★★★★ 끊어 읽기 (의미 단위 : 범주) [3권 p.351]
- 29. 수능 2008 29 ★ $x=y$ (범주) [3권 p.352]
- 30. 수능 2007 41 ★★★★★ 풍자 (부정) [3권 p.356]
- 31. 수능 2007 42 ★★ 가지고 있다 (수) [3권 p.357]
- 32. 수능 2007 43 ★★★★★ 반어 [3권 p.358]
- 33. 수능 2007 44 ★★ 마침표 (문장 : 범주) [3권 p.359]
- 34. 수능 2006 48 액자 구조 (내부) [3권 p.362]
- 35. 수능 2005 21 ★ 확인 (단어 차환) [3권 p.366]
- 36. 수능 2005 23 범주 [3권 p.367]
- 37. 수능 2004 26 ★★ 시제 불일치 [3권 p.370]
- 38. 수능 2004 28 ★ 지닌 (시간) [3권 p.371]

- 39. 수능 2003 32 ★ 장자로서의 권한 (시대) [3권 p.374]
- 40. 수능 2003 35 시대 (범주) [3권 p.375]
- 41. 수능 2002 46 전환 (수) [3권 p.377]
- 42. 수능 2000 53 A but B (범주) [3권 p.382]
- 43. 수능 1998 48 행위자들 사이 [3권 p.387]
- 44. 수능 1997 19 유사 구조 [3권 p.389]
- 45. 수능 1996 53 $x=y$ (범주) [3권 p.391]
- 46. 수능 1995 27 하고 (현재 진행 사제) [3권 p.393]
- 47. 수능 1994-2 37 ★★ 초점 화자 [3권 p.395]
- 48. 수능 1994-1 53 유사 구조 [3권 p.397]
- 49. 수능 1994-1 54 서술어 [3권 p.398]

희곡 수필 시나리오

- 1. 수능 2014 A형 45 ★ 부정 [3권 p.401]
- 2. 수능 2012 37 ★★★★★ 공감 (행위자 일치) [3권 p.404]
- 3. 수능 2012 39 못, 억제 (부정) [3권 p.405]
- 4. 수능 2010 27 하고 싶다 (태) [3권 p.408]
- 5. 수능 2010 29 달라지다 (조건화) [3권 p.409]
- 6. 수능 2009 37 ★★ 가까워하지 않다 (부정) [3권 p.412]
- 7. 수능 2009 38 ★★★★★ 드러나다 (선후) [3권 p.413]
- 8. 수능 2008 38 ★★ 이후 (범주) [3권 p.416]
- 9. 수능 2008 39 ★★★★★ $x=y$ (범주) [3권 p.417]
- 10. 수능 2006 41 가리다 (부정) [3권 p.419]
- 11. 수능 2004 57 ★ 수단과 목적 [3권 p.421]
- 12. 수능 2004 58 ★ A not B [3권 p.422]
- 13. 수능 2004 59 ★★★★★ 기승전결 [3권 p.423]
- 14. 수능 2004 60 ★★★★★ 선후 [3권 p.424]
- 15. 수능 2003 50 반복되는 단어가 주제 [3권 p.427]
- 16. 수능 2002 52 ★ 소심하다, 용의주도하다 [3권 p.430]
- 17. 수능 2002 54 가정법 [3권 p.431]
- 18. 수능 2001 56 ★ 내외 [3권 p.434]
- 19. 수능 2001 60 내외 [3권 p.435]
- 20. 수능 1999 33 ★★ 4단 구성(기승전결) [3권 p.437]
- 21. 수능 1998 23 ★★ 선택지 조건화 [3권 p.439]
- 22. 수능 1997 14 | ★ 인과 [3권 p.441]
- 23. 수능 1997 17 | ★★ 선택지 조건화 [3권 p.442]
- 24. 수능 1996 48 | ★★ 범주 교차 [3권 p.444]
- 25. 수능 1996 49 | ★ 선택지 조건화 [3권 p.445]
- 26. 수능 1994-1 47 ★ 수 [3권 p.447]
- 27. 수능 1994-1 49 ★ $x=y$ [3권 p.448]

에세이

신은 있는가? 신은 있어야 하는가? 1권 p.31

- 연민도 공격이다 p.35
- 수륙양용 자동차가 세상에 없는 이유 p.38
- 백남준은 말했다. "예술은 사기다." p.43
- 화학의 힘 p.47
- 반복과 변주 p.51
- 겉주는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다 p.52
- 돈은 권력이다 p.63
- 고향/과거/신사랑은 언제 생기는가? p.65
- 그 사람이 좋은 이유 p.71
- 기능에 충실한 사람을 찾지 말자 p.73
- 우리 안의 마피아 p.81
- 우주는 몇 개의 원자로 되어 있는 공동체 p.87
- 마포 대교에 늘지 마라. p.87
- 강아지 바꾸기 p.88
- 나에게 맞는 직업 찾는 법 p.89
- 아프라고 하지 마라. 아프다 p.95
- 아들아! 인생의 자해를 배워라 - 김승호 p.97
- 어떤 책을 어떻게 왜 읽어야 하는가? p.107
- 천국은 존재하는가? p.115
- 민주적인 판사 - 브레히트 p.142
- 나에게 힘이 있는 이유 - 성 프란체스코 p.142
- 무허가 이발소 - 김수영 p.145
- 부끄러움 없는 사랑, 두려움 없는 사랑 p.147
- 도덕을 요구하는 사회일수록 권위적인 사회 p.166
- 생명은 언제부터 생명인가? p.167
- 용의자 X의 헌신 p.168
- 누구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p.175
- 안데르센 - 유종호 p.179
- 왜 지식인은 권력을 싫어할까? p.183
-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p.189
- 목적 p.198
- 서양 문명과 동양 문명 p.199
- 학문은 왜 하세요? - 홍윤표 p.199
- 오늘은 한글날이다 국경일이다 - 유종호 p.205
- 생명이란 p.207
- 자신감 p.207
- 방글라 아저씨 p.213
- 난 특별한 사람이고 싶다 p.221
- 이 일 저 일 - 김수영 p.222
- 종교 문명과 인간 문명 p.231
- 사랑에 대해 생각할수록 사랑에서 멀어진다 p.235
- 감 같은 인간 p.240
- 관계가 관점을 결정한다 - 신영복 p.264
- 손해 보지 않으려는 사회 - 신영복 p.264
-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따라가라 p.267
-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p.269
- 사랑받고 있다는 티를 내라 p.276
- 하식이 p.276
- 아름다움은 나다움이다 p.287
- "새롭지 않은 문학은 부도덕하다." p.293
- '나다운 것에 대해 거듭거듭 물음 - 범정 p.293
- 진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p.296
- 오직 신나는 음악이 나를 위로해 준다 p.301

- 흥부와 놀부 p.307
- 과학자들 p.315
- 명곡의 조건 p.319
- 내가 할 말을 내가 하면 행위자 불알치야 p.323

볼록 2권 p.33

- 가능 + α p.41
- 친구가 몰었다. "요즘 뭐해?" p.45
- 몸은 머리보다 영리하다 p.49
- 패턴을 암기하자. 문제 푸는 순서를 암기하자 p.52
- 공부를 못해도 성공할 수 있다. p.53
- 운동 · 공부 · 글쓰기의 공통점 p.54
- 이기적인 사람과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다르다 p.55
- 다섯 걸음만 더 p.56
-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p.57
- 얼른 늙고 싶다 p.58
- 빵 서둘 해결하자 p.64
- 패러다임의 전환 p.75
- 용기 p.87
- 내가 잘하게 된 이유를 말해 주는 것이 용기 p.92
- 프로이드와 꿈 해석 p.95
- 나를 사랑하는 사람, 좋은 사람 찾는 법 p.99
- 다르게 살고 싶다 p.104
- 성인은 슬로비디오로 죽지 않는다 p.105
- 성인을 옥해야 성인 될 수 있다 p.105
- 다윈의 진화론 - 향상과 분기 p.107
- 삼동유감 - 김수영 p.117
- 대강 봐야 진실을 본다 p.119
- 단 10분만 대화할 수 있다면 p.133
- 너도 프라이팬에 구우면 더 맛있지 않나? p.133
- 때가 왔다. 그리고 그녀는 사랑에 빠졌다 p.141
- 진짜는 우연히 온다 p.141
- 기적을 얻는 방법 p.141
- 학생을 망치는 가장 현명한 방법 p.151
- 사랑하면 더 모르게 된다 p.169
- 속옷을 깨끗하게 p.171
- 남성의 자아 정체성 - 사선 권력 p.180
- 여성의 자아정체성 - 분열 p.189
- 여성의 자아정체성 - 보게 하는 전략 p.191
- 그건 니 생각이고 p.192
- 선물 - 성석제 p.201
- 반전 글쓰기 p.203
- 장군과 CEO의 공통점 p.213
- 누가 우리 시대를 보여주는가? p.216
- 가장 민주적인 선거는 제비뽑기 - 더글라스 p.219
- 문명사회가 창조론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 p.229
- 함부로 용서하지 마라 p.231
- 회집 주방장 p.233
- 길을 잃는 것은 길을 찾는 방법이다 p.250
- 이 사람도 나와 같은 심정이구나 p.253
- 잘하는 법 p.259
- 시간이 부족해요 p.262
- 나에게도 낯설어야 창의적이다 p.263
- 글 쓰는 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 p.266
- 애교는 서술어로 p.275
- 역사적인 수능 2004 p.281
- 선과 악 p.303

- 얼마나 도덕적이어야 할까? p.303
- 가지고 놀다 p.309
- 오래 살려고 하지 마라 p.314
- 강하면 부러진다? 그래 한번 부러져보자 p.314
- 친구가 너의 앞길을 막는다 p.314
- 국민 정서법 p.317
- 영화처럼 토크처럼 살아 p.321
- 시험공부를 학문하듯 하지 말라 p.328
- 다시 태어난다면 p.331
- 아팠기 때문에 세상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된다 p.333
- 내가 머리를 짧게 깎은 이유 p.334
- 공부가 안 될 때는 p.349
- 수능 국어의 출제 범위는 한 글자다 p.350

제주도의 푸른 밤 3권 p.17

- 상식과 인문 정신 p.22
- 서강대 논술 2003 예시 1차 p.22
- 100점 공부법 p.39
- 확실히 아는 것과 모르는 것 p.60
- 늘 부재하고 늘 결핍된 사람 p.124
- 후기 근대 p.139
- 여자 친구 사귀는 법 p.147
- 조선 선비들의 최대 고민거리 p.154
- 자연이 주는 위로 - 몰아일체 p.166
- 수익에 대하여 - 신영복 p.175
- 잘 지는 법 p.181
- 4.19 정신과 문학 - 김현 p.183
- 자유 의 반대는 유용함이다 p.184
- 우리 동네 김씨 - 이문구 p.202
- 강남 변호판 - 서울 친구들의 낙인 p.210
- 메밀꽃 필 무렵 - 이남호 p.232
- 양심에 털이 나다 - 박노자 p.245
- 회고록 : 나의 대한 글쓰기 - 윌리엄 진저 p.251
- 혐오 : 미워하고 싫어함 - 신영복 p.254
- 특정 종교를 믿으면 부자가 된다는 생각 p.257
- 자유란 결과를 계산하지 않았기에 받는 보상 p.267
- 이빨을 발명해야 해!! p.271
- 조선 선비들의 정체성 p.274
- 인간관계 최고법 p.285
- 이상 - 근대의 시작에서 근대를 비웃다 p.291
- 놀이 : 근대의 발명품 - 가리타니 고진 p.291
- 공약과 사익 p.298
- 집권과 분권 p.298
- 종교(과학)와 역사 p.311
- 저는 선생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어요! p.328
- 수능 성적표 받던 날 p.335
- 온몸으로 살아가는 삶 - 신영복 p.338
-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 - 효율 p.347
- 출산율과 가부장 사회 p.353
- 마녀가 되자 p.353
- 사실이란 진실의 조각 그림입니다 - 신영복 p.363
- 고려대 논술 문제 2006 수시 p.383
- 장자 p.425
- 선생님은 진보예요 보수예요! p.434
- 조선의 폐쇄주의 p.447
- 민들레 국수집 p.448
- 김성근 감독 특강 p.449

6. ㉓가 내포하는 의미를 가장 잘 파악한 것은?



위에서 언급한 황색과 녹색 외에 화면 오른쪽 아래쪽의 장방형에는 청색이, 바탕에는 옅은 보라색이 각각 칠해져 있다. 한편 화면 왼쪽에는 화분에 핀 꽃의 청색과 건물의 회색, 그리고 전체의 바탕에 깔린 검정색이 등장한다. 색 그 자체는 화려하다거나 다양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화면에서는 분명히 남국의 창을 생각나게 하는 밝음이 느껴진다. 야수파 시기의 격렬한 색채의 혁명을 거친 마티스는 화면의 밝음, 풍부함이라는 것은 결코 튜브에 들어 있는 물감 색의 생생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훗날 그는 “하나의 색은 단순한 물감에 불과하다. 두 개의 색이야말로 화음이고, 생명이다.”라고 말했다. 마티스에게 색채의 비밀은 무엇보다도 그 조화와 울림에 있었던 것이다. ‘모로코 사람들’에서 전체의 배경이 되는 검정색은 어두운 느낌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남국의 투명한 밝음을 느끼게 해 준다. 마티스 자신도 이 검정을 가리켜 ‘빛의 색’이라고 했는데, 본래 어둠의 색인 검정을 ‘빛의 색’으로 변모시킨 것에 ㉓ 색채의 미술사 마티스의 비밀이 있다. ‘모로코 사람들’은 마티스의 그런 놀라운 표현력을 보여 주는 걸작이다.

- ①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물감 혼합법을 사용했다.
- ② 검정색만으로 화면에 신비스러운 효과를 연출했다.
- ③ 검정색과 흰색을 대비시켜 남국의 밝음을 표현했다.
- ④ 검정색이 주위 색과의 조화를 통해 밝은 느낌을 주었다.
- ⑤ 어둠의 색인 검정색이 흰색과의 혼합으로 ‘빛의 색’이 되었다.

수

| 모의 2007 6월 31 |

하나의 색, 두 개의 색 (단수 복수)

풀이 '단수와 복수의 조합'과 일치하는 것은 '단수와 복수의 조합'이다.

㉔를 묻고 있다. ㉔ 앞을 보자. $(x=y)$

'본래 어둠의 색인 검정을 / 빛의 색으로 / 변모시킨 것'이 있다.

'~을 ~으로 변모시키다' 표현이다. 이 부분이 ㉔를 설명하고 있다.

지문에서 검정색이 / 빛의 색으로 변한 이유를 / 찾으면 되겠다.

바탕색은 검은색(단수)이다. 그 안 사물들은 다양한 색(복수)이다.

단수와 복수의 조합, 이것이 색채의 마술사 마티스의 비밀이다.

적용 ㉔ 선택지 : '검정색'이 / '주위 색과의 조화를 통해 / 밝은 느낌을 주었다.

하나의 검은색이 복수의 색과 만난다. 수 패턴이 일치하므로 ∴ 일치

❶ 선택지 :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 물감 '혼합'법을 사용했다.

'물감 혼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의 색이다.

지문은 단수와 복수의 조합을 말하고, 선택지는 '단수'를 말하므로

∴ 불일치

❷ 선택지 : 검정색'만으로' / 화면에 신비스러운 효과를 연출했다.

'만'은 단수이다.

지문은 단수와 복수의 조합을 말하는데, 선택지는 '단수'를 말하므로

∴ 불일치

❸ 선택지 : '검정색'과 '흰색'을 대비시켜 / 남국의 밝음을 표현했다.

하나의 검정색과 하나의 흰색이 대비되면 '단수와 단수의 조합'이다.

지문은 단수와 복수의 조합을 말하고 선택지는 '단수와 단수의 조합'

을 말하므로 ∴ 불일치

❹ 선택지 : 어둠의 색인 검정색이 흰색과의 '혼합'으로 / '빛의 색'이 되었다.

'혼합'은 두 가지 색이 하나의 색이 되었다는 말이다.

지문은 단수와 복수의 조합을 말하는데, 선택지는 '단수'를 말하므로

∴ 불일치

㉔ 다른 풀이 (사동)

검정색이 밝은 색이 된 것은 '밝은 검정색'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색들을 밝게 해 주었기 때문이다. 즉 다른 색을 밝은 색이 되게 해줌으로써 자기도 밝은 색이 된 것이다.

❶ 흰색과 빨강을 섞으면 / 분홍색이 된다.

결론 답4

7. 사람의 청각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

| 수능 2012 22 | ★★

이어폰으로 스테레오 음악을 들으면 두 귀에 약간 차이가 나는 소리가 들어와서 자기 앞에 공연장이 펼쳐진 것 같은 공간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어떤 원리가 적용되어 나타난 것일까?

사람의 귀는 주파수 분포를 감지하여 **음원의 종류**를 알아내지만, **음원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는 직접적인 정보는 감지하지 못한다. 하지만 사람의 청각 체계는 **두 귀 사이** 그리고 **각 귀와 머리 측면 사이**의 상호 작용에 의한 단서들을 이용하여 음원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다. 음원의 위치는 소리가 오는 수평·수직 방향과 음원까지의 거리를 이용하여 지각하는데, 그 정확도는 음원의 위치와 종류에 따라 다르며 개인차도 크다. 음원까지의 거리는 목소리 같은 익숙한 소리의 크기와 거리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추정한다.

음원이 청자의 정면 정중앙에 있다면 **음원에서 두 귀까지의 거리가** 같으므로 소리가 두 귀에 도착하는 시간 차이는 없다. 반면 음원이 청자의 오른쪽으로 치우치면 소리는 오른쪽 귀에 먼저 도착하므로, 두 귀 사이에 도착하는 시간 차이가 생긴다. 이때 치우친 정도가 클수록 시간 차이도 커진다. **도착 순서와 시간 차이**는 음원의 수평 방향을 알아내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음원이 청자의 오른쪽 귀 높이에 있다면 머리 때문에 왼쪽 귀에는 소리가 작게 들린다. 이러한 현상을 ‘소리 그늘’이라고 하는데, 주로 고주파 대역에서 일어난다. 고주파의 경우 소리가 진행하다가 머리에 막혀 왼쪽 귀에 잘 도달하지 않는데 비해, 저주파의 경우 머리를 넘어 왼쪽 귀까지 잘 도달하기 때문이다. 소리 그늘 효과는 주파수가 $1,000Hz$ 이상인 고음에서는 잘 나타나지만, 그 이하의 저음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 현상은 고주파 음원의 수평 방향을 알아내는데 특히 중요한 단서가 된다.

한편, 소리는 귓구멍에 도달하기 전에 머리 측면과 귓바퀴의 굴곡의 상호 작용에 의해 여러 방향으로 반사되고, 반사된 소리들은 서로 간섭을 일으킨다. 같은 소리라도 소리가 귀에 도달하는 방향에 따라 상호 작용의 효과가 달라지는데, 수평 방향뿐만 아니라 수직 방향의 차이도 영향을 준다. 이러한 상호 작용에 의해 주파수 분포의 변형이 생기는데, 이는 간섭에 의해 어떤 주파수의 소리는 작아지고 어떤 주파수의 소리는 커지기 때문이다. 이 또한 음원의 방향을 알아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 ① 두 귀에 소리가 도달하는 순서와 시간 차이를 감지했다면 생소한 소리라도 음원까지의 거리를 알아낼 수 있다.
- ② 이어폰을 통해 두 귀에 크기와 주파수 분포가 같은 소리를 동시에 들려주면 수평 방향의 공간감이 느껴진다.
- ③ 소리가 울리는 실내라면 소리가 귀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다양해져서 음원의 방향을 더 잘 찾아낼 수 있다.
- ④ 귓바퀴의 굴곡을 없애도록 만드는 보형물을 두 귀에 붙이면 음원의 수평 방향을 지각할 수 없다.
- ⑤ 소리의 주파수에 따라 음원의 수평 방향 지각에서 소리 그늘을 활용하는 정도가 달라진다.

풀이 단수와 복수는 다르다.

적용 ③ 지문 : 음원이 / 청자의 정면 정중앙에 있다면 / 음원에서 두 귀까지의 거리가 같으므로 / 소리가 두 귀에 도착하는 시간 차이는 없다. 반면 음원이 청자의 오른쪽으로 치우치면 / 소리는 오른쪽 귀에 먼저 도착하므로, 두 귀 사이에 도착하는 시간 차이가 생긴다. 이때 치우친 정도가 클수록 시간 차이도 커진다. / 도착 순서와 시간 차이는 음원의 수평 방향을 알아내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지문은 '음원은 하나의 소리이므로 단수이고, 귀는 두 개이므로 복수이다. 하나의 소리가 두 개의 귀에 도착하는 시간 차이가 생겨서, 두 개의 소리가 된다. 그 결과 음원의 방향을 알아낸다'라고 한다.
그런데 선택지는 한 음원이 (벽에 부딪혀) 여러 음원이 되었다고 말한다. 여러 음원은 복수이다. 지문은 음원은 단수라고 하는데, 선택지는 음원은 복수라고 하므로 ∴ 불일치

⑤ 지문 : 이러한 현상을 '소리 그늘'이라고 하는데, 주로 고주파 대역에서 일어난다. 소리 그늘 현상은 주로 고주파에서 일어난다. 고주파가 아니라면 소리 그늘 현상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고주파 여부에 따라' 소리 그늘을 활용하는 정도가 달라진다.
∴ 일치

① 지문 : 음원의 위치는 / (소리가 오는 수평·수직 방향과) 음원까지의 거리를 이용하여 지각하는데 (그 정확도는 음원의 위치와 종류에 따라 다르다) 음원까지의 거리는 (목소리 같은) '익숙한 소리의 크기와 거리의 상관관계'를 / 이용하여 추정한다.
지문은 '음원의 위치는 거리를 이용하여 지각한다. 거리는 익숙한 소리를 이용한다'라고 한다. 익숙한 소리이어야 거리를 알 수 있다. 익숙한 소리가 아니라면 거리를 알 수 없다. ①은 익숙한 소리가 아니라도 상관없다고 말하므로 ∴ 불일치

② 지문 : 도착 순서와 시간 차이는 / 음원의 수평 방향을 알아내는 / 중요한 단서가 된다.
지문은 '시간 차이는 중요한 단서'라고 말한다. 선택지는 '동시'라고 말한다. '동시'라는 것은 '시간 차이가 없다'라는 말이므로 ∴ 불일치

④ 지문 : (머리 측면)과 (귓바퀴의 굴곡)의 상호 작용에 의해 지문에서 '굴곡'은 <귀 외부>에 있는 머리 측면과의 상호 작용이다. 선택지에서 '굴곡'을 없애는 것은 굴곡과 굴곡 사이를 없애는 것으로 <귀 내부>에 있는 다른 굴곡과의 상호 작용을 없애는 것이다. 지문은 외부 사이이고, 선택지는 내부 사이이므로 ∴ 불일치

우리가 공간감을 느끼는 이유는 하나의 소리가 두 귀에서 두 개의 소리가 되기 때문이다.

⑥ 지문 : 하나의 음원 - 두 개의 귀
선택지 : 다양한 음원 - 두 개의 귀
∴ 불일치

선택지 ③에 '소리가 귀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다양해져서'라고 되어 있다. 시간이 다양해진 이유는 뭘까? 하나의 소리가 여러 소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여러 소리가므로 당연히 여러 소리가 귀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다양해진다. 소리가 다양해지면 어떻게 될까? 소리의 방향을 찾기가 더 힘들어진다. 그런데 선택지는 '음원 방향을 더 잘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므로 ∴ 불일치

⑥ 조건문
P는 Q이다. (P→Q)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Q→~P)

① 조건문
Q이어야 P이다. (P→Q)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Q→~P)

② 동시와 선후는 다르다.

등위 접속사가 종속의 뜻으로 쓰임
'도착 순서와 시간 차이'는 '도착 순서에 따른 시간 차이'로 읽어야 한다.

④ 외부 사이와 내부 사이는 다르다.

결론 답⑤

평가원 답변

이 문항은 사람의 청각 체계가 음원의 위치를 지각하는 원리를 설명하는 글을 읽고, 정보를 종합하여 사람의 청각 체계에 대해 이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의 제기는 답지 ③, ④의 내용이 추론 가능하다는 것과 ⑤의 내용은 추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답지 ③은 소리의 울림에 의해 소리가 귀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다양해질 경우, 음의 위치 파악이 더 잘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지문에서 음원의 위치에 따라 소리가 두 귀까지 도달하는 시간의 차이가 다르다고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울리는 실내라면 한 음원에서 발생한 소리가 반사되면서 귀까지 도달하는 시간 차이가 다양해지므로 음원이 여기저기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음원의 방향 지각의 정확도가 떨어질 것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답지 ③은 틀린 진술입니다.

답지 ④는 컷버퀴의 굴곡을 없앨 경우 수평 방향 지각 능력이 상실되는지를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지문에 따르면 컷버퀴의 굴곡이 없어진다면 상호 작용의 정도가 현저히 떨어져 상호 작용에 의한 수평과 수직 방향의 지각 능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소리의 도착 순서와 시간 차이, 그리고 소리 그늘 현상에 의해 소리의 수평 방향 지각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답지 ④는 틀린 진술입니다.

답지 ⑤는 음원의 수평 방향을 지각할 때 소리의 주파수에 따라 소리 그늘을 활용하는 정도가 달라지는지를 추론하는 내용입니다. 지문에 따르면 소리 그늘 현상은 1,000Hz 이상의 고주파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고 그 이하의 저주파 영역에서는 거의 활용될 수 없기 때문에, 소리 주파수의 높낮이에 따라 소리 그늘을 활용하는 정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답지 ⑤는 맞는 진술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 문항의 정답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푼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질문했던 것이 ③과 ④이다. 평가원에 이의 제기한 사람들도 주로 ③, ④를 묻는다. 왜 그럴까? 이런 걸 안 배웠기 때문이다. ③은 '수'를 물었고, ④는 '내외'를 물었다. 넌 배웠으니 잘 써먹었으면 좋겠다.

평가원은 명시적으로 단수, 복수라는 용어를 쓰지 않지만, (왜? 평가원은 평가기관이지, 가르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능 출제 원리가 '수'임을 알 수 있다.

평가원은 "지문에 따르면"이라고 말하지만, 지문에는 '떨어진다'는 말이 없다. 비슷한 말로 '효과가 달라진다'는 말은 있다. 선택지 ④는 '지각할 수 없다'인데, 평가원은 '지각 능력이 떨어진다'로 바꿔 썼다. '떨어진다'와 '없다'는 다른 말임에도 불구하고, ('지각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원래보다 떨어진다라는 것이고, 지각할 수 없다는 가능 불가능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원이 선택지에 있는 내용은 설명하지 않고, 선택지에 없는 내용을 끌어다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출제 원리를 숨기기 위함이 아닌가 싶다.

⑤가 맞는 선택지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③, ④가 어려웠다. 만약 정답이 ③, ④가 되도록 문제를 만들었다면 이 문제의 정답률은 40% 이하였을 것이다. 그럼 100점 방자용 문제가 된다.

8. 초음파 진단 장치의 원리로부터 유추해 낼 수 없는 음향 현상은?

초음파 진단 장치는 인체 내부를 들여다보기 위해 소리를 사용한다. 일반적인 소리는 사람의 귀로 감지할 수 있지만 초음파는 진동수가 20,000Hz가 넘어서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없는 소리이다.

이 진단 장치에는 초음파를 만들어 내고 감지하기 위한 압전(壓電) 변환기라는 특수한 장치가 있다. 검사하고자 하는 인체 부위에 압전 변환기를 접촉시킬 때에는 그 부위에 젤리를 발라 준다. 이는 압전 변환기와 피부 사이에 공기층을 없애 반사로 인한 음파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압전 변환기에서 나온 초음파는 상이한 생체 조직을 각기 다른 속력으로 통과하며, 각 조직 사이의 경계 부위를 지날 때에는 부분적으로 반사된다. 반사되어 압전 변환기로 돌아오는 초음파의 세기는 통과한 조직의 밀도와 두께가 클수록 약해진다. 이렇게 각 조직이나 기관에서 다층적으로 반사된 초음파는 수신 모드로 전환된 압전 변환기에서 시간차를 두고 각기 다른 세기의 교류 전기 신호를 발생시킨다. 컴퓨터는 이 전기 신호들의 세기와 지체 시간을 분석하여 모니터 화면에 영상을 만들어 낸다.

- ① 물속과 공기 중에서 소리의 전파 속도는 다르다.
- ② 벽을 두껍게 하면 밖에서 들어오는 소음이 줄어든다.
- ③ 관의 굵기와 길이에 따라 관에서 나는 소리의 높낮이가 다르다.
- ④ 가까운 곳에서 생긴 메아리가 먼 곳에서 생긴 것보다 빨리 들린다.
- ⑤ 눈을 감고 있어도 자기 목소리를 듣고 자신의 위치가 야외인지 실내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

수

| 모의 2008 6월 29 | ★★★★★

발문에서 '유추'를 묻고 있다. 유추, 미루어 짐작하기. 이런 단어를 액면 그대로 받아 들이면 안 된다. "유추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다. 그냥 일치로 풀어라. 발문은 '지문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묻는다.

풀이

세기가 다른 두 소리는 / 하나의 소리이다.
높낮이가 다른 두 소리는 / 두 개의 소리이다.

초음파는 발생 후 반사되어 돌아올 때까지 세기는 바뀌지만, 높낮이는 바뀌지 않는다. 만약 초음파의 높낮이가 바뀌면 다른 초음파이다. 소리의 세기가 바뀐다고 다른 소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리의 높낮이가 바뀌면 다른 소리가 된다.

적용

㉓ 선택지 : 관의 굵기와 길이에 따라 / 관에서 나는 / 소리의 '높낮이'가 다르다.
세기가 바뀐다면 / 하나의 소리가 강약이 바뀌는 것이고,
높낮이가 바뀐다면 / 하나의 소리가 여러 소리가 된다는 것이다.
하나와 여럿은 다르므로 ∴ 불일치

① 선택지 : 물속과 공기 중에서 / 소리의 전파 속도는 '다르다.'
지문 : 초음파는 / 상이한 생체 조직을 / 각기 다른 속력으로 통과하며
소리는 통과하는 물질에 따라 전파 속도가 다르다. 물과 공기는 다른 종류의 물질이므로 소리가 물을 통과할 때의 속도와 공기를 통과할 때의 속도는 다르다. 초음파도 소리이다. 초음파가 물을 통과할 때의 속도와 공기를 통과할 때의 속도는 다를 것이다. ∴ 일치

② 선택지 : 벽을 '두껍게' 하면 / 밖에서 들어오는 소음이 '줄어든다.'
지문 : 초음파의 세기는 / 통과한 조직의 '두께가 클수록 약해진다.'
소음도 소리이다. 소리의 세기는 두께와 반비례하므로 ∴ 일치

④ 선택지 : 가까운 곳에서 생긴 메아리가 (먼 곳에서 생긴 것보다) 빨리 들린다.
메아리는 소리가 반사된 것이므로 지문에서 반사를 찾아 일치시킨다.

지문 : 각 조직이나 기관에서 다층적으로 반사된 초음파는 / '시간차'를 두고 / 각기 다른 세기의 교류 전기 신호를 / 발생시킨다.
'시간차'다. 어딘가에 부딪혀서 반사되는 소리가 시간차를 두고 들어온다면, 반사된 거리가 '멀거나 가깝기' 때문이다. ∴ 일치

⑤ 선택지 : 눈을 감고 있어도 / 자기 목소리를 듣고 / 자신의 위치가 아외인지 실내인지를 / 구별할 수 있다.
선택지 ④와 마찬가지로 '반사'를 말한다.
실내라면 벽과 반사되어 나오는 메아리로 실내임을 알 수 있다.
∴ 일치

음치는 왜 음치인가.

소리를 크게 내면 고음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소리를 높게 내야 고음이다.

㉓ 단수와 복수는 다르다.

크게 내는 것과 높게 내는 것은 다르다.
높게 내면 다른 음이 된다.

㉓ 다른 풀이(A의B와 A의C는 다르다)

고저, 장단, 세기라는 말을 알고 있었다면 쉽게 풀었을 것이다.

국어 문법 시간에 음운을 배운다. 음운은 음소와 운소를 합쳐서 부르는 단어다. 음소는 자음, 모음이다. 그럼 운소는? 말의 고저, 장단, 세기를 뜻한다. (음소는 언어적 표현, 운소는 반사 언어적 표현, 몸짓은 비언어적 표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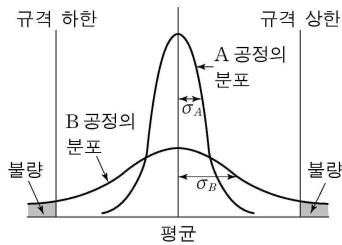
초음파도 소리이므로 초음파도 높낮이(고저), 길이(장단), 세기(강약)가 있다. 그런데 고저, 장단, 강약은 같은 말인가? 다르다. 따라서 초음파의 세기와 초음파의 높낮이는 다르다.

결론

답 ㉓

11. 다음 글의 내용으로 알 수 없는 것은?

어느 공장에서 길이가 7미터인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하자. 이때 가장 이상적인 제품의 길이는 7미터이다. 하지만 아무리 공정이 안정되고 설비가 우수하다 하더라도 생산된 모든 제품의 길이가 하나같이 7미터가 되게 하는 것은 어렵고, 7미터를 중심으로 약간씩 오차를 갖기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제품의 품질 특성값은 평균을 중심으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특성값이 평균에서 멀리 떨어진 제품일수록 생산될 가능성은 점차 줄어든다. 여기서 품질 특성값들이 그 평균에서 떨어져 흩어져 있는 정도를 산포도라고 하며, 산포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표준 편차를 이용한다. 시그마(σ)는 표준 편차를 나타내는 기호로 그 값이 작다는 것은 평균을 중심으로 품질 특성값이 덜 흩어져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곧 생산된 제품의 품질이 상대적으로 균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제품에는 나름대로의 규격이 있는데 이 규격은 일반적으로 규격 하한과 규격 상한으로 주어진다. 규격을 벗어나는 제품은 모두 불량품이 된다. 왼편의 그림처럼 두 공정 A, B에서 생산된 제품들의 품질 특성값 평균이 규격 하한과 규격 상한의 중간인 목표값에 모두 일치하였다고 가정하자. A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은 산포도가 작아서 규격을 벗어나는 것이 거의 없으나, B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은 산포도가 커서 규격을 벗어나는 불량품이 발생하고 있다. 평균에서 규격 하한 혹은 규격 상한까지의 거리를 시그마의 배수로 표현할 때, A 공정은 시그마가 작아 그 배수가 큰 반면, B공정은 시그마가 커서 A공정에 비해 그 배수는 작다. 이와 같이 평균에서 규격 하한 혹은 규격 상한까지의 거리가 시그마의 몇 배가 되느냐에 따라 불량률이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수

| 모의 2007 6월 33 | ★★★

모두 (양쪽, 복수)

여기서는 규격 하한과 상한을 뜻한다.

- ① 품질 관리의 기술은 통계적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 ② 공정의 목표값과 품질 특성값의 평균은 서로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풀이 단수와 복수는 다르다.

지문 : '이상적인' 제품의 길이는 7미터이다.
이상적인 제품 길이가 공정의 목표값이다. 공정의 목표값은 7미터이다.
7미터는 고정된 '한 점'이기에 단수이다. ∴ '공정의 목표값'은 단수이다.

지문 : 품질 특성값은 (실제 생산되는) 평균을 중심으로 / 가장 '많이' 분포
'많이'는 양적 표현이다. 품질 특성값의 양이 많다는 뜻이므로
'품질 특성값'은 복수이다. (실제로 생산되는 제품이 다르기 때문)

그러나 '품질 특성값의 평균'은 단수이다.
품질 특성값은 복수지만 품질 특성값을 평균 낸 값은 오직 하나!

적용 ㉡ 선택지 : 공정의 목표값과 품질 특성값의 평균은 / 서로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공정의 목표값은 단수이고, 품질 특성값의 평균도 단수이다.
'단수와 단수는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표현되어야 한다.
(점과 점은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선택지는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되어 있다.
'많다'는 것은 양적 표현으로 복수이므로
선택지 ㉡는 품질 특성값의 평균을 복수로 파악하고 있다. ∴ 불일치

풀이 **답㉡**

A와 A의 B는 다르다

품질 특성값	선 (복수)
품질 특성값의 평균	점 (단수)

'품질 특성값'과 '품질 특성값의 평균'은 다르다. '품질 특성값'은 복수이고, '품질 특성값의 평균'은 단수이다.

㉡ 품질 특성값이란 제품 수준이다. 품질 수준을 숫자로 표현한 값이다. 실제 생산하다보면 품질 수준은 당연 평균 주변에 많이 분포하게 된다. 지문은 이런 뜻이다.

㉡ 선택지가 '품질 특성값의 평균(단수)'이 아니라 '품질 특성값(복수)'이면, ㉡는 맞는 표현이다.

평가원 답변

질문자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실제로 현장에서 품질 특성값의 평균과 목표값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장에서는 공정을 안정시키고 동시에 두 값을 일치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또한 평균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것과 그것들의 평균이 목표값과 일치하느냐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문에서는 두 값이 서로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선택지 ㉡가 정답입니다.

품질 특성값의 평균은 단수이고, 목표값도 단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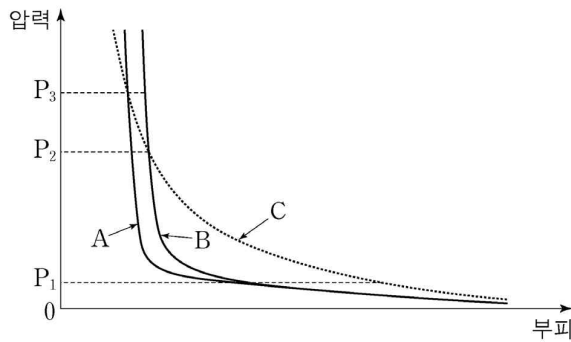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인 평가원은 학생을 평가하는 곳이지, 학생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다. 따라서 자세한 해설 없이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표현했다. 출제 의도는 수 일치이다. 평가원은 단수와 복수는 다르다는 것을 묻고 싶은 것이다.

1. 다음 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탐구할 때, 적절한 것은?

기체의 온도를 일정하게 하고 부피를 줄이면 압력은 높아진다. 이상 기체란 분자 자체의 부피와 분자 간 상호 작용이 없다고 가정한 기체이다.

하지만 실제 기체에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을 적용하면 잘 맞지 않는다. 실제 기체에는 분자 자체의 부피와 분자 간의 상호 작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분자 간의 상호 작용은 인력과 반발력에 의해 발생하는데, 일반적인 기체 상태에서 분자 간 상호 작용은 대부분 분자 간 인력에 의해 일어난다. 인력은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감소하는데, 어느 정도 이상 멀어지면 그 힘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약해진다. 하지만 분자들이 거의 맞닿을 정도가 되면 반발력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반발력이 인력을 압도하게 된다. 이러한 반발력 때문에 실제 기체의 부피는 압력을 아무리 높이더라도 이상 기체에서 기대했던 것만큼 줄지 않는다.

종류가 다른 실제 기체 A, B와 이상 기체 C 각 1몰에 대해, 같은 온도에 서의 부피와 압력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 ① 압력이 P_1 에서 0에 가까워질수록 A와 B 모두 분자 간 상호 작용이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② 압력이 P_1 과 P_2 사이일 때, A가 B에 비해 반발력보다 인력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고 볼 수 있군.
- ③ 압력이 P_2 와 P_3 사이일 때, A와 B 모두 반발력보다 인력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고 볼 수 있군.
- ④ 압력이 P_3 보다 높을 때, A가 B에 비해 인력보다 반발력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고 볼 수 있군.
- ⑤ 압력을 P_3 이상에서 계속 높이면 A, B, C 모두 부피가 0이 되겠군.

이중 잣대

| 수능 2013 31 | ★★★

<보기> 그래프를 보면 가로축 세로축이 '부피'와 '압력'이다. 통상 가로축(x축)이 독립 변수이고, 세로축(y축)이 종속 변수이므로, 그래프는 '부피 변화에 따른 압력 값'을 나타낸다. 그런데 선택지를 보면 압력이 앞에 있고, 부피가 뒤에 나온다. 따라서 <보기> 그래프는 '압력 변화에 따른 부피 값'을 나타낸다고 읽어야 한다.

선택지가 압력을 기준으로 되어 있으므로, 지문도 압력을 기준으로 조건화해 보자.

○ 이상 기체는 압력이 높으면 부피가 줄어든다.

○ 하지만 실제 기체는 분자 간의 상호 작용이 있다.

○ 분자 간의 상호 작용은 인력과 반발력에 의해 발생한다.

○ 인력으로 분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그 후 분자들이 거의 맞닿을 정도가 되면 반발력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 반발력 때문에, 실제 기체의 부피는 압력을 아무리 높이더라도, 이상 기체에서 기대했던 것만큼 부피가 줄지 않는다.

풀이 A는 B와 달리 C보다 D이다 = A는 D이다, B는 C이다.

‘달리’, ‘보다’ 같은 비교 표현이 나오면, 비교 표현을 괄호로 묶는다.
묶지 않고 남은 부분이, 문장의 중심 내용이다. ‘A는 D이다.’
묶여 있는 것도 연결한다. ‘B는 C이다.’ 이것이 부수적 내용이다.

적용 ② 풀이 공식을 선택지에 적용해 보자.

선택지 : A가 (B에 비해) (반발력보다) 인력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A는 인력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B는 반발력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보기>를 보자.

압력이 P_1 과 P_2 사이일 때, A의 부피가 B의 부피보다 작다.

A의 부피가 작다는 것은 A는 인력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는 것이고,
B의 부피가 크다는 것은 B는 반발력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A는 인력, B는 반발력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 일치

① 압력이 P_1 에서 0에 가까워질수록 A, B의 부피가 커진다.

부피가 커진다는 것은 인력과 반발력 중 무슨 힘이 작동하는 것일까?

둘 다 거의 작용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지문 : ‘분자들이 거의 맞닿을 정도가 되면’ / 반발력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반발력이 인력을 압도하게 된다.

반발력은 인력이 증가한 ‘후’에 증가한다. 반발력이 증가하려면 ‘먼저’ 인력이 증가해야 한다. 인력과 반발력은 ‘선후’ 관계이다.

지문 : 인력은 /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감소하는데, ‘어느 정도 이상 멀어지면’ 그 힘은 /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약해진다.

압력이 P_1 에서 0에 가까워질수록 인력은 증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압력이 P_1 에서 0에 가까워질수록 반발력도 증가하지 않는다.

선택지 ①은 인력과 반발력 둘 다 증가한다고 하므로 ∴ 불일치

③ P_2 와 P_3 사이일 때, C를 기준으로, A는 C보다 인력의 영향이 더

크게 받고, B는 C보다 반발력의 영향이 더 받는다. ∴ 불일치

결론 답②

‘세운이는 예지보다 예쁘다’에서 ‘예지’가 ‘세운’이의 외모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세운이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 (다른 아이들을 기준으로 보면) 못 생겼지만, 예지보다는 (예지를 기준으로 보면) 예쁘다.

‘A는 B와 달리 C보다 D이다’에서 A를 판단하는 기준은 B이고, D를 판단하는 기준은 C이다. ‘달리’와 ‘보다’에 붙은 말이 비교 기준이다.

⑥ 비교 기준 생략 (이상 기체보다)

선택지 ③에서 비교 표현을 찾아보자. ‘반발력보다’에서 ‘보다’이다. ‘반발력보다’는 ‘인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그럼 A와 B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선택지 ③에서는 이것이 빠져 있다. ‘A와 B 모두’ 뒤에 ‘C보다’를 넣어보자.

지문은 ‘이상 기체와는 다른’ ‘실제 기체’를 말한다. 실제 기체를 설명하는 기준은 ‘이상 기체’이다. 따라서 실제 기체 안에 있는 인력과 반발력을 설명하는 기준도, ‘이상 기체’이다. 그래서 ‘C보다’를 넣어 설명했다.

②④ 바뀐 비교 기준 (B에 비해)

선택지 ②에서 비교 표현을 찾아보자. ‘B에 비해’와 ‘반발력보다’가 있다. ‘반발력보다’는 인력을 판단하는 기준이고, ‘B에 비해’는 A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함정은 C이다. 압력이 P_1 과 P_2 사이일 때, C에 비해 A와 B는 모두 부피가 작다. 부피가 작다는 것은 반발력보다 인력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는 말이다. 따라서 P_1 과 P_2 사이일 때, A와 B는 C에 비해 반발력보다 인력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

그러나 선택지 ②에 ‘C에 비해’라는 말이 없고 대신 ‘B에 비해’가 있다. 따라서 B를 기준으로 A를 평가해야 한다. B를 기준으로 A를 평가하면, A는 (B 보다) (반발력 보다) 인력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 일치

④에서 비교 기준은 B이다. A를 판단하는 기준이 B이고 A는 B보다 부피가 작으므로, A는 B에 비해 인력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고 해야 한다. ∴ 불일치

평가원 답변

그래프의 P_2 - P_3 구간에서 (이상 기체보다) A는 부피가 작고 B는 부피가 크므로, A는 (반발력보다) 인력이 더 크고 B는 (인력보다) 반발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③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 <보기>를 이용하여 자격루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1434년 7월 1일, 조선 왕조는 자격루(自擊漏)라고 불리는 자동 물시계를 국가의 새로운 표준 시계로 채택했다. 자격루는 시각을 측정하는 물시계, 물시계에서 측정된 시간을 소리로 바꿔 주는 시보 장치, 물시계와 시보 장치를 연결해 주는 방목 등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보 장치의 상단에 설치된 3개의 시보 인형은 시(時), 경(更), 점(點)마다 각각 종, 북, 징을 쳐서 시간을 알린다. 시보 인형 가운데 하나는 시를 알려 준다. 매 시각마다 인형의 팔뚝과 연결된 제어 장치가 작동하여 인형의 팔뚝을 움직이고 그 움직임이 종을 울리게 한다. 시를 담당한 인형이 종을 울리면 곧이어 시보 장치 하단에서 12지신 가운데 그 시에 해당하는 동물 인형이 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나온다. 예를 들어 자시(子時)에는 쥐 인형이 '자(子)'라는 글자가 적힌 팻말을 들고 나와 지금 울린 종소리가 자시라고 알려 준다. 이러한 일련의 동작은 시보 장치 안에 있는 복잡하면서도 정교한 기계에 의해 자동으로 진행된다. 경과 점을 알려 주는 다른 2개의 인형은 경점법이라는 우리의 고유한 시간 표시 방법에 따라 작동하면서 시간을 더 자세하게 알려 준다.

○ 경점법이란 해가 진 뒤부터 다음 날 해가 뜨기 전까지의 하룻밤을 5등분하여 5경으로 나누고, 1경은 다시 5등분하여 5점으로 나누는 방법이다.

○ 해가 뜨고 지는 시각은 매일 조금씩 변하므로 경과 점의 길이 역시 조금씩 달라진다.

- ① 경과 점을 알리는 시보 인형은 밤에만 작동한다.
- ② 12지신의 동물 인형은 항상 같은 간격으로 나타난다.
- ③ 밤낮의 길이 변화에 따라 눈금이 다르게 새겨진 잣대를 사용한다.
- ④ 북소리와 징소리가 울리는 시간 간격은 계절에 따라 달라진다.
- ⑤ 시보 인형 3개의 역할은 각각 오늘날 시계의 시침, 분침, 초침에 해당한다.

이중 잣대

| 모의 2005 6월 46 | ★★★★★★

정답률 약 10% 문제다. 왜 이렇게 많이 틀렸을까? 수능 출제 원리에 정확히 부합하는 문제임에도, 학생들은 수능에 뭐가 출제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지금도 대다수의 학생은 수능의 본질을 모른다. 평가원 코드를 모르기 때문이다. '기준' 문제는 항상 최고난도 문제로 나온다.

- 시(時)는 측정 기준이다.

풀이 <보기>를 측정 기준 · 측정 대상이라는 말로 정리하자.

- 측정 대상은 하룻밤이다.
- 측정 기준은 경점이다.
- 그런데 측정 대상인 하룻밤이 바뀐다.
- 그러므로 측정 기준인 경점도 바뀐다.

'~을'이 붙으면 측정 대상이다.
'하룻밤'은 측정 대상이다.
'~으로'가 붙으면 측정 기준이다.
'5경, 5점'은 측정 기준이다.

측정 대상이 변하더라도, 측정 기준이 변하는 건 아니다.
기준이라는 건 늘 고정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상이 변함에 따라 경점법이라는 기준도 변한다고 한다.

반면 시(時) 경(更) 점(點)에서, 시(時)는 / 우리의 고유한 시간 표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중, 북, 징을 치는 3개의 시보 인형들은 / 두 개의 기준으로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다.

적용 ⑤ 선택지 : 시보 인형 3개의 역할은 / 각각 오늘날 시계의 시침, 분침, 초침에 해당한다.

오늘날 시계의 시침, 분침, 초침은 하나의 측정 기준으로 움직이고, 따라서 측정 간격 또한 고정되어 있다.

그러나 시(時)는 일 년 내내 고정된 간격(기준)인 반면, 경점의 시간 간격은 일 년 내내 변하는 간격(기준)이다. ∴ 보기와 불일치

① 경점은 하룻밤만을 측정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보 인형도 밤에 만 작동한다. 맞다. ∴ 보기와 일치

② 측정 간격은 늘 일정하므로, 당연 매 시(時)를 나타내는 12지신의 동물 인형은 항상 같은 간격으로 나타난다. 맞다. ∴ 지문과 일치

③ 통상의 경우 측정 간격은 늘 일정해야 한다. 그러나 경점법에서는 측정 대상(하룻밤)의 길이에 따라 측정 기준이 바뀌므로, 측정 기준의 간격인 눈금은 달라진다. 눈금이 달라지면, 눈금이 다르게 새겨진 잣대를 사용해야 한다. ∴ 보기와 일치

④ 하룻밤의 길이는 계절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계절에 따라 측정 간격(양)도 달라지므로 ∴ 보기와 일치

② 양과 비중은 다르다

측정 기준이 바뀌면, 측정 기준 안에 있는 측정 간격(양) 또한 바뀐다. 그러나 측정 간격들 간의 비중은 불변이다. 측정 기준이 고정 값이나, 불변 값이나에 상관없이 비중은 불변이다.

결론 **답⑤**

3. 사이블러가 사용한 1번 소리굽쇠가 200Hz의 고유 진동수를 갖다고 할 때, 실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소리굽쇠는 작은 망치로 때리면 일정한 진동수의 음을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소리굽쇠는 작을수록 높은 음을 낸다. 처음에 사람들은 소리굽쇠가 건반 악기의 어떤 음을 낸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초당 몇 회의 진동을 하는지는 알지 못했다. 소리굽쇠가 정확하게 얼마의 진동수를 갖는지를 알아내는 것은 정확한 측정 장치가 없는 당시로서는 어려운 문제처럼 보였다. 이 문제는 사이블러에 의해 해결되었다.

사이블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맥놀이 진동수를 세는 방법을 사용했다. 맥놀이란 진동수가 다른 두 개의 소리가 간섭을 일으켜 소리가 주기적으로 세어졌다 약해졌다 하는 현상이다. 맥놀이의 진동수는 두 음의 진동수의 차에 해당한다. 맥놀이 진동수는 초당 4회, 즉 $4Hz$ (헤르츠) 정도일 때 귀로 들으면서 측정하기에 적당하다.

그는 A음과 같은 음을 내도록 만든 1번 소리굽쇠와 그것보다 약간 크게 만든 2번 소리굽쇠 사이의 맥놀이 진동수가 $4Hz$ 가 되게 하였다. 이것은 1번 소리굽쇠의 고유 진동수가 2번 소리굽쇠의 고유 진동수보다 $4Hz$ 만큼 큼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좀 더 큰 3번 소리굽쇠를 만들어서 2번 소리굽쇠와 함께 울렸을 때 역시 초당 4회의 맥놀이가 일어나도록 조절하였다. 이렇게 해서 3번 소리굽쇠는 1번 소리굽쇠에 비하여 $8Hz$ 만큼 낮은 진동수의 음을 내게 되었다. 사이블러는 이런 방법으로 계속 새로운 소리굽쇠를 만들었다. 그랬더니 56번 소리굽쇠가 1번 소리굽쇠보다 정확하게 한 옥타브 낮은 음을 내었다. 사이블러는 56번 소리굽쇠가 1번 소리굽쇠에 비하여 $4Hz \times 55$, 즉 $220Hz$ 만큼 낮은 진동음을 낸다는 것을 계산할 수 있었다.

한 옥타브만큼 차이 나는 두 음 중 높은 음의 진동수는 낮은 음의 진동수의 두 배가 된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었으므로, 이로부터 사이블러는 소리굽쇠의 고유 진동수를 계산해낼 수 있었다. 1번 소리굽쇠의 고유 진동수는 56번 소리굽쇠의 고유 진동수의 두 배이고 그 차이는 $220Hz$ 이므로, 1번 소리굽쇠의 고유 진동수는 $440Hz$, 56번 소리굽쇠의 고유 진동수는 $220Hz$ 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 ㄱ. 1번 소리굽쇠보다 한 옥타브 낮은 음을 내는 소리굽쇠는 $100Hz$ 의 고유 진동수를 가질 것이다.
- ㄴ. 처음과 마지막 소리굽쇠의 고유 진동수의 차이는 $220Hz$ 일 것이다.
- ㄷ. 이 실험에서 사용해야 하는 소리굽쇠의 개수는 50개일 것이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⑤ ㄴ, ㄷ

측정값으로 기준값 구하기

| 모의 2007 6월 58 | ★★★★★

아는 사실	소리굽쇠는 작을수록 높은 음을 낸다.
	소리굽쇠가 건반 악기의 어떤 음을 낸다.
	맥놀이 진동수는 두 음의 진동수의 차에 해당한다.
과제	한 옥타브만큼 차이 나는 두 음 중 높은 음의 진동수는 낮은 음의 진동수의 두 배가 된다.
	소리굽쇠가 정확하게 얼마의 진동수를 갖는가?

항상 측정하는 기준이 측정 받는 대상보다 먼저 있어야 한다. 요리 강의를 듣다가 “소금을 한 손가락 넣으세요”를 듣고 자기 먹던 손가락만큼의 소금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나? 측정을 하려면 기준이 먼저 정해져 있어야 한다. 그래야 기준을 통해 대상을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문은 측정값을 먼저 구하고 그 값으로 기준 값을 구하는 내용이다. 즉, ‘진동수의 차이를 측정한 값으로, ‘고유 진동수’를 구한다. 측정값 하나로 기준 값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측정값의 차이로 기준 값을 구한다.

어떻게 가능할까? 지문은 이미 알려져 있었다고 말한다. 따라서 지문 내용 중 “한 옥타브만큼 차이 나는 두 음 중 높은 음의 진동수는 낮은 음의 진동수의 두 배가 된다”는 말은 “한 옥타브만큼 차이 나는 두 음 중 높은 음의 (고유) 진동수는 낮은 음의 (고유) 진동수의 두 배가 된다”로 이어야 한다.

또 fake가 있는데, 비례 반비례이다.

소리굽쇠	크기 클수록 낮은 음
소리굽쇠	번호 클수록 낮은 음
진동수	수치 클수록 높은 음

풀이 지문은 “1번 소리굽쇠의 고유 진동수는 $440Hz$ ”라고 말한다. 그런데 발문은 “1번 소리굽쇠가 $200Hz$ 의 고유 진동수를 갖는다고 할 때”이다. 뭐지? 측정 기준을 바꾼다는 뜻이다.

발문은 새로운 실험 상황에 사이블리의 방법을 적용해 보라는 거다.

		진동수	진동수	
높은 음	1번	$440Hz$	$200Hz$	1번
낮은 음	56번	$220Hz$?	?

적용 ㄱ. 1번 소리굽쇠보다 / 한 옥타브 낮은 음을 내는 소리굽쇠는 / $100Hz$ 의 고유 진동수를 가질 것이다.

지문에서 1번 소리굽쇠보다 한 옥타브 낮은 음을 내는 56번 소리굽쇠는 1번 소리굽쇠의 고유 진동수의 절반이다. 따라서 문제처럼, 1번 소리굽쇠의 진동수의 절반인 $100Hz$ 가, 1번 소리굽쇠보다 한 옥타브 낮은 음을 내는 소리굽쇠의 고유 진동수일 것이다. ∴ 일치

ㄴ. 처음과 마지막 소리굽쇠의 / 고유 진동수의 차이는 / $220 Hz$ 일 것이다.

ㄱ을 해결했다면 ㄴ은 저절로 해결된다. 지문에서 처음과 마지막 소리굽쇠 둘의 고유 진동수 차이는 처음 소리굽쇠의 고유 진동수의 절반이다. 즉 $100Hz$ 이다. $220Hz$ 라고 하므로 ∴ 불일치

ㄷ. 실험에서 사용해야 하는 소리굽쇠의 개수는 / 50개일 것이다.

ㄴ을 해결했다더라도 ㄷ은 주의해야 한다. 기준점에도 소리굽쇠가 있어야 때문이다.

지문에서 “56번 소리굽쇠가 / 1번 소리굽쇠에 비하여 / $4Hz \times 55$, 즉 $220Hz$ 만큼 낮은 진동음을 낸다”는 말을 보자. 4에 55를 곱했다. 소리굽쇠 번호는 56번인데 왜 개수는 55인가? 1번은 $440Hz$ 의 진동수를 가진 소리굽쇠이고, 숫자를 세는 기준(0)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1번 소리굽쇠는 소리굽쇠 순서로 0번이다. 0번부터 55번까지가 진동수의 차이를 보여주는 소리굽쇠이다. 그래서 기준점(0)에 해당하는 소리굽쇠 1개와 55개를 더해서 56개가 된 것이다.

문제의 실험은 지문과 동일한 실험이므로, 두 진동수 사이 $100Hz$ 에 해당하는 25개의 소리굽쇠와 기준이 된 $200Hz$ 의 소리굽쇠 한 개가 필요하다. 즉 $1+25$ 인 26개가 필요하다. 50개라 하므로 ∴ 불일치

모든 척도의 기준점은 '0'이다

다른 말이 없다면 척도는 0에서 출발한다. 출발 기준점 '0'의 자리에 소리굽쇠가 하나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 25개의 소리굽쇠가 있다. 따라서 $1+25=26$ 이다.

간격과 개수는 다르다

종이에 연필로 2줄을 그으면 공간은 몇 개가 나오나? 하나가 나온다. 3줄은 그으면 사이 공간은 둘이 나온다.

결론 **답①**

6.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전하고 있다. 지구의 자전 때문에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방향이 편향된다. 지구의 둘레는 적도가 가장 길고 위도가 높아 질수록 짧아진다. 자전 주기는 위도와 상관없이 동일하므로 자전하는 속력은 적도에서 가장 빠르고, 고위도로 갈수록 속력이 느려져서 남극과 북극에서는 0이 된다.

적도 상에서 북위 30도 지점을 목표로 어떤 물체를 발사한다고 하자. 발사 지점은 약 $1,600\text{km/h}$ 의 속력으로 자전하고 있다. 발사된 물체는 발사 속력 외에 약 $1,600\text{km/h}$ 로 동쪽으로 진행하는 속력을 동시에 갖게 된다. 북위 30도 지점은 약 $1,400\text{km/h}$ 의 속력으로 자전하고 있다. 목표 지점은 발사 지점보다 약 200km/h 가 더 느리게 동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발사된 물체는 겨냥했던 목표 지점보다 더 동쪽에 있는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 발사 지점에서 보면, 발사된 물체의 이동 경로는 처음에 목표로 했던 북쪽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어져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편향 현상은 북쪽뿐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운동하는 모든 물체에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지표상에 정지해 있는 물체에는 전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전향력은 운동하는 물체의 진행 방향이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편향되게 한다.

- ① 북위 30도 지점과 북위 60도 지점의 자전 주기는 동일하다.
- ② 운동장에 정지해 있는 축구공에는 위도에 상관없이 전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③ 남위 50도 지점은 남위 40도 지점보다 자전 방향으로 움직이는 속력이 더 빠르다.
- ④ 남위 30도에서 정남쪽의 목표 지점으로 발사한 물체는 목표 지점보다 동쪽에 떨어진다.
- ⑤ 우리나라의 야구장에서 타자가 쳐서 날아가는 공의 이동 방향은 전향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숨은 비교 기준

| 수능 2014 B형 26 | ★★★

A는 B보다 C하다. (비교)

A는 B보다 C하다. (비교)

풀이 지문의 핵심은 물체의 운동 방향이 지구의 자전 방향으로 편향된다는 것이다. 물체의 편향 방향은 북반구에서든 남반구에서든 어디서나 지구 자전 방향이다. 왜? 편향은 지구 자전 운동 때문에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출제자는 이러한 과학 법칙을 지문에 직접 써 주지 않는다. 주어진 사실로부터 법칙을 발견하라고 한다.

출제자는 헛갈리게 하려고 편향되는 방향이 북반구 남반구가 다르다고 써 놓았다. **물체가 진행하는 방향에서 보면** (날아가는 물체를 기준으로 보면) 북반구 남반구가 다르다. 그러나 **사람 기준에서 보면** (인공위성에서 내려다보면) 모든 물체는 지구 자전 방향으로 휜다. 즉, 비교 기준이 사람인가, 물체인가에 따라 표현만 다를 뿐이다.

적용 ④ ④가 헛갈린다는 학생들이 많다. 북반구에서 '동쪽'이니까 남반구는 '서쪽'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과학 지문은 세부 사실보다는 법칙을 이해했느냐를 묻는데, 이러한 출제 원리를 몰랐나 보다.

출제 의도는 비교 기준이다. **운동하는 물체 기준으로 보면** 물체의 진행 방향이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편향된다. 그러나 ④의 비교 기준은 **사람이 '목표한 지점'**이다. 남반구에 있는 사람도 북극 방향이 북쪽이다. (고로 남반구에서건 북반구에서건) 물체는 사람이 목표한 목표 지점보다 동쪽에 떨어진다. ∴ 일치

③ 선택지 : 남위 50도 지점은 / (남위 40도 지점보다) 자전 방향으로 움직이는 속력이 더 '빠르다.'
'자전 방향으로 움직이는 속력'은 '자전 속력'이다.

지문 : 자전하는 속력은 / 적도에서 가장 빠르고 / 고위도로 갈수록 속력이 느려져서 / 남극과 북극에서는 0이 된다.
자전 속력은 고위도로 갈수록 느려진다. 남위 40도 보다 (남위 40도 지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남위 50도는 고위도이므로 자전 속력이 더 느리다. 그리고 남반구와 북반구의 차이는 '편향 방향' 뿐이므로 ∴ 불일치

① 지문 : 자전 주기는 / (위도와 상관없이) 동일하므로 ∴ 일치

② 지문 : 지표상에 정지해 있는 물체에는 / 전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 일치

⑤ 지문 : 편향 현상은 / 북쪽뿐 아니라 / 다른 방향으로 운동하는 모든 물체에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 일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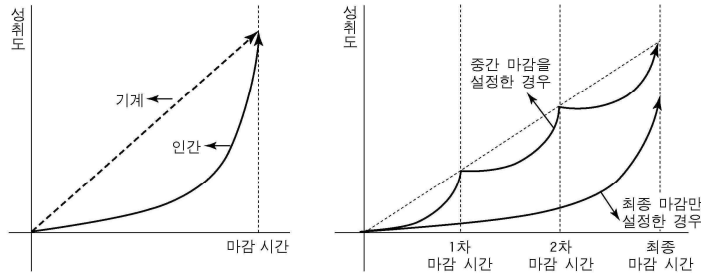
결론 **답 ③**

지문을 내용 단락으로 나눠 보자.

편향 원인	지구 자전
편향 방향	(사람 기준으로 볼 때) 항상 지구 자전 방향으로 휜다. (운동하는 물체 기준으로 볼 때) 북반구 오른쪽, 남반구 왼쪽으로
편향 정도	고위도로 갈수록 더 휜다. 물체 속력이 빠르면 더 휜다.
fake	남반구

④ 비교에서는 비교의 기준을 잘 봐야 한다. 'B보다'는 'B를 기준으로 봤을 때'의 뜻이다. '보다'에 앞에 붙은 말이 기준이기 때문이다.

19. 다음 그래프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공부'에 관한 글을 쓰려고 한다.
이끌어 낼 수 있는 논지를 <보기>에서 찾아 바르게 묶은 것은?



- ㄱ. 꾸준히 노력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공부 방법은 없다.
- ㄴ. 중간에 가끔씩 쉬면서 공부하는 것이 성적 향상에 효과적이다.
- ㄷ.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느 시기에 있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다르다.
- ㄹ. 성적 향상을 위해서는 일별, 주별 공부량을 정해서 공부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그래프의 기준

| 모의 2007 6월 7 | ★★★★★

그래프가 왼쪽 오른쪽 두 개고, 각 그래프 안에 두 개의 그래프가 또 있다. 수능에서는 뭐든 두 개가 나오면 무조건 비교하려고 해야 한다. 둘은 무조건 비교!

왼쪽 그래프를 보자. x축이 기준, y축이 변화이다. 마감 시간에 따른 성취도의 변화로 읽을 수 있다. 기계와 인간을 비교해보자. 비교는 닮은 점, 다른 점이다. 기계와 인간은 최종적으로는 같은 성취도이다. 다른 점은 그 과정인데, 기계는 시간에 따른 성취도의 변화가 일정한 반면, 인간은 마감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성취도가 급격히 증가한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자. 무엇을 비교해야 할까? '중간 마감'과 '최종 마감'이다. 중간 마감을 설정한 경우와 최종 마감만 설정한 경우를 비교해보자. 두 그래프는 마감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성취도가 급격히 증가한다. 그리고 중간 마감을 설정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최종적인 성취도가 높다.

결론 : 왼쪽 그래프와 오른쪽 그래프 비교. 왼쪽 그래프와 오른쪽 그래프는 인간은 마감 시간이 다가올수록 성취도가 급격히 증가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왼쪽은 단지 그렇다는 사실만 보여주는 반면 오른쪽은 이러한 특징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풀이 그래프 해석 기준은 가로축 세로축이다.
가로축 세로축이라는 해석 기준을 벗어난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다.

ㄷ. 보기 :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느 시기에 있느냐에 따라 / 그 효과는 다르다.
'~에 따라'는 기준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ㄷ)은 '시기'라고 한다.
그래프의 x축이 기준, y축이 변화량이고,
주어진 그래프는 마감 시간에 따른 성취도의 변화이다.
그래프의 기준도 '마감 시간'이므로 ∴ 일치

ㄹ. 보기 : 성적 향상을 위해서는 '일별, 주별' '공부량을 정해서 / 공부해야 한다.'
'일별, 주별 공부량을 정'한다는 말은 중간 마감 시간을 정한다는 뜻
으로, ㄹ은 오른쪽 그래프를 이용한 효과적인 공부법이다. ∴ 일치

ㄱ. 보기 : '꾸준히' '노력'하는 것'보다' / 효과적인 공부 방법은 없다.
'보다'는 비교 표현이고, '~보다' 자리에 비교 기준이 온다.
비교 기준은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어진 그래프의 가로축 세로축은 '시간', '성취도'의 관계를
말할 뿐 '꾸준한 노력'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으므로,
ㄱ은 그래프에서 나올 수 없는 해석이다. ∴ 불일치

ㄴ. 보기 : '중간에 가끔씩 쉬면서' 공부하는 것이 / 성적 향상에 효과적이다.
'중간에 가끔씩'은 fake!
'쉬다'는 '시간', '성취도'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
나올 수 없는 해석은 불일치이다. ∴ 불일치

ㄷ '어느 시기'란 마감 시간에 압박한 시
기이나 아니냐이다.

ㄱ 그래프 해석의 기준은 가로축과 세로
축이다. 따라서 그래프를 해석할 때는 가
로축과 세로축을 가지고 해야 한다. 그래
프는 가로축 세로축 안에 있기 때문이다.
가로축은 '시간'이고, 세로축은 '성취도'이
다. 그래프를 해석한 결과도 '시간'과 '성취
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 <보기> 가운데,
그래프 해석의 기준인 '가로축, 세로축'이
아닌 단어가 있다. 이것이 fake!

결론 **답⑥**

평가원 답변

왼쪽 그래프는 마감 시간까지 기계와 인간의 작업 유형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는 그래프입니다. 기계와 달리 인간은 마감 시간이 다가올수록 성취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기계와 인간의 대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중간 마감을 설정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대비적인 상황으로 설정하여 성취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래프 분석을 '효과적인 공부'와 관련시켰을 때 이끌어 낼 수 있는 논지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의 'ㄷ'과 'ㄹ'입니다.

중간 마감을 휴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공부하는 과정에서 가끔씩 휴식을 취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겠지만, 제시된 두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1. ㉠에 대한 반론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반사회적 사회성이란 한편으로는 사회를 분열시키려고 끊임없이 위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를 이루어 살려는 인간의 성향을 말한다. 이러한 성향은 분명 인간의 본성이다. ㉠ 인간에게 이러한 반사회성이 없다면, 인간의 모든 재능은 꽃피지 못하고 만족감과 사랑으로 가득 찬 목가적인 삶 속에서 영원히 묻혀 버리고 말 것이다. 그리고 양처럼 선량한 기질의 사람들은 가축 이상의 가치를 자신의 삶에 부여하기 힘들 것이다. 자연 상태에 머물지 않고 스스로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자연적 소질을 계발하여 창조의 공백을 메울 때, 인간의 가치는 상승되기 때문이다.

- 칸트, 「세계 시민의 관점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 -

- ① 인간의 본성은 변할 수 없다.
- ② 동물도 사회성을 키울 수 있다.
- ③ 사회성만으로도 재능이 계발될 수 있다.
- ④ 반사회성만으로는 재능이 계발될 수 없다.
- ⑤ 목가적인 삶 속에서도 반사회성이 생겨날 수 있다.

반례

| 수능 2004 51 | ★★★★★★★

국어 문장을 P→Q 형태의 조건문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풀이 선택지가 단순하다. ㉠도 선택지처럼 단순하게 바꿔보자.
 ㉠ : 반사회성이 없다 / 재능 계발은 없다.
 ㉡을 조건문으로 바꿔보자.
 ㉡은 '~없다 ~없다' 형태이므로, 'Q 없다 P 없다'이다.
 반사회성이 'Q', 재능 계발이 'P'이다.
 ∴ ㉡을 조건문으로 바꾸면 '재능 계발 있다 / 반사회성 있다'이다.

P→Q의 반례는 'P 그리고 ~Q'이므로,
 반례는 '재능 계발이 있다 / 반사회성 없다'이다.
 또는 '재능 계발 있다 / 사회성 있다'이다.

반례와 일치하는 선택지가 답!

적용 ③ 선택지 ③에 '만으로도'가 있다. ③을 조건문으로 바꿔보자.
 '만으로도'는 '오직 ~만'의 뜻인가? 그렇다. ('도'를 넣어도 빼도 같다)
 ③은 '오직 사회성만으로 재능 계발될 수 있다'이다.
 '오직 Q만 P이다.' 형태이므로, 'P→Q' 형태로 바꾸면
 ③은 '재능 계발 있다 - 사회성 있다'이다.

㉠의 반례는 '재능 계발 있다 / 사회성 있다'이고,
 선택지 ③은 '재능 계발 있다 / 사회성 있다.'이다.
 선택지 ③은 반례와 일치한다.

④ 선택지 ④에 '~만으로는'이 있다. ④를 조건문으로 바꿔보자.
 '만으로는'은 '오직 ~만'의 뜻인가? 아니다.
 '~'외에 뭔가 더 있어야 한다는 뜻이니까, '오직 ~만'과 다르다.

선택지 ④는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다.
 '반사회성만으로는 안 되고, +α가 있어야 재능이 계발될 수 있다.'
 그런데 +α가 필요한 건 해도 결국 반사회성이 있다는 거니까,
 ④는 '반사회성 있다면 재능 계발 있다'이다.

㉠은 '재능 계발 있다 / 반사회성 있다 (P→Q)'
 ④는 '반사회성 있다 / 재능 계발 있다 (Q→P)'
 ∴ ④는 지문의 '역'일 뿐, 반례와 일치하지 않는다.

결론 **답 ③**

부정 표현

부정 표현은 not/no이다. not은 부사고 no는 형용사다. '~'으로 표현한다. no는 명사를 부정할 때 쓴다. 예) 반사회성, 비시장적 요소 등. not은 서술어를 부정할 때 쓴다. 예) 안 된다. 할 수 없다 등. 부정 표현이 여러 개일 때는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다. ~(~P)=P이고, ~(~(~P))=~P이다.

④ 만으로도-만으로는

A : 나는 배고플 때, 라면이면 된다.
 오직 라면만 있으면 돼.
 B : 나는 라면만으로는 안 돼.
 치킨과 피자도 먹어야겠어.
 '만으로도'는 '오직 ~만 있으면'의 뜻이다.
 그러나 '만으로는'는 '안 된다'처럼 뒤에 부정어가 나온다. '만으로도'와 '만으로는' 다르다.

11. <보기>의 (가)로부터 (나)를 이끌어 내려 할 때, ㉓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 좋은 씨앗을 심는 것은 좋은 열매가 열리는 원인이다.
- 영희네는 좋은 씨앗을 심어 좋은 열매를 수확했다.
- 철수네는 좋은 씨앗을 심었으나 물을 제때 주지 않아 좋은 열매가 열리지 않았다.
- 우리 집은 좋은 씨앗을 심었으나 병충해로 좋은 열매가 열리지 않았다.
- _____ ㉓ _____

(나)

- 그러므로 좋은 씨앗을 심는 것과 좋은 열매가 열리는 것 사이의 필연적인 인과는 여전히 훼손되지 않는다.

- ① 좋은 씨앗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
- ② 우리 집과 철수네가 좋은 열매를 얻지 못한 것은 필연적인 결과이다.
- ③ 좋은 씨앗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
- ④ 다른 모든 요인에도 불구하고 좋은 씨앗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필수적인 요인이다.
- ⑤ 병충해 방제와 적절한 물 공급은 좋은 열매를 맺는 데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이다.



풀이 생략된 전제는 (반례가 생기지 않도록) 논증을 보강해 주는 전제이다. 반례는 전제에 대한 반박이고 이 반박에 대한 반박이 생략된 전제이다.

<보기>가 하나의 논증이고, 논증은 전제와 결론으로 되어 있다고 했다. <보기>를 전제와 결론을 나눠보자.
 (나)에 ‘그러므로’가 있다. (나)가 결론이다. 전제는 (가)에 있다.
 (가)와 (나)가 일치하려면 ㉓가 어떠해야 할까?

전제	좋은 씨앗을 심는 것은 / 좋은 열매가 열리는 원인이다.
사례	영희네는 좋은 씨앗을 심어 / 좋은 열매를 수확했다.
반례	철수네는 좋은 씨앗을 심었으나 (물을 제때 주지 않아) / 좋은 열매가 열리지 않았다. 우리 집은 좋은 씨앗을 심었으나 (병충해로) / 좋은 열매가 열리지 않았다.
생략전제	㉓
결론	그러므로 좋은 씨앗을 심는 것과 좋은 열매가 열리는 것 사이의 필연적인 인과는, 여전히 훼손되지 않는다.

생략된 전제

| 수능 2009 42 | ★★★★★

발문의 ‘이끌어 낸다’가 있다. ‘(가)와 (나)가 일치한다.’ 이렇게 읽으면 된다. ∴ ㉓는 (가)와 (나)가 일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무엇인지 찾는 문제이다.

‘생략된 전제’는 논리 용어다. 어떤 학생은 국어 시험에 왜 논리학이냐? 반문할지 모르나, 수능에 출제되는 논리는 아주 간단한 것들뿐이다. 학생들이 많이 틀린 이유는 논리 해석을 하지 않고, 어문 해석을 하기 때문이다.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한 어문 해석으로 풀면 ㉓도 답이 된다.

전제 : A
 반례 : ~A
 생략된 전제 : ~(~A)

‘좋은 씨앗을 심는 것은 / 좋은 열매가 열리는 원인이다.’가 전제이다.
 이 문장 안에 두 개의 서술어가 있다. 쪼개보자
‘좋은 씨앗을 심었다 / 좋은 열매가 열린다(P→Q)’이다.

철수와 우리 집은 ‘좋은 씨앗을 심었다 / 좋은 열매가 안 열렸다’
 이므로 전제에 대한 반례 ‘P∧~Q’이다.

반례는 전제를 무력화하는 것이고, 생략된 전제는 반례를 다시 무력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략된 전제의 표현 형태는 ‘P→Q’이다.
‘좋은 씨앗을 심었다 / 좋은 열매가 안 열릴 수 없다’이다.
 이것이 생략된 전제이다.

반례 P∧~Q를 부정하면, ~P∨Q이다. ~P∨Q는 P→Q이므로, P→Q의 부정이 반례이고, 반례를 다시 부정하는 생략된 전제는 다시 P→Q이다.

적용

④ 선택지 : 다른 모든 요인에도 불구하고 / 좋은 씨앗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필수적인 요인이다.
 전제 좋은 씨앗을 심으면 / 좋은 열매가 열린다.
 생략전제 좋은 씨앗을 심으면 / 좋은 열매가 안 열릴 수 없다.
 선택지 ④는 생략된 전제와 일치한다. ∴ 일치

⑤ 선택지 : 병충해 방제와 적절한 물 공급은 / 좋은 열매를 맺는 데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이다.
 전제 좋은 씨앗을 심으면 / 좋은 열매가 열린다.
 생략전제 좋은 씨앗을 심으면 / 좋은 열매가 안 열릴 수 없다.
 ‘병충해 방제와 적절한 물 공급’은 ‘좋은 씨앗’이 아니므로
 선택지 ⑤는 생략된 전제와 일치하지 않는다. ∴ 불일치

⑥ 생략된 전제도 전제 안에 있어야 한다
 선택지 ⑤는 ‘병충해와 물’ 얘기를 할 뿐 ‘좋은 씨앗’ 얘기를 안 한다. 전제는 ‘좋은 씨앗, 좋은 열매’이므로 사례든, 반례든, 생략된 전제든, 결론이든 ‘좋은 씨앗, 좋은 열매’ 얘기를 해야 한다. (그래서 <보기> 모든 문장에 ‘좋은 씨앗’과 ‘좋은 열매’가 있는 것이다) ⑤는 ‘좋은 씨앗’ 얘기가 없으므로 생략된 전제가 될 수 없다. 연역 추리에서 전제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결론

답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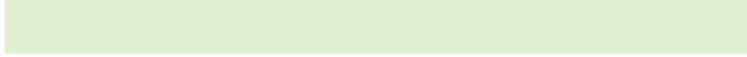
생략된 전제는 전제를 부정할 수 없다
 나아가 ⑤가 참이라면 전제가 부정되고 만다. 전제는 ‘좋은 씨앗이 좋은 열매를 맺는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⑤는 (말이 되는 것 같지만, 논리적으로는) 틀린 문장이다.

숨은 전제
 숨은 전제들이란 글을 쓰거나 말하는 이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을 담고 있다. 따라서 말이나 글에서 숨은 전제를 찾아내서 검사함으로써 우리는 글쓴이가 논증의 주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또 더 나아가서 (좀 거창하게 말하면) 세계와 인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들을 알아낼 수가 있다.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잔소리를 늘어놓자면 숨은 전제를 찾을 때는, 주어진 논증을 그대로 놓고, 반례를 생각해내면 된다. 반례를 하나 찾으면, 그 반례가 성립하지 않도록 논증을 보강해 줄 수 있는 명제가 만들어질 수 있고, 이것이 숨은 전제이다. (p.233)
 - 「청소년 논리교실 : 타당성과 숨은 전제」, 민찬홍(한양대 정책 교수)

12. ㉠으로부터 ㉡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생략된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우리는 감각 경험을 통해 직접 만나는 개별적인 대상들로부터 귀납추리를 통해 일반 법칙에 도달할 수 있다. ㉡ 따라서 자연 세계의 일반 법칙에 대한 지식도 경험적 지식이다.

- ① 귀납추리는 일반 법칙에 기초해 있다.
- ② 귀납추리는 자연에 대한 지식을 확장해 준다.
- ③ 귀납추리는 지식의 경험적 성격을 바꾸지 않는다.
- ④ 귀납추리는 지식이 경험 세계를 넘어서도록 한다.
- ⑤ 귀납추리의 결론은 전제로부터 필연적으로 도출되지 않는다.



풀이 생략된 전제를 찾으라고 한다. 생략된 전제란 반례가 생기지 않도록 논증을 보강해 주는 명제이다. 하나의 논증이란 '전제와 결론'으로 된 한 묶음을 뜻한다. '㉠ 따라서 ㉡'이므로 ㉠이 전제, ㉡이 결론이다. 논증 보강은 전제에 한다. ㉠에 '무엇'을 보충하면 반례가 생길 가능성이 사라진다. 그 '무엇'이 생략된 전제이다.

이 논증에서 어떤 반례가 생길 수 있을까? (객관식 시험이니까 선택지가 힌트다) 선택지를 통해 힌트를 얻자. 선택지들의 주어는 모두 '귀납추리'로 시작한다. 고로 출제자가 염두에 둔 반례는 '귀납추리'와 관련된 반례임을 알 수 있다.

㉠을 '귀납추리'를 중심으로 쪼개보자. 그러면 ㉠은 '우리는 A로부터 B를 통해 C에 도달할 수 있다.'이고 '귀납추리'는 B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단임을 알 수 있다.

㉠과 ㉡ 두 문장을 좀 더 단순하게 만들어보자. 단순하게? ㉠이 전제이고 ㉡이 결론이므로 ㉠과 ㉡을 일치시키자는 말이다.

㉠에도 '일반 법칙'이 있고 ㉡에도 '일반 법칙'이 있다. '일반 법칙'이 '일반 법칙'과 대응하고, '감각 경험을 통해 직접 만나는 개별적인 대상들'이 '경험적 지식'과 대응한다. ㉠을 ㉡의 단어로 읽으면

- ㉠ : 경험이 / 귀납추리를 통해 / 일반 법칙에 도달한다.
- ㉡ : 일반 법칙에 대한 지식도 / 경험적 지식이다.

㉠이 '도달하다'로 시간 표현이지만, '논리' 문제는 '집합'으로 본다. 벤다이어그램을 그려보자.

생략된 전제

| 수능 2007 35 | ★★★★★

국어 표현을 P→Q 형태의 조건문 형식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 A : (우리는 감각 경험을 통해 직접 만나는 개별적인 대상들)로부터
- B : (귀납추리)를 통해
- C : (일반 법칙)에 도달할 수 있다.

㉠ : 경험(출발)이 일반 법칙(도착)에 도달하므로,
 ∴ 경험(출발)이 일반 법칙(도착)에 도달하므로,
 ∴ 경험(출발)이 Q, 일반 법칙(도착)이 P인 벤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겠다.

㉡ : 일반 법칙에 대한 지식도 / 경험적 지식이다.
 주술 관계를 조건문으로 바꿀 때는 서술어가 Q 주어가 P이다.
 일반 법칙에 대한 지식은 경험적 지식이므로,
 ∴ 일반 법칙에 대한 지식이 P, 경험적 지식이 Q이다.

적용 집합 관계를 알았으니, 반례를 찾을 수 있다.

㉠을 P→Q라 할 때, P는 일반 법칙이고, Q는 경험(출발)이므로,
 반례는 '일반 법칙인데 경험(출발)이 아닌 것'이다.

일반 법칙인데 어떻게 경험(출발)이 아닌 것이 될 수 있을까? 귀납추리를 거쳤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례는 '일반 법칙인데 (귀납추리를 거쳤기 때문에) 경험적 성격이 아니게 된 것'이다.

생략된 전제는 반례를 부정하면 된다. 반례를 부정하면 '경험(출발)이 귀납추리를 거쳐 일반 법칙이 될 때, 귀납추리를 거치면서도 경험의 경험적 성격은 바뀌지 않는다.'이다.

㉢ 선택지 : 귀납추리는 / 지식의 경험적 성격을 / 바꾸지 않는다.
 선택지는 '귀납추리를 해도 경험(출발)은 경험적 성격을 벗어나지 않는다'의 뜻이므로 생략된 전제와 일치한다. ∴ 일치

결론 **답㉢**

㉠ 조건문 만들기 (포함관계)

개념상 '경험(출발)'과 '일반 법칙(도착)'의 포함관계를 따져 조건문을 만들 수도 있다. 경험(출발)에서 일반 법칙(도착)이 나오므로, 경험(출발)이 Q이다.

㉠ : 경험(출발)은 / 귀납추리를 통해 / 일반법칙(P)에 도달한다.

㉡ : 일반 법칙(P)은 / 경험(Q)이다.

㉢ 완성된 논증

우리의 경험(출발)은 귀납추리를 통해 일반 법칙(도착)에 도달한다. / 경험(출발)이 귀납추리를 거쳐 일반 법칙(도착)이 될 때, 귀납추리를 거치면서도 경험(출발)의 경험적 성격은 바뀌지 않는다. / 따라서 경험(출발)이 귀납추리를 거쳐 도달한 일반 법칙(도착)에 대한 지식도 여전히 경험적 성격의 지식이다.

논리적 사고를 위한 전제

(전략) 앞에서 논리적인 이치라는 것은 시간을 빼고서, 변화라는 것을 없는 걸로 치고서 비로소 따질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제 논리적인 이치라는 것은 의미가 정해진 것을 치고서 비로소 시작된다고 말하였다. 이 두 가지는 "논리학의 근본 가정"이라고 부를 만한 것으로서 논리적인 이치를 따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전제가 된다.

- 「청소년 논리교실 : 모순이야기」, 민찬홍(한양대 정책 교수)

21. '반대 해석과 관련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실내에 구두를 신고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팻말이 있는 집에서는 손님들이 당연히 구두를 신고 실내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데 팻말에 명시되지 않은 ‘실외’에서 구두를 신고 돌아다니는 것은 어떨까? 이에 대해서는 금지의 문구로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지의 효력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이처럼 문구에서 명시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방식을 반대 해석이라 한다.

- ㉠ 민섭 : ‘대문 앞에 자동차를 세우지 마시오.’라고 쓰여 있네. 담 쪽에 주차해야겠다.
- ㉡ 유현 : 길이 좁아서 써 놓은 것 같은데 담 쪽도 곤란한 거 아냐?
- ㉢ 민섭 : 도로 폭은 충분해. 그보다는 대문을 드나드는 데 불편해서 붙었다고 봐야 돼.
- ㉣ 유현 : 그런데 대문 앞을 오토바이가 막고 있네. 자동차가 아니라서 세워 두었구나.
- ㉤ 민섭 : 이 경우에는 오토바이도 자동차라고 생각해야지.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반대 해석

| 예비 2014 A형 24 | ★★★

반대 해석을 해도 원래 문장의 뜻은 바뀌지 않는다. 반대 해석을 하면 원래 문장과 같은 문장이 만들어진다.

실내에 구두를 신고 들어가지 마시오.
실외는 구두를 신고 들어가도 됩니다.
(위 두 문장의 뜻은 같다)

풀이 반대 해석하는 법을 배워보자. 순서는 i) 원래 문장을 둘로 나눈다.
ii) 양쪽을 부정한다. 반드시 두 번 부정해야 한다.

적용 원래 문장은 '대문 앞에 자동차를 세우지 마시오.'이다.
반대 해석하면 '대문 앞이 아니라면 차를 세울 수 있다.'이다.

혹은 '대문 앞'은 그냥 두고, '자동차를 세우지 마시오.'를 반대 해석할 수도 있다.

원래 문장은 '대문 앞에 자동차를 / 세우지 마시오.'이다.
반대 해석하면 '대문 앞에 '자동차가 아니면 /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따라서 원 문장의 반대 해석은 '대문 앞이 아니라면 자동차를 세우시오.' 혹은 '대문 앞이라도 자동차가 아니면 세우시오.' 이렇게 된다.

㉠에서 '담 쪽에 주차해야겠다.'는 '대문이 아니면 세우시오.'와 같다. 즉 "대문 앞에 세우지 마시오, 그러면 대문이 아닌 담 쪽에 주차해도 되겠군."

대문 ↔ 대문 아닌 담
세우지마. ↔ 세워도 돼.
∴ "대문에 세우지마." = "대문 아닌 담에는 세워도 돼."

㉡에서 '자동차가 아니라서 세워 두었구나.'는 '자동차라면 세울 수 없었다.'와 같다. 즉 "대문 앞에 자동차를 세우지 마시오, 그러면 대문 앞에 자동차가 아닌 것을 세워둘 수 있겠군."

자동차 ↔ 자동차 아닌 오토바이
세우지마. ↔ 세워도 돼.
∴ "자동차는 세우지마." = "자동차가 아닌 오토바이는 세워도 돼."

결론 **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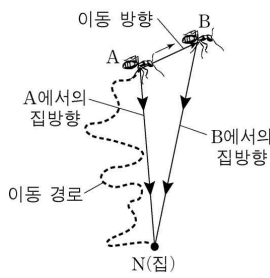
반대 해석과 조건문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를 '사람을 살해하지 않은 자는 사형에 처해져서는 안 된다.'로 해석하는 것이 반대 해석이다. 반대 해석을 하면 원문과 같은 뜻의 문장이 나온다.

반대 해석은 $P \rightarrow Q$ 와 $\sim P \rightarrow \sim Q$ 가 같다는 해석이다. $P \rightarrow Q$ 와 동치는 $\sim Q \rightarrow \sim P$ 이고, $\sim P \rightarrow \sim Q$ 는 '이'이다. 어떻게 $P \rightarrow Q$ 와 $\sim P \rightarrow \sim Q$ 가 같을 수 있을까? $P \rightarrow Q$ 가 $\sim P \rightarrow \sim Q$ 와 같은 경우는 $P \leftrightarrow Q$ 인 경우다. 따라서 반대 해석이란 $P=Q$ 인 경우이다.

22. 다음 글을 바탕으로 할 때 ㉠의 길찾기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동물은 다양한 방식으로 중요한 장소의 위치를 기억하고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은신처까지 길을 찾아올 수 있다. 동물의 길찾기 방법에는 ‘장소기억’, ‘경로적분’ 등이 있다. ‘장소기억’은 장소의 몇몇 표지만을 영상 정보로 기억해 두었다가 그 영상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며 길을 찾는 방법이다.



‘경로적분’은 곤충과 새의 가장 기본적인 길찾기 방법으로 이를 활용하는 능력은 타고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먹이를 찾아 길을 나선 ㉠ 사하라 사막의 사막개미는 집 근처를 이리저리 탐색하다가 일단 먹이를 찾으면 집을 향해 거의 일직선으로 돌아온다. 사막개미는 장소기억 능력이 있

지만 눈에 띄는 지형지물이 거의 없는 사막에서는 장소기억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경로적분을 활용한다. 사막개미의 이러한 놀라운 집찾기는 집을 출발하여 먹이를 찾아 이동하면서 자신의 위치에서 집 방향을 계속하여 다시 계산함으로써 가능하다. 가령, 그림에서 이동 경로를 따라 A에 도달한 사막개미가 먹이를 찾았다면 그때 파악한 집 방향 AN으로 집을 향해 갈 것이다. 만약 A에서 먹이를 찾지 못해 B로 한 걸음 이동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사막개미는 A에서 B로의 이동 방향과 거리에 근거하여 새로운 집 방향 BN을 계산한다. 사막개미는 먹이를 찾을 때까지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매 위치에서의 집 방향을 파악한다.

한편, 이동 경로상의 매 지점에서 사막개미가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 기준을 정하기 위해 사막개미는 태양의 위치와 산란된 햇빛을 함께 이용한다. 태양의 위치는 태양이 높이 떠 있거나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을 때는 유용하지 않다. 이때 결정적 도움을 주는 것이 산란된 햇빛 정보이다. 사막개미는 마치 하늘을 망원경으로 관찰하는 천문학자처럼 하늘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있는 셈이다.

- ① 사막개미는 암흑 속에서도 집 방향을 계산할 수 있겠군.
- ② 사막개미의 경로적분 능력은 학습을 통해 얻어진 것이겠군.
- ③ 지형지물이 많은 곳에서 사막개미는 장소기억을 활용하겠군.
- ④ 사막개미가 먹이를 찾은 후 집으로 되돌아갈 때는 왔던 경로를 따라 가겠군.
- ⑤ 사막개미는 한 걸음씩 이동하면서 그때마다 집까지의 직선 거리를 다시 계산하겠군.

반대 해석

| 모의 2014 9월 A형 17 | ★★★★★

정답률이 약 40%이다. 두 번째로 어려웠던 문제이다. 왜 어려웠는지를 알아두자.

풀이 주어진 문장을 반대 해석하면 원래 문장과 뜻이 같은 문장이 나온다.

적용

③ 선택지 : '지형지물이 많은 곳에서 / 사막개미는 / '장소기억을 활용'하겠군.
사막 개미는 지형지물이 많은 곳에서는 장소기억을 활용한다.

지문 : 사막개미는 / '장소기억 능력이 있지만 / 눈에 띄는 지형지물이 거의 '없'
는 사막에서는 장소기억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 경로적분을 활용한다.
사막개미는 장소기억 능력이 있다. 그런데 '지형지물이 거의 '없'기 때
문에 장소기억을 사용할 수 '없'다.

'~없다 ~없다' 표현을 반대 해석해보자.
'지형지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 장소기억을 사용할 수 없다'
'지형지물이 많은 곳에서는 / 장소기억을 사용할 수 있다'
∴ 일치

① 선택지 : 사막개미는 / '암흑' 속에서도 / 집 방향을 계산할 수 있겠군.
지문 : 태양의 위치는 ~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을 때'는 유용하지 않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을 때'는 날씨가 흐린 때이다.
즉 태양은 떠 있어야 한다. '암흑'은 태양이 없다는 말이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을 때'를 흐림이라고 한다면,
지문은 흐림이고, 선택지는 암흑이므로 둘은 다르다. ∴ 불일치

② 선택지 : 사막개미의 경로적분 능력은 / '학습을 통해 얻어진 것이'겠군.
지문 : 이를 활용하는 능력은 / '타고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고나는 것과 학습은 다르다. ∴ 불일치

④ 선택지 : 사막개미가 ~ 집으로 되돌아갈 때는 / '왔던 경로를 따라' 가겠군.
지문 : 일단 먹이를 찾으면 / 집을 향해 거의 '일직선으로' 돌아온다.
'경로'와 '방향'은 다르므로 ∴ 불일치

⑤ 선택지 : 사막개미는 ~ '그때마다' / 집까지의 '직선거리'를 다시 계산하겠군.
지문 : '매' 위치에서의 / 집 '방향'을 파악한다.
'매'와 '그때마다'는 복수로서 일치한다. 수일치
그러나 '방향'과 '거리'는 다르다. ∴ 불일치

③ 능력은 있으나 기회가 없어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면, 능력을 사용할 기회가 있다면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⑥ 반대 해석 (A-B = ~A~B)
지형지물 있다 - 장소기억 가능
지형지물 없다 - 장소기억 불가능

① 흐림과 암흑은 다르다 (선명#밝기)
흐림 : 선명하다 - 선명하지 않다
암흑 : 밝다 - 어둡다

② 선천과 후천은 다르다 (선천#후천)
선천적 능력은 타고 나는 것이다.
후천적 능력은 학습의 결과이다.

④ 경로와 방향은 다르다 (경로#방향)

⑤ 거리와 방향은 다르다 (거리#방향)

결론 **답③**

26.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익은 기업가로 하여금 사업을 시작하게 하는 동기가 된다. 이익에는 단기적으로 실현되는 이익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실현되는 이익이 있다. 기업이 장기적으로 존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기 이익보다 장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실제로 기업은 단기 이익의 극대화가 장기 이익의 극대화와 상충할 때에는 단기 이익을 과감히 포기하기도 한다. 하루 세 번 칫솔질할 것을 권장하는 치과 의사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모두가 이처럼 이를 닦으면 사람들의 치아 상태가 좋아져서 치과 의사의 단기 이익은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치아를 오랫동안 보존하게 되므로 치과 의사로서는 장기적인 고객을 확보하는 셈이 된다. 반대로 칫솔질을 자주 하지 않으면 단기 이익은 증가하겠지만, 의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장기 이익은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

- ① 기업은 단기적 손해를 감수하면 장기적 이익을 보장받는다.

후건 긍정 추론의 오류

| 수능 2002 18 | ★★★★★

풀이 P→Q가 참이더라도, Q→P가 반드시 참인 것은 아니다.
Q→P를 '후건 긍정의 오류'라고 부른다.

적용 ❶ 선택지 : 기업은 단기적 손해를 감수하면 / 장기적 이익을 보장받는다.

'~면'이라는 표현이 있다. 'P이면 Q이다'이므로

'단기 손해 감수'가 P, '장기 이익 보장'이 Q이다.

P와 Q가 제대로 되었는지, 5개의 문장 형태에 선택지를 넣어보자.

"Q 없다 P 없다"에 넣어보자. '기업은 단기적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면 / 장기적 이익을 보장받지 못한다'가 지문과 일치한다.

∴ '단기적 손해 감수'는 Q, '장기적 이익 보장'은 P이다.

"Q이어야 P이다"에 넣어보자. '단기적 손해를 감수해야 / 장기적 이익을 보장받는다'가 지문과 일치한다.

∴ '단기적 손해 감수'는 Q, '장기적 이익 보장'은 P이다.

"오직 Q만이 P이다"에 넣어보자. '오직 단기적 손해 감수만이 / 장기적 이익을 보장받는다'가 지문과 일치한다.

∴ '단기적 손해 감수'는 Q, '장기적 이익 보장'은 P이다.

Q→P가 참일 수 있지만 반드시 참인 것은 아니다. 만약 P=Q라면, P→Q도 참이고 Q→P도 참이다. P≠Q라면 Q→P가 참이 아니다. 그런데 P와 Q가 P=Q인지 알 수 없으므로 '반드시' 참인 것은 아니다.

선택지 조건화

선택지에서 지문 내용을 이끌어낼 수 있다.

“**P이면 반드시 Q이다**”에 넣어보자. ‘장기적 이익을 보장받으려면 / 반드시 단기적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가 지문과 일치한다.
∴ ‘단기적 손해 감수’는 Q, ‘장기적 이익 보장’은 P이다.

“**P이면 Q가 필요하다**”에 넣어보자. ‘장기적 이익을 보장받으려면 / 단기적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가 지문과 일치한다.
∴ ‘단기적 손해 감수’는 Q, ‘장기적 이익 보장’은 P이다.

P와 Q가 제대로 되었는지, 개념상 시간 공간에 선택지를 넣어보자.

‘**선행하는 것이 Q**’이다. 단기적 손실을 감수하는 것이 먼저이므로
∴ ‘단기적 손해 감수’는 Q, ‘장기적 이익 보장’은 P이다.

‘**포함하는 것이 Q**’이다. 단기적 손실을 감수하는 중에 장기적 이익이 실현되는 것이므로
∴ ‘단기적 손해 감수’는 Q, ‘장기적 이익 보장’은 P이다.

선택지의 P, Q와 지문의 P, Q를 비교해보자.

지문 : 장기적 이익을 보장 → 단기적 손실을 감수 (P→Q)

① : 단기적 손해를 감수 → 장기적 이익을 보장 (Q→P)

지문은 P→Q인데, 선택지는 Q→P이다. P=Q도 아니다.

후건 긍정의 오류이므로 ∴ 불일치

결론 **답①**

속옷을 깨끗하게

나는 대학생 때 돈이 없었다. 돈이 없으니 허황된 꿈이나 꾸고, 사회에 대한 분노(?) 그런 것만 키웠던 것 같다. 가난하면 가난하기만 하면 되는데, 마음도 가난해진다. 터키 속담에 ‘재채기와 사랑과 가난은 숨길 수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누가 나의 가난을 알아채면 어쩌나하는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다.

특히 나를 더 움츠려들게 했던 건, 아침마다 마주하는 헤지고 변색된 속옷이었다. 속옷은 속옷의 문제가 아니었다. 나도 이 속옷처럼 쓰레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아침마다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과외를 해서 번 돈으로, 큰 맘 먹고 흰색 4~5장을 샀다. 그러자 아침마다 흐뭇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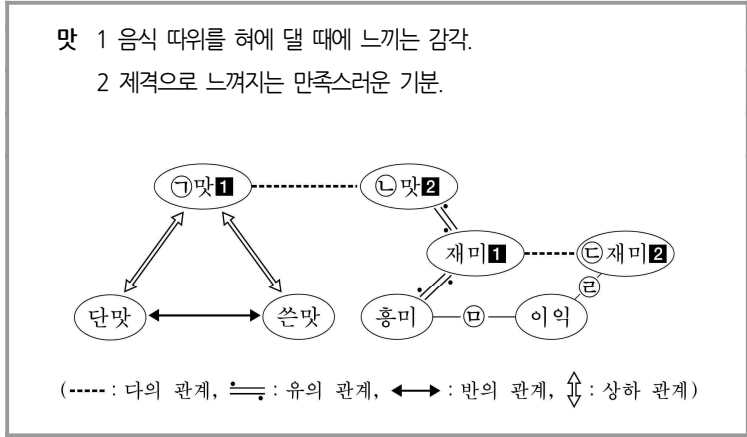
같은 시골 출신 대학생답게 후줄근할 줄 몰라도, 나는 깨끗한 속옷을 입은 사람이었다.

자신감이 아랫배에서 시작하여 안면 입 꼬리 근육까지 번져 나갔다.

10. <보기>는 국어사전을 토대로 ‘맛과 관련된 어휘 사이의 의미 관계’를 그려 본 것이다.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범주 구분

| 모의 2010 6월 11 | ★★



- ① “여행을 꼭 해외로 가야만 맛인가?”의 ‘맛’은 ㉠과 다의 관계이다.
- ② “음식에 설탕을 넣어 단맛을 내다.”의 ‘단맛’은 ㉠의 하의어이고, ‘단맛’과 반의 관계인 ‘쓴맛’도 ㉠의 하의어이다.
- ③ “내가 어제 본 만화는 정말 재미가 있었어.”의 ‘재미’가 ㉡과 유의 관계라면, ㉠과는 다의 관계가 된다.
- ④ “시세가 올라 이익을 본 상인이 많다.”의 ‘이익’이 ㉢과 유의 관계라면, ㉢의 표시는 ‘익’이 알맞다.
- ⑤ “소설의 결말을 알면 흥미가 반감된다.”의 ‘흥미’와 ‘이익’ 사이에서는 <보기>에 제시된 의미 관계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은 주어진 부호로는 표시할 수 없다.



풀이 범주가 다르면 비교할 수 없다.

맛1과 맛2는 각각 하나의 범주이다.
재미1과 재미2는 맛2 범주 안에 있다.
재미1은, 반드시 맛2를 통해서만, 맛1과 연결될 수 있다.

적용 ③ 선택지 ③의 ‘재미’는 맛2와는 유의 관계가 맞다.
그러나 다른 범주인 맛1과는 직접 다의 관계로 연결될 수 없다.

결론 답3

③ 잘못 생각하면 재미1이 맛2와 ‘≒’이면, 재미1이 맛1과도 다의 관계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범주가 다르면 다르다. 맛1과 맛2는 다른 범주이다.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A군과 B군은 친구 사이다. A군에게는 C양이라는 여자 친구가 있다.

B군 : 사실 나 너에게 고백할 게 있어.

A군 : 뭐야? 뜬 말이지 말고 말해.

B군 : 사실은 말이야. 네 여자 친구 C가 날 좋아하는 것 같아서..

A군 : (당황한 표정으로) 뭐!! 둘 사이에 무슨 일 있었어? 자세하게 말해!

B군 : 전에 나랑 만나서 놀 때, C가 왔잖아? 그지?

A군 : 그대 맞아. 내 여자 친구랑 너, 우리 셋이서 자주 만났지? 근데?? 빨리 말해!!

B군 : 그런데 말이야. 네 여자 친구가 나에게 많이 친절한 거 아니? 항상 웃으면서 말해.

A군 : 뭐? 내 여자 친구가 너에게 친절하게 웃으며 말하기 때문이라고? 하하하.

이 바보야. C가 너에게 친절하게 웃는 이유는 너가 내 친구이기 때문이다.

B군 : (당황하지 않고) 사실 또 고민이 있어. 내가 자주 가는 미장원 아가씨도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아.

내가 하는 말에 잘 웃어주고, 말도 잘 받아 주거든.

A군 : 이 놈아, 그러니까 너가 모태 솔로지!

B군 : 아니야! 정말 나에게 친절해. 날 좋아하는 게 틀림없다!

A군 : 야 이놈아, 그 디자이너가 너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너가 손님이기 때문이야.

미장원 안에서만, 손님과 직원 관계로만 그런 거야.

B군 : 아니야 친구야!

A군 : 닥쳐 꺼져!

B군은 왜 모태 솔로인가? 범주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친구의 여자 친구는 내 친구 때문에 나를 만난다. 헤어디자이너는 내가 손님이기 때문에 나를 반갑게 맞이준다.

시어와 과학어

상상력이 뛰어난 학생은 이 문제가 이해가 안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상상력이 뛰어난 친구들에게 세상은 온통 비유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비유. 비유는 다른 것을 같은 것으로 묶는 것이다. 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할 때 마음과 호수는 과학적으로 다르다. 마음은 정신적인 것이고 호수는 사물. 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비유는 천재의 능력이라고 했다. 아무나 마음을 물에 비유할 수 없다. 예전에 TV를 보니까, 어떤 소설가 분(박범신)이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나면 물이 마음에 많이 들어온 그런 느낌이다"라고 했는데, 詩的이다.

그러나 수능은 말의 과학적 쓰임을 묻는다. 고로 같은 것은 같다, 다른 것은 다르다고 해야 한다.

20. 다음 글로 볼 때, 인과 관계를 옳게 연결한 것은?

서론 규칙

| 수능 1994-2 52 | ★★★

자연의 이용이 도리어 재앙을 가져온 예들은 인류 역사의 초기부터 있어 왔다. **에페소스의 문명이 갑자기 몰락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에페소스에서 채취한 흙에서 꽃가루를 분석해 본 결과 에페소스가 가장 번성했던 2천 년 전의 지층에서는 밀의 꽃가루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것은 밀을 중심으로 한 발농사가 성행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보다 오래 된 지층에서는 목초지에서 발견되는 질경이의 꽃가루가 많이 발견되었고, 사람이 살지 않았던 4천 년 전 지층에서는 떡갈나무의 꽃가루가 다량으로 발견되었다. 이것은 에페소스의 환경이 삼림 지대에서 목초 지대를 거쳐 농경 지대로 변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모여들자 농경 지대가 확대되고 그에 따라 삼림 지대는 점차 줄어들게 되었던 것이다.

숲은 물의 순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삼림이 우거진 숲에는 낙엽과 표층토가 있어서 많은 물이 저장될 수 있다. 이곳에 저장되어 있던 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구름은 다시 비가 되어 숲으로 돌아온다. 그런데 에페소스에서는 문명이 번창하면서 이러한 숲이 줄어들게 되었고 그에 따라 물의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강우량이 줄어들었다. 기후가 건조해지면서 땅이 점점 메마르게 되자 에페소스에는 흉년이 거듭되었고, 풍요로웠던 문명의 뿌리는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험벗은 산의 표층토가 빗물에 씻겨 내려 서서히 바다가 메워지면서 에페소스의 교역도 사양길로 접어들어 해양 도시로서의 기능도 상실하고 말았다.

결국 사람들이 떠난 도시는 폐허로 남게 되었다.

- ① 건조 기후 → 흉작 → 표층토 유실
- ② 삼림 감소 → 농경지 확대 → 도시화
- ③ 강우량 감소 → 흉작 → 교역의 사양화
- ④ 삼림 감소 → 기후 변화 → **문명의 몰락**
- ⑤ 꽃가루 분석 → 식물상 규명 → 생태계 변화

풀이 서론에 주제문이 나오면, 본론은 그 주제문에 대한 부연일 뿐이다.

적용 ④ 본론의 주제는 '이미' 서론에서 정해졌다.
에페소스 문명이 갑자기 몰락한 원인이 본론의 주제이다.
따라서 '문명의 몰락'이 들어가 있는 ④만 답이 될 수 있다. ∴ 일치

결론 **답④**

56. 다음 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상황에서 병아리가 보일 행동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예시 조건화

| 모의 2014 9월 A형 18 | ★★

‘재정위’는 방향 기억이 헝클어진 상황에서도 장소의 기하학적 특징을 활용하여 방향을 다시 찾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직사각형 방에 갇힌 배고픈 흰쥐에게 특정 장소에만 먹이를 두고 찾게 하면, 긴 벽이 오른쪽에 있었는지와 같은 공간적 정보만을 활용하여 먹이를 찾는다. 이런 정보는 흰쥐의 방향 감각을 혼란시킨 상황에서도 보존되는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원숭이는 재정위 과정에서 벽 색깔과 같은 장소기억 정보도 함께 활용한다는 점이 밝혀졌다.

병아리가 재정위 과정에서 기하학적 특징만을 활용한다고 가정하자. 아래 그림의 직사각형 모양의 상자에서 먹이는 A에만 있다. 병아리가 A, B, C, D를 모두 탐색하여 먹이가 어디에 있는지 학습하게 한 후, 상자에서 꺼내 방향을 혼란시킨 다음 병아리를 상자 중앙에 놓고 먹이를 찾도록 한다. 이와 같은 실험을 여러 번 수행하여 병아리가 A, B, C, D를 탐색하는 빈도를 측정한다.

- ① A를 높은 빈도로 탐색하고 B, C, D를 비슷한 정도의 낮은 빈도로 탐색한다.
- ② A, C를 비슷한 정도의 높은 빈도로 탐색하고 B, D를 비슷한 정도의 낮은 빈도로 탐색한다.



풀이 지문에 개념과 예시가 있을 때, 무엇을 조건으로 만들면 쉬울까? 개념보다 예시를 조건으로 만드는 것이 쉽다. ‘장소의 기하학적 특징’보다 ‘긴 벽이 오른쪽에 있다’가 더 쉽다.

적용 ② <보기>에서 기하학적 특징‘만’을 활용한다고 한다. A에 먹을 것이 있다. A는 ‘긴 벽이 왼쪽에 있다’로 조건화할 수 있다. A처럼 긴 벽이 왼쪽에 있는 것은 C이다. ②가 조건에 일치한다.

결론 답②

1. 다음 글로 보아 <보기>의 ㉠에 대한 판단으로 타당한 것은?

정부가 기업이 사업에 투자할 때에는 현재에 투입될 비용과 미래에 발생할 이익을 비교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한다. 이 경우 물가 상승, 투자 기회,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할인율의 요인을 고려하여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후, 비용과 이익을 공정하게 비교해야 한다. 이러한 환산을 가능케 해 주는 개념이 할인율이다. 할인율은 이자율과 유사하지만 역으로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현재의 이자율이 연 10%라면 올해의 10억 원은 내년에는 $(1+0.1)$ 을 곱한 11억 원이 되듯이, 할인율이 연 10%라면 내년의 11억 원의 현재 가치는 $(1+0.1)$ 로 나눈 10억 원이 된다.

만일 사회적 할인율이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처럼 높게 적용된다면, 미래 세대의 이익이 저평가되는 셈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할인율은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공익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개발 업체가 어느 지역의 자연 환경을 개발하여 놀이동산을 건설하려고 한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자연 환경의 가치를 중시하여 놀이동산의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중시하여 찬성하는 사람들로 갈리어 있다. 그래서 개발 업체와 지역 주민들은 ㉠ 놀이동산으로부터 장기간 파급될 지역 경제 활성화의 이익을 추정하고,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을 계산해 보기로 하였다.

- ① 사업의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하는 주민들은 낮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 ② 후손을 위한 환경의 가치를 중시하는 주민들은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 ③ 개발 업체는 놀이동산 개발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 ④ 놀이동산이 소득 증진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은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 ⑤ 지역 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고 판단되면 낮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대립어 찾기

| 수능 2008 46 | ★★★★★

실전 수능에서 정답률이 가장 낮은 문제였다. 36%만이 정답을 찾았다. 나는 이 문제를 선택지 조건화와 지문 조건화, 두 방법으로 풀 거다. 먼저 지문 조건화다.

풀이1

선택지를 보자.

모든 선택지 끝이 '(높은/낮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로 되어 있다. 할인율 높냐 · 할인율 낮냐를 묻는 문제인 것 같다.

할인율이 '높다' - 미래 세대 이익 '저평가

할인율이 '낮다' - 미래 세대 이익 '고평가

적용1

② '후손을 위한 환경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 놀이동산 짓지 말자는 거니까 / '놀이동산 건설로 생길 이익은 저평가'하는 것이다. 저평가는 할인율 높다와 짝이다. 선택지도 높은 할인율이다. ∴ 일치

① '(놀이동산) 사업의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판단'은 / 놀이동산 건설로 생길 이익을 저평가하는 것일까, 고평가하는 것일까? / 저평가지! 저평가는 할인율 높다와 짝이다. 선택지는 낮은 할인율이다. ∴ 불일치

③ 개발 업체는 / 놀이동산의 개발 이익을 저평가할까, 고평가할까? 고평가하겠지. 놀이동산을 개발하려는 사람이니까. 고평가는 할인율 낮다와 짝이다. 선택지는 높은 할인율이다. ∴ 불일치

④ 놀이동산을 / 고평가하나 저평가하나? 고평가하고 있다. 고평가는 할인율 낮다와 짝이다. 선택지는 높은 할인율이다. ∴ 불일치

⑤ '효과가 나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고 판단'하는 것은 / 고평가인가 저평가인가? / 아주 먼 미래가 돼서야 활성화의 효과가 일어난다고 판단하는 것이니까, / 저평가라고 할 수 있다. 저평가는 할인율 높다와 짝이다. 선택지는 높은 할인율이다. ∴ 불일치

출제자가 묻고 싶은 것은 할인율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느냐이다. 그러나 나는 '할인율의 개념'으로 풀지 않고, 국어 시험답게 '명사'가 아니라, '말의 표현'으로 문제를 풀었다. '높다-저', '낮다-고' 이걸로.

지문에 **할인율 높다-미래 세대 이익 저평가**만 있다. 그렇지만, 선택지에는 '높은 할인율'과 '낮은 할인율'이 있으므로, **할인율 높다-미래 세대 이익 저평가**로 두 개의 조건을 만들었다. 왜냐고? 이래야 일치시키기 쉽잖아!

결론1 답②

제가 수능 볼 때는 쉬운 지문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문이 어렵게 나오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 왜냐고? 학생의 최대 약점은 지문이 어렵다는 것이다. (지문 쉬우면 다 맞추잖아) 하지만 어려운 지문 때문에 남들이 틀릴 때도 너는 맞출 수 있다. 어려운 지문일수록 일치로 푸는 방법이 효과를 발휘한다. 쉬운 지문이 나온다고 너에게 좋을 것도 없다. 너가 알고 있는 주제가 지문으로 나왔다. 남들은 모를까? 수험생들은 거의 비슷한 책으로 공부한다. 남들도 다 알고 있는 주제라는 얘기다. 너가 무엇을 알고 있다면, 너가 공부를 많이 해서라기보다는 출제자가 너가 알고 있는 것을 던져 준 거다. 출제자는 너가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출제자는 지난 여름에 너가 무슨 책을 보았는지를 알고 있다.

풀이2 모든 선택지는 지문과 일치시켜 풀어야 한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 지문도 너무 어렵고, 이럴 때는 선택지와 <보기>만으로 해결해 보라. 응급처방이다. 무슨 소리냐고? ‘선택지와 <보기>’만 보고 선택지의 편을 가르라는 얘기다. 물론 이렇게 푸는 것은 위험을 동반한다. 언제나 써먹히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없을 때는 이렇게라도 풀어야 한다. 짚는 법이라고 해도 좋다. 어떻게 푸는지 내가 지금부터 예를 보여 주겠다.

우리의 목표는 선택지의 편을 가르는 것이기 때문에, <보기>에서 선택지를 편가를 만한 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반의어**가 나오나 보자.

보기 :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자연 환경의 가치를 중시하여 **놀이동산**의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중시하여 ‘찬성’하는 사람들로 갈리어 있다.

∴ 선택지는 놀이동산 건설을 ‘찬성’하거나 ‘반대’할 것이다.

적용2 ② ‘반’대하는 주민들과 ‘높’은 할인율이 짝지어져 있다.

① ‘반’대하는 주민들과 ‘낮’은 할인율이 짝지어져 있다.

③ ‘찬’성하는 사람들과 ‘높’은 할인율이 짝지어져 있다.

④ ‘찬’성하는 사람들과 ‘낮’은 할인율이 짝지어져 있다.

⑤ ‘효과가 나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고 판단’하는 것은 / 아주 먼 미래가 돼서야 활성화의 효과가 일어난다고 판단하는 것이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일 것이다.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낮’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반’대하는 사람들과 ‘낮’은 할인율이 짝지어져 있다.

선택지 ①, ③, ④, ⑤가 한 편이고, 선택지 ②가 다른 한 편이다.

다른 것 하나가 답! 따라서 답은 ②이다.

결론2 **답②**

시험공부를 학문하듯 하지 말자.

시험에 최적화된 사람이 대학에 붙는다. 내 풀이 방법이 엉터리라고 하지 말길 바란다. 입시 공부 따위는 가장 효율적으로 하고, 진짜 공부는 (자기가 필요할 때) 혼자 하는 거다. 입시 공부를 도를 닦듯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시험을 신비화하는 것이다. 국어를 잘하려면 독서를 많이 해야 한다? 그냥 평가원 코드대로 공부하면 된다. 끝.

1. <보기>의 표준 발음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키다

| 수능 2015 B형 11 | ★★★★★

표준 발음법 제8항

받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

해설 이 조항은 ㉠ 받침 발음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 모든 받침은 제시된 7개의 자음 중 하나로만 발음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 두 가지 음운 변동이 적용된다. 하나는 ㉡ 자음이 탈락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 자음이 다른 자음으로 교체되는 것이다.

표준 발음 자료

읽대[익때], 옳느[옴 : 닌], 닻지[닥찌], 윽기[읍끼], 뵈느[밤 : 닌]

- ① ‘읽대[익때]’는 ㉠을 지키기 위해 ㉡이 적용되었다.
- ② ‘옳느[옴 : 닌]’은 ㉠을 지키기 위해 ㉡이 적용되었다.
- ③ ‘닻지[닥찌]’는 ㉠을 지키기 위해 ㉢이 적용되었다.
- ④ ‘윽기[읍끼]’는 ㉠을 지키기 위해 ㉡, ㉢이 모두 적용되었다.
- ⑤ ‘뵈느[밤 : 닌]’은 ㉠을 지키기 위해 ㉡, ㉢이 모두 적용되었다.



풀이 이미 지켰다면 지킬 수 없다.

예) 이미 들어갔다면 다시 들어갈 수 없다.

적용 ⑤ ‘르브’에서 ‘르’가 탈락된 것은 ‘르브’는 7개 자음에 속하지 않으므로, 받침소리로는 7개의 자음만 발음한다는 ㉠을 지키기 위해서이지만, ‘브’가 ‘ㅍ’으로 교체된 것은 ㉠을 지키기 위해 교체된 것이 아니다. ‘브’로 발음해도 ㉠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을 지키기 위해 사용된 것은 ㉡ 뿐이다. ∴ 불일치

결론 답⑤

‘비음화’를 묻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를 낸 아이디어는 ‘지킨다’이다.

평가원 답변

답지 ③번의 ‘닻지[닥찌]’에서 ‘ㄸ’가 ‘ㄱ’으로 바뀐 것은 ‘ㄸ’가 7개의 자음에 속하지 않아서 일어난 교체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탈락이라고 보는 이의 제기가 있었으나, 하나의 자음 ‘ㄸ’이 다른 자음 ‘ㄱ’으로 바뀌었으므로 이는 탈락이 아니라 교체입니다. 따라서 답지 ③번은 올바른 설명입니다.

답지 ⑤번의 ‘뵈느[밤:닐]’에서 겹받침 ‘ㅃ’ 중 ‘ㄹ’이 탈락된 것은 겹받침 ‘ㅃ’이 7개의 자음에 속하지 않아서 ㉡이 적용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브’가 ‘ㅍ’으로 교체된 것은 ‘브’가 7개의 자음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난 것으로, 이것은 ㉠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비음화의 결과입니다. 즉 답지 ⑤번의 ‘뵈느[밤:닐]’은 ㉠을 지키기 위해 ㉡만 적용되었을 뿐 ㉢은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답지 ⑤번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18. 다음 글을 바탕으로 <보기>와 같은 실험을 했을 때, B에 해당하는 그래프로 알맞은 것은?

비중

| 모의 2014 9월 A형 21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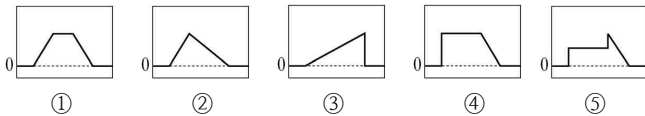
정답률 약 30%로 가장 어려웠던 문제다.
 뭐가 어려웠는지 찾아내서 외우자.
 또 나오면 또 어렵기 때문이다.

X선이 투과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투과율은 공기가 가장 높으며 지방, 물, 뼈의 순서로 낮아진다. 또한 투과된 X선의 세기는 통과한 조직의 투과율이 낮을수록, 두께가 두꺼울수록 약해진다.

X선 검출기로 인체를 투과한 X선의 세기를 검출하는데, 이때 공기를 통과하며 감쇄된 양을 빼고, 인체 조직만을 통과하면서 감쇄된 X선의 총량을 구해야 한다. 이것은 공기만을 통과한 X선 세기와 조직을 투과한 X선 세기의 차이를 계산하면 얻을 수 있고, 이를 환산값이라고 한다. 즉, 환산값은 특정 방향에서 X선이 인체 조직을 통과하면서 산란되거나 흡수되어 감쇄된 총량을 의미한다.

위의 그림처럼 단면이 정사각형인 물체 ㉓와 직각이등변 삼각형인 물체 ㉔가 연결된 를 CT 촬영기 안에 넣고 촬영하여 A, B, C 방향에서 구한 환산값의 크기를 그래프로 나타냈다. 이때 ㉓의 투과율은 ㉔의 2배이다.

- * X선은 화살표와 같이 평행하게 진행함.
- * 물체 의 밀면을 기준으로 A는 0° 방향, B는 45° 방향, C는 90° 방향의 위치에 있음.



풀이 두 물체 두께의 변화가 일어나도 총합은 같다.

적용 알맞은 그래프를 고르라는 문제이다. 그래프의 뜻을 찾아보자.

보기 : '환산값'의 크기를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그래프는 '환산값'을 나타낸다.

지문에서 '환산값'의 뜻을 찾아보자.

지문 : 환산값은 / X선이 인체 조직을 통과하면서 / 산란되거나 흡수되어 '감쇄된 총량'을 / 의미한다.

환산값은 '감쇄된 총량'이다.

<보기>에 '투과율'이 있다. 지문에서 '투과율'의 뜻을 찾아보자.

지문 : X선이 투과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 투과율

투과율은 '투과되는 정도'이다.

환산값을 알려면 환산값과 투과율의 관계를 알아야 한다.

환산값과 투과율은 음의 상관관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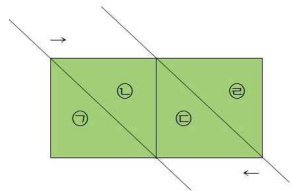
<보기>를 보자.

보기 : ㉠의 투과율은 / ㉡의 2배이다.

㉠의 투과율이 ㉡의 투과율의 2배라면, 환산값은 음의 상관관계니까,

㉡의 환산값이 ㉠의 환산값의 2배가 된다.

그림을 다시 그려보자.



㉠과 ㉡은 가운데로 갈수록 두께가 커진다. 두께가 커진다면, 투과율이 낮아지는 것이고, 투과율이 낮아질수록 환산값은 커진다.

그리고 ㉠과 ㉡이 두꺼워지는 정도는 일정하므로, 환산값이 커지는 정도도 일정할 것이다. ㉠과 ㉡이 같은 양으로 커지는 것은 ㉠이다.

㉠의 중간 부분은 왜 평평할까?

㉠의 두께가 얇아질 때, 동시에 ㉡의 두께는 두꺼워지기 때문이다.

즉, 비중이 바뀔 뿐, ㉠과 ㉡이 겹치는 부분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으니 평평하다. 따라서 답은 ㉠이다.

발생기에서 나온 X선	
A	공기 통과한 X선 (B)
	C 조직 통과한 X선 (D)

A : 공기에 의해 감쇄된 X선

C : 조직에 흡수 산란되어 감쇄된 X선(환산값)

D : 투과율

감쇄량이 적을수록 조직을 통과한 X선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

투과율(+)	환산값(-)
X선의 세기(+) 두께(-)	역투사 결핍(-)

결론 **답①**

1. <보기 1>의 A와 B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르면?

고전 역학은 20세기 초까지 물리학자들이 세계를 기술하던 기본 이론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정을 포함한다. 물리적 속성에 대한 측정의 대상의 다른 물리적 속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정과 물리적 영향은 빛의 속도를 넘지 않고 공간을 거쳐 전파된다는 가정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돌의 단단한 정도를 측정한다고 해서 그 돌의 색깔이 변하는 것은 아니며, 돌이 유리창을 향해 날아가는 순간 유리창이 '미리 알고' 깨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전 역학의 가정은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양자 역학은 고전 역학보다 더 많은 현상을 정확하게 예측함으로써 고전 역학을 대체하여 현대 물리학의 근간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역학이 예측하는 현상들 중에는 매우 불가사의한 것이 있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양자 역학에 따르면, 같은 방향에 대한 운동량의 합이 0인 한 쌍의 입자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그 연관을 유지한다. 이제 이 두 입자 중 하나는 지구에 놓아두고 다른 하나는 금성으로 보냈다고 가정하자. 만약 지구에 있는 입자의 수평 방향 운동량을 측정하여 +1을 얻었다면, 금성에 있는 입자의 수평 방향 운동량이 -1이 된다. 도대체 그렇게 멀리 떨어진 입자가 어떻게 순간적으로 지구에서 일어난 측정의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

또한 양자 역학에 따르면 서로 다른 방향의 운동량도 연관되어 있다. 예컨대 수평 방향 운동량과 수직 방향 운동량은 하나를 측정하면 다른 하나가 영향을 받는다. 그 결과 지구 입자의 수평 운동량을 측정하여 +1을 얻은 후 연이어 수직 운동량을 측정하고 다시 수평 운동량을 측정하면, 이제는 +1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1과 -1이 반반의 확률로 나온다. 두 번째 수직 방향 측정이 수평 운동량 값을 불확정적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게다가 지구 입자는 금성 입자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금성 입자의 수평 운동량을 측정하여 -1을 얻은 후 지구 입자의 수직 운동량을 측정하면, 그 순간 금성 입자의 수평 운동량 값 역시 불확실해진다. 그래서 수평 운동량을 다시 측정하면 -1과 +1이 반반의 확률로 나온다. 어떻게 지구에서 이루어진 측정이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입자의 물리적 속성에 순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 현상에 대해 고전 역학의 가정을 만족시키면서 인과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이처럼 불가사의한 양자 현상을 실험적으로 검증하기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1980년대에 이루어진 아스펙의 일련의 실험 이후, 이러한 양자 현상이 미시적인 세계에서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방향

| 수능 2004 45 | ★★★★★

어려운 문제는 매번 두 방향이 나왔다.
출제자가 묻는 것은 두 방향 비교이다.

양자 구슬 한 쌍을 생각하자. 이 두 구슬은 뜨겁거나 차갑고, '당' 소리나 '땡' 소리가 난다. 구슬의 온도와 소리라는 두 물리적 속성은 위 글에서 소개된 양자적 특징을 갖는다. 이제 구슬 하나는 내가 가지고, 다른 구슬은 친구에게 주어 멀리 보냈다고 하자. 내가 구슬을 두드려 보니 '당' 소리가 났다. 그런 후 내 구슬을 만져 보니 뜨거웠다. 그리고 구슬을 다시 두드려 보니 (A) 소리가 났다. 그 순간 멀리 있는 친구가 구슬을 두드린다면 (B) 소리가 날 것이다.

	A	B
ㄱ.	'당'	'당'
ㄴ.	'당'	'땡'
ㄷ.	'땡'	'당'
ㄹ.	'땡'	'땡'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풀이 <보기>가 사례로 제시되어 있다. 사례 문제도 일치로 푼다.

먼저 지문을 정리하자.

지문은 양자 현상을 두 범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다.
하나는 '같은 방향'일 때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방향'일 때이다.

같은 방향일 때

지문 : 같은 방향에 대한 운동량의 합이 0인 한 쌍의 입자는 / 아무리 멀리 떨어
져도 / 그 연관을 유지한다.

지문 : 만약 지구에 있는 입자의 수평 방향 운동량을 측정하여 +1을 얻었다면 /
금성에 있는 입자의 수평 방향 운동량이 -1이 된다.

같은 방향: 합이 0을 유지한다.

지구 수평 방향 운동량 +1

금성 수평 방향 운동량 -1

다른 방향일 때

지문 : 서로 다른 방향의 운동량도 / 연관되어 있다.

지문 : 지구 입자의 수평 운동량을 측정하여 +1을 얻은 후 / 연이어 수직 운동량
을 측정하고 다시 수평 운동량을 측정하면 / 이제는 +1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
+1과 -1이 반반의 확률로 나온다. / 두 번째 수직 방향 측정이 / 수평 운동량
값을 / 불확정적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지문 : 금성 입자의 수평 운동량을 측정하여 -1을 얻은 후 / 지구 입자의 수직
운동량을 측정하면 / 그 순간 금성 입자의 수평 운동량 값 역시 / 불확실해진다.
/ 그래서 수평 운동량을 다시 측정하면 / -1과 +1이 반반의 확률로 나온다.

다른 방향: (지문에 합이 0을 유지한다는 말이 없다)

지구 수평 방향 운동량 +1

지구 수직 방향 운동량 ?

지구 수평 방향 운동량 +1 또는 -1

∴ 다른 방향은 두 번째 측정값에 영향을 준다.

금성 수평 방향 운동량 -1

지구 수직 방향 운동량 ?

금성 수평 방향 운동량 -1 또는 +1

∴ 다른 장소는 두 번째 측정값에 영향을 안 준다.

같은 방향과 다른 방향의 차이점은 두 번째
측정값이 다르다는 것이다.

같은 방향일 때 두 번째 측정값 : 처음 측
정값과 합이 0이 되는 하나의 값만 나온다.

다른 방향일 때 두 번째 측정값 : 처음 측
정값의 +, - 값 중 하나의 값만 나온다.

적용 <보기>와 지문을 연결한다.

‘두드린다’, ‘만진다’는 것은 지문에서 측정이라고 할 수 있다.
측정 결과는 두드릴 때는 ‘딩 땡’, 만질 때는 ‘뜨겁거나 차갑다’이다.

두드린다, 만진다 : 측정
딩, 땡 / 뜨겁다, 차갑다 : 측정 값

뜨거운 것의 반대는 차가운 것이고, 이는 측정 결과이므로 ‘뜨겁다, 차갑다’는 지문의 +1, -1에 해당한다. ‘딩’의 반대가 ‘땡’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딩 땡’도 ‘뜨겁거나 차다’와 같은 측정값일 것이므로 ‘딩, 땡’도 지문의 +1, -1에 해당한다.

그럼 ‘온도’와 ‘소리’는 지문에서 뭘까? 다른 방향이다.
온도가 수평 방향이고 소리가 수직 방향일 수도 있고,
온도가 수직 방향이고, 소리가 수평 방향일 수도 있다.

지문 : 내가 구슬을 두드려 보니 ‘딩’ 소리가 났다. / 그런 후 내 구슬을 만져 보
니 뜨거웠다. / 그리고 구슬을 다시 두드려 보니 (A) 소리가 났다.
구슬을 두드리고 난 후 만졌다는 것은 / ‘방향이 다르다’는 거다.
따라서 지문의 **서로 다른 방향**을 적용하면 되겠다.

지문 : 다른 구슬은 친구에게 주어 / 멀리 보냈다
‘멀리 보낸 것’은 지문에서 ‘지구-금성’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문 세 번째 사례>를 적용하면 되겠다.

<지문 세 번째 사례>
금성 수평 방향 운동량 -1
지구 수직 방향 운동량 ?
금성 수평 방향 운동량 -1 또는 +1

처음 측정하는 것이 ‘수평 방향’이므로
소리를 수평 방향이라 하고, 온도를 수직 방향이라고 가정하자.

‘구슬을 두드려보니 / ‘딩’ 소리가 났다’는 것은 ‘수평 방향으로 -1’이다.
‘내 구슬을 만져보니 뜨거웠다’는 것은 ‘수직방향으로 ?’이다.
다시 두드린다면? ‘수평 방향으로 -1 또는 +1’이다.
측정값 ‘-1, +1’은 보기 말로 ‘딩, 땡’이므로
∴ A는 ‘딩 땡’이다.

두드렸다 : 딩 -1
만졌다 : 뜨거웠다 (⇒ 지문에 없음)
두드렸다 : 딩(-1) 또는 땡(+1)

지문 : 그 순간 멀리 있는 친구가 구슬을 두드린다면 / (B) 소리가 날 것이다.
‘순간’은 동시다. ‘그 순간’은 각각의 동시를 뜻한다.
따라서 B는 A의 딩(-1)과 동시에 발생하는 측정값이고,
B는 A의 땡(+1)과 동시에 발생하는 측정값이다.

-1이 ‘딩’이고, +1이 ‘땡’이면 합인 0은 뭘
까? 어떤 소리일까? “딩땡”의 ‘동’일까?
딩땡을 엮두에 두고 출제 했는지는 알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두드려 소리를 낸
그 순간, 다른 곳의 소리는 같은 방향이고,
각각 반대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A와 B는 ‘소리’를 낸다고 한다. 소리와 소리가므로 **같은 방향**이다.
같은 방향의 경우 합이 0을 유지한다.
-1(딩)의 합 0은 +1(땡)이고, +1(땡)의 합 0은 -1(딩)이다.
∴ B는 ‘땡 딩’이다.

두드렸다 : 딩 -1
만졌다 : 뜨거웠다? (지문에 없음)
두드렸다 : 딩(-1) 또는 땡(+1)
 ↓ ↓
 땡(+1) 또는 딩(-1)

결론 **답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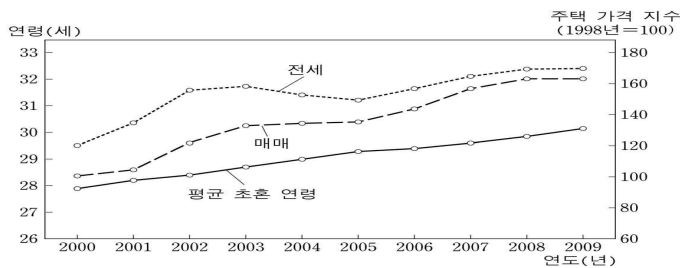
6.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오늘 수업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글을 읽었는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어서인지 다들 식상해 했다. 그래서 나는 관점을 조금 바꾸어, 저출산의 주요 원인인 결혼이 늦어지고 있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글을 쓰려고 해. 그러려면 먼저 결혼이 늦어지고 있는 실태와 관련된 통계 자료를 보여 주어야겠지. 그리고 미혼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와 인터뷰를 통해서 원인을 분석해 보아야겠지. 결혼할 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결혼 비용, 일자리의 양과 질에 대한 통계 자료를 통해 분석을 뒷받침하는 것도 좋을 거야. 이를 통해 결혼이 늦어지는 사회적 원인을 찾으면, 우리 사회에서 노력해야 할 방향도 제시할 수 있어.

표 그래프

| 예비 2014 B형 8 | ★★★★★

(가) 주택 가격 지수와 결혼 연령



(나) 결혼 연기 이유에 대한 설문 조사 (단위 : %)

		남	여
경제적 요인	불안정한 직장	17.8	5.3
	낮은 수입	13.0	7.9
	결혼 비용 부담	19.2	15.8
개인적 성취를 위해서		11.0	10.5
부모나 결혼 상대자의 반대		16.4	17.1
결혼에 대한 두려움		8.9	22.4
기타		13.7	21.0
합계		100.0	100.0

- ① (가)와 달리 (나)를 해석할 때는 **변화의 추이**에 주목해야 한다.
- ② (가)는 주택 가격이 결혼 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밝힌 **후에야** 논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③ (가)를 논거로 활용할 때는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 ④ (나)에서 '경제적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사회적 요인'으로 묶어서 해석해야 한다.**
- ⑤ (나)에서 남녀의 차이가 큰 항목들은 글의 방향과 관련이 없으므로 논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풀이 표 · 그래프 읽는 법 : 차이나 추이나?

표는 <항목 간 차이>를 보여 주기 좋다. 그래프는 <변화의 추이>를 보여 주기에 좋다. 만드는 사람이 이런 의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읽는 사람도 이런 의도를 살려서 읽으면 된다.

단, 표에 '연도' 등 시간 변화를 나타내는 항목이 있을 경우, 표도 '변화의 추이'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이때는 '변화의 추이'도 읽어야 하며, 그래프도 여러 그래프가 함께 있는 경우, '그래프 간에 '항목 간 차이'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이때는 '그래프 간 차이'도 읽어야 한다.

표 · 그래프 읽는 법 : 이분하기

표에는 가로 항, 세로 항이 있고, 그래프도 가로 축, 세로 축이 있다. 가로 항과 세로 항을 둘로 이분하라. 가로 축과 세로 축도 둘로 이분하라. 이분해야 '항목 간 차이'와 '변화의 추이'를 읽을 수 있다.

적용 ② 선택지 : (가)는 / 주택 가격이 결혼 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밝힌 '후에야' / 논거로 사용할 수 있다.

항목 간 차이는 <표>에서 읽어내야 할 내용이다. 그러나 <그래프>의 경우에도 그래프가 여럿일 경우, 각 그래프를 항목으로 취급하여 그래프 간 차이를 따져야 한다. 이때 각 그래프의 뜻이 나온다. ∴ 일치

① 선택지 : (나)를 해석할 때는 / 변화의 추이에 주목해야 한다.

(나)는 표이고, 변화의 추이는 그래프이다. ∴ 불일치

③ 선택지 : (가)를 논거로 활용할 때는 /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간의 '상관관계'를 /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가)의 제목이 '주택 가격 지수와 결혼 연령'이므로 <주택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상관관계가 아니라, <주택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과 <평균 초혼 연령>의 상관관계를 따져야 한다. ∴ 불일치

④ 선택지 : (나)에서 / '경제적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 '사회적 요인'으로 묶어서 / 해석해야 한다.

(나)만 보면 나머지 항목을 '사회적 요인'이라고 해도 틀려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지문을 보면 '사회적 요인'으로 묶으면 틀린 선택지가 된다. 지문에 '사회적 요인'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모를까, '사회적 요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뜻이 (나)의 항목들과는 다른 뜻이기 때문이다. ∴ 불일치

⑤ 선택지 : (나)에서 / 남녀의 차이가 큰 항목들은 / 글의 방향과 관련이 없으므로 / 논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차이가 큰 항목은 대개 글의 방향과 관련이 있다. ∴ 불일치 (차이가 큰 항목에 주제와 무관하다면 표가 이상한 것이다)

⑥ 내부 사이와 외부 사이는 다르다.

어떤 식당 사장은 손님을 직원 다루듯 한다. 먹는 방법을 일일이 간섭하고, 핀잔도 준다. 자기가 식당 직원과의 사이에서 주인인지, 손님과의 사이에서도 주인인가?

⑥ (나)에서 남녀의 차이가 큰 항목은?

불안정한 직업 - 약 3배 차이.
결혼에 대한 두려움 - 약 2.5배 차이.
낮은 수입 - 약 2배 차이.
이런 이유들은 '결혼이 늦어지는 사회적 원인'과 상관이 없을까? '불안정한 직업'과 '낮은 수입'은 '경제적 요인'에 포함된 것이므로, 글의 방향과 상관이 있다.

결론 답②

[수능 2015-A]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해사살 피여
 이옥한* 후,

 머흘 머흘
 골을 옮기는 구름.

 길경(桔梗)* 꽃봉오리
 흔들려 씻기우고.

 차들부리
 축 축 죽순(竹筍) 돋듯.

㉠ 물 소리에
 이가 시리다.

얇음새 같히여
 양지 쪽에 쪼그리고,

서러운 새 되어
 흰 밥알을 쫓다.

- 정지용, 「조찬(朝餐)」 -

* 이옥한 : 시간이 지난 * 길경 : 도라지.

(나)
 파초는 언제 보아도 좋은 화초다. 폭염 아래서도 그의 푸르고 싱그러운 그들은, 눈을 씻어 줌이 물보다 더 서늘한 것이며 비 오는 날 다른 화초들은 입을 다문 듯 우울할 때 파초만은 은은히 빗방울을 통기어 주렴(珠簾) 안에 누웠으되 듣는 이의 마음 위어까지 비는 뿌리고도 남는다. ㉡ 가슴에 비가 뿌리되 옷은 젖지 않는 그 서늘함, 파초를 가꾸는 이 비를 기다림이 여기 있을 것이다.

오늘 앞집 사람이 일찍 찾아와 보자 하였다. 나가니

“거 저 큰 파초 파십시오.” 한다.

“팔다니요?”

“저거 이제 팔아 버려야 합니다. 저렇게 꽃이 나온 건 다 큰 표구요, 내년엔 영락없이 죽습니다. 그건 제가 많이 당해 본 걸입쇼.” 한다.

“죽을 때 죽더라도 보는 날까진 봐야지 않소?”

“그까짓 인제 뒤 달 더 보자구 그냥 두세요? 지금 팔면 올엔 파초가 세가 나 저렇게 큰 건 오 원도 더 받습니다 …… 누가 마침 큰 걸 하나 구한다뇨 그까짓 슬쩍 팔아 버리시죠.”

생각하면 고마운 말이다. 이왕 죽을 것을 가지고 돈이라도 한 오 원 만들어 쓰라는 말이다. 그러나 나는 마음이 열른 쏠리지 않는다.

“그까짓 거 팔아 뭘 허우.”

“아, 오 원쯤 받으셔서 미담이에 비 뿌리지 않게 챙*이나 해 다시죠.”

그는 내가 서재를 짓고 챙을 해 달지 않는다고 자기 일처럼 성화하던 사람이다.

나는, 챙을 하면 파초에 비 맞는 소리가 안 들린다고 몇 번 설명하였으나 그는 중시 객쩍은 소리밖에 안 듣는 모양이었다. 그는 오늘 오후에도 다시 한 번 와서

“거 지금 좋은 작자가 있는덟쇼…….” 하고 입맛을 다시었다. 정말 파초가 꽃이 피면 열대 지방과 달라 한번 말랐다가는 다시 소생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 마당에서, 아니 내 방 미담이 앞에서 나와 두 여름을 냈고 이제 그 발육이 절정에 올라 꽃이 핀 것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 이태준, 「파초」 -

* 챙 : 햇빛이나 비를 막기 위해 처마 끝에 덧붙이는 좁은 지붕.

주제 (가)와 (나)의 공통점은 비(雨)다. (가)에서 비는 우울하고, (나)의 비는 시원하다. (가) 시의 시인은 아마 우물가에서 밥알을 쫓는 새를 봤을 것이다. 이 높은 원래 자연 속에서 살 놓이지 (인간이 설거지 한 후 남은) 밥알이나 주워 먹는 놈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새가 마치 자기 자신 같다고 시인은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서러운’ 것이다. 자신이 서러워지니 비(雨)마저 서러워졌다. (나)를 보자. (가)에서 ‘서러운 새’를 화자 자신이라고 했듯이, (나)의 파초 역시 작자 자신이라고 할 수 있다. 파초는 돈을 밝히는 세상에서 시나 꼬적거리는 작가의 분신일 수 있다.

(가), (나)의 주제는 **자연**이다. 그런데 (가)의 자연은 우리가 평소 알던 자연이 아니다. 통념상 자연은 어머니 같은 자연이고 자연 속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자연이다. (가) 시는 이러한 통념을 뒤집는다. 자연에서 굶주려 밥알을 쫓아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나)의 자연은 상식적이다. 자연은 넉넉하며 오히려 인간이 돈에 얽매어 있다. 그러므로 (가)에서는 자연은 새를 굶주리게 하므로 (-), 인간은 새를 먹이므로 (+)이고, (나)에서는 자연이 (+), 인간이 (-)이다.

범주 (가)는 (+)(-) 두 범주로 나뉜다. 1~4연까지가 변화무쌍한 자연의 모습이다. 땅 위로 살짝 모습을 드러낸 차들부리가 비를 맞아 ‘축 축’해졌다. 그 모습이 마치 차들부리가 생명이 있어 땅 위로 올라온 것 같고, 그래서 죽순 같단다. 5~7연은 인간 세상에 내려와 초라해진 자아의 모습이다. (나)도 (+)(-) 두 범주로 나뉜다. 파초를 그냥 좋아하는 ‘나’와, 파초를 써먹으려고 하는 ‘앞집 사람’이다.

1.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선경후정의 방식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모든 연을 2행으로 구성하여 형태적 통일성을 추구하고 있다.
- ③ 제2연에서는 명사로 연을 마무리하여 사물의 정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제2연에서 제3연으로 전개되면서 화자의 시선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고 있다.
- ⑤ 제4연에서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사물에 동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

풀이 묻는 말 주변에 묻는 말에 대한 설명이 있다.

적용 ③ 선택지 : 제2연에서는 명사로 연을 마무리하여 / 사물의 '정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지문 : 머물 머물 곁을 '옮기는' / 구름.

'구름'의 뜻은 무엇일까? 구름을 뺀 나머지 말이 구름의 뜻이다. (x=y)

'구름'의 뜻은 '머물 머물 곁을 옮기는 무엇'이다.

'머물 머물'이 무슨 뜻인지 모르더라도 '옮기는'이 있기 때문에,

'구름'을 정적이라고 할 수 없다. 옮긴다면 동적이다.

선택지는 구름을 정적이라고 하므로 ∴ 불일치

결론 **답 ③**

x=y

'='의 의미는 x와 '관련되고 연관되고 x를 설명하고 서술하는' y라는 뜻이다.

나는 x=y라는 시 읽는 공식을 수능 2004 19번을 보고 만들었다. 너도 19번 선택지를 읽어보라. 아~ 할 것이다. 시는 이렇게 읽어야 하는 구내! 할 것이다.

2.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청각을 촉각으로, ㉡은 촉각을 시각으로 전이시키고 있다.
- ② ㉠은 화자가 '구름'을, ㉡은 '나'가 '폭염'을 기다리는 이유를 나타내고 있다.
- ③ ㉠은 화자의, ㉡은 '나의 감각적 경험이 정서를 자극하는 양상을 표현하고 있다.
- ④ ㉠은 '물과 화자의 공통점을, ㉡은 '파초와 '다른 화초'의 공통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은 화자가, ㉡은 '나'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미래를 기대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자극 (내외, 선후, 방향)

| 수능 2015 A형 32 |

풀이 자극은 외부에서 내부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적용 ㉢ 선택지 : ㉠은 화자의, ㉡은 나의 / 감각적 경험이 / 정서를 '자극'하는 양상을 / 표현하고 있다.

선택지를 끊어 읽으면 문장의 구조가 보이고, 문장의 구조가 보이면 일치시키기도 쉽다. 선택지를 두 문장으로 쪼개보자.

㉠은 화자의 / 감각적 경험이 정서를 자극하는 양상을 표현하고 있다.
 ㉡은 나의 / 감각적 경험이 정서를 자극하는 양상을 표현하고 있다.

'감각적 경험이 정서를 자극한다'라는 표현이 공통된다. 자극이므로, 감각적 경험이 먼저 외부에 있고, 정서는 나중에 내부에 생겨야 하고, 그리고 그 방향은 밖에서 안으로 이어야 한다.

㉠ 물 소리에 / 이가 시리다.
 ㉡ 가슴에 비가 뿌리되 / 옷은 젖지 않는 그 서늘함,

㉠ : '물 소리'는 감각적 경험이고, '이가 시리다'는 정서이다.
 ㉡ : '가슴에 비를 뿌리다'는 감각적 경험이고, '옷이 젖지 않는 서늘함'은 정서이다.

내외, 선후, 방향이 일치하므로 자극이다. ∴ 일치

자극은 외부에서 내부를 변화시키는 것이므로 자극은 **내외** 개념이고, 자극하려면 외부가 먼저 있어야 하므로 자극은 **선후** 개념이고, 자극의 방향은 외부에서 내부로 이므로 자극은 **방향** 개념이다.

㉠	물소리	이가 시리다
공간	외부	내부
시간	선先	후後
방향	출발	도착

㉡	가슴에 비를 뿌리다	옷이 젖지 않는 서늘함
공간	외부	내부
시간	선先	후後
방향	출발	도착

결론 **답㉢**

3.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지용과 이태준은 자연에 대한 관심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다. 정지용은 「조찬」 같은 후기 시에서 자연을 초월과 은둔을 꿈꾸는 이상적 세계로 묘사하고 그에 대한 지향을 드러낸다. 하지만 자연은 현실의 번뇌와 억압으로 인해 그러한 지향이 좌절되는 공간으로도 나타난다. 한편 이태준은 「파초」 같은 수필에서 자연물과의 교감을 시도한다. 그에게 자연물은 속물적인 현실과 거리를 두게 하는 대상이며, 그는 그것들에 대해 심미적 감상의 태도를 드러낸다.

- ① (가)의 '흰 밥알'은 자연 속에서도 떨어 버릴 수 없는 현실의 무게를 나타내고, (나)의 '쟁'은 '나에게 속물적인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는 대상이군.'

-에서 벗어나게 하다 (부정)

| 수능 2015 A형 33 |

<보기>는 '「조찬」 그러나 「파초」' 형식이다. 「조찬」의 자연은 (-)이고 「파초」의 자연은 (+)이다.

	자연	인간
「조찬」	-	+
「파초」	+	-

「파초」의 자연은 우리의 상식과 일치하고, 「조찬」의 자연은 우리의 상식을 깨뜨린다. 우리는 i) 이상과 현실은 분리되어 있고, ii) 이상을 이루면 즉, 자연 안에 들어가면 현실의 근심 따위는 사라진다고 믿는다. 그런데 「조찬」은 이상향인 자연 속에 들어와 있음에도 여전히 현실의 문제가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풀이 'A는 B에서 벗어나게 한다'에서 A는 (+), B는 (-)이다.

적용 ❶ 선택지 : (가)의 흰 밥알은 자연 속에서도 떨어 버릴 수 없는 현실의 무게를 나타내고, (나)의 '쟁'은 나에게 '속물적인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는 대상이군.
속물적 현실은 (-)이므로 속물적 현실을 벗어나게 하는 것은 (+)이다. 따라서 선택지는 '쟁'을 (+) 단어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문에서 '쟁'은 '파초'와 대비되는 단어이다.
지문에서 '쟁'은 (-)인데, 선택지는 '쟁'을 (+)라고 하므로 ∴ 불일치

우리들의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이, 이별이 있어야 하네.
- 서정주, 「견우의 노래」 중에서 -

결론 **답 ❶**

제주도의 푸른 밤

사람들이 제주도로 러쉬하고 있다. 제주도가 살기 좋은가? 도시에서 짜들일 대로 찌든 사람이라면 계속 제주도에 살았으면 할 것이다. 그러나 여행하기 좋은 곳과 살기 좋은 곳은 다르다. 자연 속에서 계속 살아보라. 이상이 말한 것처럼 자연은 권태롭다. 녹색의 공포가 밀려올 것이다. 도시에 사는 사람은 전원생활을 꿈꾸지만, 전원생활을 꿈꾸는 이유는 현재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과 사실에 대한 인식은 다르다. 사실은 있는 것이고, 사실에 대한 인식은 없다가 생겨난 것이다. 자연, 고향, 신, 사랑, 과거는 언제 생겨나는가? 자연은 원래부터 있던 것이지만, 자연에 대한 인식은 자연을 떠났을 때 생겨난다. 고향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있던 것이지만, 고향에 대한 인식은 내가 고향을 떠났을 때 생겨난다. 신은 인간이 신을 떠났을 때 신이 신으로 인식되고, 사랑은 이별한 후에 그것이 사랑이었음을 인식된다. 과거라는 인식은 현재와 분리되었을 때 생겨난다. 사실은 불변하고 인식은 가변적이다. (1권 예제이 고향/과거/신/사랑은 언제 생기는가? 참조)

[수능 2015-B]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흙이 풀리는 내음새
 강바람은
 산짐승의 우는 소리 불러
 ㉠ 다 녹지 않은 얼음장 울멍울멍 떼내려간다.

진중일
 나룻가에 서성거리다
 행인의 손을 쥐면 따듯하리라.

고향 가차운 주막에 들러
 ㉡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라.
 양귀비 끊어다 놓고
 주인집 늙은이는 공연히 눈물지운다.

간간이 젠나비 우는 산기슭에는
 아직도 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고
 설레는 바람이 가랑잎을 휩쓸어간다.

예제로* 떠도는 장꾼들이여!
 상고(商賈)하며 오가는 길에
 ㉢ 흑여나 보셨나이까.

전나무 우거진 마을
 집집마다 누룩을 디디는 소리, 누룩이 뜨는 내음새……
 - 오장환, 「고향 앞에서」 -

(나)
 귀향이라는 말을 매우 어설피하며 마당에 들어서니 다리를
 저는 오리 한 마리 유난히 허둥대며 두엄자리로 도망간다. ㉣
 나의 부모인 농부 내외와 그들의 딸이 사는 슬레이트 흙담집,
 겨울 헤어림의 ㉤ 집 안에 아무도 없고 방바닥은 선풍한 냉동
 이다. 여덟 자 방구석엔 고구마 뒤주가 여전하며 벽에 메주가
 매달려 서로 박치기한다. 허리 굽은 어머니는 냇가 빨래터에서
 오셔서 콩깍지로 균분을 피우고 동생은 면에 있는 중학교에서
 돌아와 반기워한다. 닭똥으로 비료를 만드는 공장에 나가 일당
 서울 광주 간 차비 정도를 버는 아버지는 한참 어두워서야 귀
 가해 장남의 절을 받고, 가을에 이웃의 텃밭에 나갔다 팔매질
 당한 다리병신 오리를 잡는다.

- 최두석, 「낡은 집」 -

* 예제로 : 여기저기로.

주제 (가) 시와 (나) 시의 공통점은 고향이다. (가) 시의 제
 목은 ‘고향에서’가 아닌 ‘고향 앞에서’이므로 (가) 시의 화자
 는 고향 밖에 있다. 반면 (나) 시의 화자는 고향 안에 있다.

(가), (나)의 주제는 **고향**이다. 그런데 (나)의 고향은 우리
 가 평소에 알던 고향이 아니다. 통념상 고향은 어머니 같은
 고향이고, 언제나 넉넉한 고향이다. (나) 시는 고향의 통념을
 뒤집는다. (나)의 고향은 고향 같지 않은 고향인 것이다. 반
 면 (가)의 고향은 상식적이다. (가)의 고향은 넉넉하다.

왜 그럴까? 고향 밖과 안의 차이이다. 고향 밖에서 고향을
 생각할 때 고향은 그리운 곳이지만, 막상 고향 안에 들어가
 면 고향은 거리감이 느껴지는 곳일 뿐이다. 이것이 이상(관
 념)과 현실의 괴리이다.

이상은 멀리 있어야 아름답다. 이성복 시인은 “아직 서해엔
 가 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거기 계시지 모르겠기에”
 라고 했다. 꿈에 그리던 이가 거기 계시면 거기에 가야지.
 왜 가지 않겠다고 할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찾아가서
 뽀뽀하고 사랑을 나누야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을 품고 사는 것이 더 행복일 수도
 있다. 고향이든 사랑이든 **떨어져 있을 때 아름다운 것이다.**

범주 (가) 시는 하나의 범주다. 고향 근처의 행인의 손이 따
 뜻한 이유는 고향 근처이기 때문이고, 주인집 늙은이가 공연
 히 눈물짓는 이유도 고향 근처이기 때문이다. 고향은 일단
 무조건 (+) 공간이기에 고향 근처의 모든 사람도 (+)이다.

(나) 시도 하나의 범주이다. 화자는 귀향을 ‘어설피’ 한다.
 그 어설피하는 모습이 ‘허둥대는’ 오리를 닮았다. 오리는 왜
 허둥떨까? 이웃의 텃밭에 들어갔다가 돌에 맞았기 때문이다.
 오리를 화자의 분신으로 본다면 화자는 지금 고향에 들어와
 서 돌팔매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고향이라고 왔는데 남의
 고향 같기 때문이다. 정지용 시인이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
 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려뇨.”라 말한 것처럼 말이다.

4. (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화자는 낯선 행인에게서 친근감을 기대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익숙했던 공간에 들어서며 낯선 느낌을 받는다.
- ② (가)의 화자는 아직도 조상의 권위가 지속되는 공간을, (나)의 화자는 여전히 가난이 지속되는 공간을 벗어나고자 한다.
- ③ (가)의 화자는 세상이 변해도 각박한 인심이 여전함에 좌절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세상이 변해도 인심은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 ④ (가)의 화자는 떠돌아다니는 자신의 처지를 통해, (나)의 화자는 공장 노동자로 전락한 농민의 처지를 통해 삶의 무상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의 화자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농촌의 모습이 보존되기를 희망하고, (나)의 화자는 산업화를 통해 농촌의 모습이 변화되기를 희망한다.

풀이 과거와 현재가 일치하여야 한다.

적용 ① 선택지 : (나)의 화자는 익숙했던 공간에 들어서며 낯선 느낌을 받는다.
 ‘익숙했다’는 과거에 익숙했다는 말이고,
 ‘낯선 느낌을 받는다’는 현재 낯설다는 말이다.

(나) 시에서 고향에 대한 인식은 과거와 현재가 다르다.
 과거의 고향은 익숙했지만, 지금의 고향이 익숙하지 않고 낯설다.
 시제가 일치하므로 ∴ 일치

결론 답①

이번 수능 현대시가 어려웠던 이유는 ‘고향’도 변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이다. (가)의 고향은 변하지 않는 고향이다. 이런 고향이 상식적인 고향이다. 그러나 (나)의 고향은 변하는 고향이다. 고향은 과거에만 있을 뿐, 관념적으로만 (머릿속에만) 존재할 뿐, 과거의 고향은 현재 없다고 말한다.

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계절이 바뀌면서 얼음이 풀리는 강변 풍경을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② ㉡ : 꿈이 있던 시절을 함께 회상할 사람이 없는 아쉬움을 설의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 : 이리저리 떠돌며 고향에 가지 못하는 **장꾼들의 설움을 독백조로 토로**하고 있다.
- ④ ㉣ : 가족의 일원이면서도 자신의 가족을 객관화하여 지칭하고 있다.
- ⑤ ㉤ : 쓸쓸한 집 안의 정경 묘사를 통해 화자가 느끼는 심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풀이 행위자와 행위는 일치하여야 한다.

적용 ㉢ 선택지 : ㉢ : 이리저리 떠돌며 고향에 가지 못하는 '장꾼들의 설움을 / 독백조로 토로하고 있다.'

지문 : 예제로(여기저기로) 떠도는 장꾼들이여!

상고(商賈)하며 오가는 길에

㉢ 혹여나 보셨나이까.

설움을 독백조로 토로하는 이는 장꾼들이 아니라 화자이다.

선택지는 화자라고 하므로 ∴ 불일치

결론 답㉢

6.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을 각박하고 차가운 현실과 대비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그곳으로 복귀하려는 것을 귀향의식이라고 한다. 이때 고향은 공동체의 인정과 가족애가 살아 있는 따뜻한 공간으로 표상된다. 이들의 기억 속에서 고향은 평화로운 이상적 공간으로 남아 있기도 하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가더라도 고향이 변해 있거나 고향이 고향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귀향은 미완의 형태로 남게 된다.

- ① (가)에서 주인공 늙은이의 슬픔에 공감하는 것을 보니, 화자는 타인과의 조화를 통해서 현실을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 귀향을 완성하려 하겠군.
- ② (가)에서 전나무가 울창하고 집집마다 술을 빚고 있는 모습으로 고향을 묘사한 것을 보니, 화자의 의식 속에서 고향은 평화로운 공간으로 기억되고 있겠군.
- ③ (나)에서 고향의 가족들이 궁핍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본 화자는 현재의 고향을 이상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겠군.
- ④ (나)에서 어머니가 군불을 피우고 아버지가 오리를 잡아 주는 것을 본 화자는 고향에 와서 가족애를 느낄 수 있겠군.
- ⑤ (가)에서는 고향을 앞에 두고도 고향 근처 주막에 머물고 있고 (나)에서는 고향에 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아 보인다는 점에서, 화자의 귀향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겠군.

풀이

‘만들다’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이고 (無 ⇨ 有)
 ‘완성’은 있는 것을 더 있게 하는 것이다. (有 ⇨ 有+)
 ‘만들다’와 ‘완성’은 시간 선후가 있으므로 변화 개념이다.
 변하지 않는 것(불변)에 ‘만들다’, ‘완성하다’라는 말을 쓸 수 없다.

적용 ❶ 선택지 : (가)에서 주인공 늙은이의 슬픔에 공감하는 것을 보니 / 화자는 타인과의 조화를 통해서 현실을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 / 귀향을 완성하려 하겠군.
 (가)의 고향은 변하는 고향이 아니다. 불변하는 고향이다.
 ‘만들다’, ‘완성하다’는 변화 개념이므로,
 변화 개념은 변화하는 대상에 대해서만 써야 한다. ∴ 불일치

결론 **답①**

만들다, 완성, 미완 (변화 불변)

| 수능 2015 B형 45 | ★★★★★

수능은 상식을 묻는 시험인데, 가끔 상식을 전복시킨 수준 높은 교양을 묻기도 한다. 이번 수능에서 B형 45번과, A형 33번이 그렇다. 고향을 뒤집는 문제이다.

변화와 불변 (시간)

변화와 불변은 시간 개념이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것을 불변이라고 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을 가변이라고 한다.

변화는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말이다.
 불변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같은 고향이지만, (가)의 고향은 불변하는 고향이고, (나)의 고향은 변하는 고향이다.

‘만들다’, ‘완성/미완’은 변화 개념이므로, 변화 개념은 변화 개념하고만 짝이 된다. (미완은 완성되지 않은 것일 뿐 완성처럼 변화 개념이다)

변화	불변
만들다	완전하고 영원하다
미완, 완성하다	(가)의 고향
(나)의 고향	(가)의 고향

다른 풀이 (조건화)

조건을 만들어서 일치시키면 쉽다. <보기>는 A but B 형식이다. A, B를 (가) (나)와 각각 연결해보자. B에 ‘미완’이라는 단어가 있다. ‘미완’은 (나)에 어울리는 단어이다. B가 (나)라면, A는 (가)다. [이상은 (가)]와, [미완은 (나)]와 한 묶음이다. 이를 잇갈리게 묶은 선택지가 오답!

‘완성’은 ‘미완을 완성하는 것’이므로 [완성도 (나)]와 한 묶음이다. 그런데 선택지 ①은 [완성을 (가)]와 묶으므로 ∴ 불일치

[수능 20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집에 가 보야 노루 꼬리만큼 짧다는 겨울 해에 점심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우리들은 학교가 파하는 대로 책가방만 던져 둔 채 때를 지어 선창을 지나 항만의 북쪽 끝에 있는 제분 공장에 갔다.

[A] 제분 공장 별 잘 드는 마당 가득 깔린 멍석에는 늘 덜 건조된 밀이 널려 있었다. 우리는 수위가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마당에 들어가 멍석의 귀퉁이를 밟으며 한 움큼씩 밀을 입 안에 털어 넣고는 다시 걸었다. 율율이 흘러져 대글대글 이빨에 부딪치던 밀알들이 달고 따뜻한 침에 의해 딱딱한 껍질을 불리고 속살을 풀어 입 안 가득 풀처럼 달라붙다가 제법 고무질의 길진 맛을 낼 때쯤이면 철로에 닿게 마련이었다.

우리는 밀검으로 푸우푸우 풍선을 만들거나 침목(枕木) 사이에 깔린 잔들로 비사치기를 하거나 전날 자석을 만들기 위해 선로 위에 얹어 놓았던 못을 뒤지면서 화차가 달기를 기다렸다.

드디어 화차가 오고 몇 번의 덜컹거림으로 완전히 숨을 놓으면 우리들은 재빨리 바퀴 사이로 기어 들어가 석탄 가루를 훑고 이가 벌어진 문짝 틈에 갈퀴처럼 팔을 들이밀어 조개탄을 후벼 내었다. 철도 건너 저탄장에서 밀차를 밀며 나오는 인부들이 시커멓게 모습을 나타낼 즈음이면 우리는 대개 신발 주머니에, 보다 크고 몸놀림이 잦싼 아이들은 시멘트 부대에 가득 석탄을 팔에 안고 낮은 철조망을 깨금발로 뛰어넘었다.

선창의 간이 음식점 문을 밀고 들어가 구석 자리의 테이블을 와글와글 점거하고 앉으면 그날의 노획량에 따라 가락 국수, 만두, 전빵 등이 날라져 왔다.

석탄은 때로 군고구마, 딱지, 사탕 따위가 되기도 했다. 어쨌든 석탄이 선창 주변에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있는 현금과 마찬가지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고, 때문에 우리 동네 아이들은 사철 검정 강아지였다.

해안촌(海岸村) 혹은 중국인 거리라고도 불리어지는 우리 동네는 겨우내 북풍이 실어 나르는 탄가루로 그늘지고, 거무죽죽한 공기 속에 해는 낮달처럼 희미하게 걸려 있었다.

할머니는 언제나 짙수세미에 아궁이에서 굶어 낸 고운 재를 문혀 번쩍 광이 날 만큼 대야를 닦았다. 아버지의 와이셔츠만을 따로 빨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바람을 들이지 않는 차양 안쪽 깊숙이 넌 와이셔츠는 몇 번이고 다시 행구어 푸새를 새로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망할 놈의 탄가루들. 못 살 동네야.

할머니가 혀를 차면 나는 으레 나을 뒤엎말을 받았다.

광석천이라는 냇물에서는 말이다. 물론 난리가 나기 전 이북에서지. 빨래를 하면 희다 못해 시퍼랬지. 어느 독(毒)이 그렇게 퍼렷겠니.

겨울방학이 끝나면 담임인 여선생은 중국인 거리에 사는 아이들을 불러 학교 숙직실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숙직실 부엌 바닥에 옷통을 벗겨 엮드리게 하고는 미지근한 물을 사정없이 끼얹었다. 귀 뒤, 목덜미, 발가락, 손톱 사이까지 탄가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왕소름이 돋은 등어리를 찰싹찰싹 때리는 것으로 검사를 끝냈다. 우리는 킬킬대며 살비듬이 푸르르 떨어지는 내의를 머리부터 뒤집어썼다.

봄이 되자 나는 3학년이 되었다. 오전반이었기 때문에 한낮인 거리를 치욕이와 나는 어깨동무를 하고 천천히 걸어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나는 커서 미용사가 될 거야.

삼거리의 미장원을 지날 때 치욕이가 노오란 목소리로 말했다.

회충약을 먹는 날이니 아침을 굶고 와야 해요. 선생의 지시대로 치욕이도 나도 빈속이었다.

공복감 때문일까, 산토닌을 먹었기 때문일까, 해안초 끓이는 냄새 때문일까. 햇빛도,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얼굴도, 치마 밑으로 펄럭이며 기어드는 사나운 봄바람도 모두 노오랬다.

길의 양편은 가건물인 상점들을 빼고는 거의 빈터였다. 드문드문 포격에 무너진 건물의 형해가 썩은 이빨처럼 서

있을 뿐이었다.

제일 큰 극장이었다.

조명판처럼, 혹은 무대의 휘장처럼 희게 회칠이 된 한쪽 벽만 고스란히 남아 서 있는 건물을 가리키며 치옥이가 소곤거렸다. 그러나 그것도 곧 무너질 것이다. 나란히 늘어선 인부들이 곡괭이의 첫 날을 댈 위치를 가늠하고 있었다. 어느 순간 희고 거대한 벽은 굉음으로 주저앉으리라.

한쪽에서는 이미 헐어 버린 벽에서 상하지 않은 벽돌과 철근을 ㉠ 발라 내고 있는 중이었다.

아주 쑥밭을 만들어 버렸다니까.

치옥이는 어른들의 말투를 흉내 내어 몇 번이고 쑥밭이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사람들은 개미처럼, 열심히 집을 지어 빈터를 다스렸다. 반 자른 드럼통마다 조개탄을 듬뿍 써서 해인초를 끓였다.

치옥이와 나는 자주 멈춰 서서 짹짹 침을 뱉어 냈다.

회충이 약을 먹고 지랄하나 봐.

아냐, 회충이 오줌을 싸는 거야.

그래도 메스꺼움은 가라앉지 않았다. 끓어오르는 해인초의 거품도, 조개탄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도, 해조(海藻)와 뒤섞이는 석회의 냄새도 온통 노란빛의 회오리였다.

왜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해인초를 쓰지? 난 저 냄새만 맡으면 머리털 뿌리까지 뽀하는 것처럼 골치가 아파.

치옥이는 내 어깨에 엇갈린 팔을 무겁게 내려뜨렸다. 그러나 나는 마냥 녹장을 부리며 천천히 걸어 해인초 냄새, 내가 이 시(市)와 나는 최초의 약수였으며 공감이었던 그 노란빛의 냄새를 들이마셨다.

- 오정희, 「중국인 거리」 -

주제 오정희의 「중국인 거리」는 **인물의 성격이 중요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전쟁을 배경으로 하지만, 전쟁이 주제는 아니다. 전쟁은 어른들의 세계일뿐이다. 주인공인 어린 소녀는 천진난만하게 그 폐허 속에서도 재미를 찾고 있다.

범주 지문은 두 범주로 나뉜다. 겨울과 봄이다. 통상의 상식과 다르게, 겨울이 (+)이고, 봄이 (-)이다.

44. 밑줄로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나의 가족은 삼대에 걸쳐 구성되어 있다.
- ② '중국인 거리'는 '내가 태어난 곳이 아니다.
- ③ 전쟁 후의 항구 도시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
- ④ '할머니'는 생활 환경을 불만족스럽게 여기고 있다.
- ⑤ 아이들은 먹을거리를 해결해야 할 상황을 힘겨워 한다.

범주 교차

| 수능 2004 29 | ★★★

「중국인 거리」는 두 범주로 나뉜다.

겨울	+
봄	-

풀이 두 개의 범주 안에 있는 내용을 엇갈리게 말하면 불일치이다.

지문은 '겨울'과 '봄'이라는 두 범주로 나뉜다.
통상의 경우 '봄'이 좋은 계절이고, '겨울'이 안 좋은 계절이다.
그러나 이 지문은 반대다. '겨울'이 좋고, '봄'이 안 좋다.
겨울이 (+)이고, 봄이 (-)이다.

'아이들의 먹을거리'가 언급된 부분은 '겨울'이다.
'겨울'은 (+)이므로 (+) 취급을 해 줘야 한다.

적용 ⑤ 선택지 : 아이들은 먹을거리를 해결해야 할 상황을 '힘겨워' 한다.
'힘겹다'는 말은 (-)이다. ∴ 불일치

⑥ '즐거워한다'로 바꿔야 지문과 일치한다.
'아이들은 먹을거리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스스로 먹을거리를 해결하면서 즐거워한다.'

결론 답⑥

45. 밑줄에서 '석탄'이 갖는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작품의 분위기에 생동감을 불어넣고 있다.
- ② 여러 장면을 묶어 주는 연결 고리가 된다.
- ③ 주인공의 심리를 드러내는 장치가 된다.
- ④ 인물들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 ⑤ 사건을 반전시키는 계기가 된다.

하나의 개념은 단수 (수)

| 수능 2004 30 | ★★

풀이 여러 이름으로 불리지만 하나의 개념일 경우 단수이다.

적용 ② 선택지 : '여러' 장면을 묶어 주는 연결 고리가 된다.

선택지를 완성된 문장으로 만들면
'석탄은 여러 장면을 묶어 주는 연결 고리가 된다'이다.

문학 선택지는 표현 부분과 효과 부분으로 나뉘는데,
'묶어주는 연결 고리'는 효과이다. 효과 부분은 주관적이다.
주관적이므로 '묶어 주는지 묶어 주지 않는지' 판단이 애매하다.

일치시키기 쉽게
'하나의 소재가 여러 장면에 등장하면 / 묶어 주는 연결 고리이다'
이렇게 보자.

'석탄'은 지문에서 '석탄 가루', '조개탄', '탄가루' 등으로 불리지만
하나의 개념이다. 하나의 소재(단수)가 여러 장면(복수)에 등장하므로
∴ 일치

결론 **답** ②

46. [A]를 <보기>와 같이 바꿔 썼을 때의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분 공장 별 잘 드는 마당 가득 깔린 멍석에는 늘 덜 건조된 밀이 널려 있었다. 우리는 수위가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마당에 들어가 멍석의 귀퉁이를 밟으며 한 움큼씩 밀을 입 안에 털어 넣고는 다시 걸었다. **울울이** 흘러져 대글대글 이빨에 부딪치던 **밀알들이** 달고 따뜻한 침에 의해 딱딱한 껍질을 불리고 속살을 풀어 입 안 가득 풀처럼 달라붙다가 제법 고무질의 질긴 맛을 낼 때쯤이면 철로에 닿게 마련이었다.

지금도 나는 가끔 그곳, 제분 공장의 마당을 떠올리곤 합니다. 슬레이트 지붕과…… 높다란 굴뚝이 있는 제분 공장, 펼쳐진 멍석에는 늘 덜 건조된 밀이 있었지요. 나이 많은 수위가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우리는 마당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멍석의 귀퉁이를 밟으며…… 한 움큼씩 털어 넣은 **밀알……**. **밀알**은 울울이 흘러지고, 대글대글 이빨에 부딪치곤 했지요. 딱딱한 껍질이, 달고 따뜻한 침에 녹아, 속살을 풀 때…… 입 안 가득…… 풀처럼 달라붙던 **밀알들**. 우리의 무료함을 달래 주던…… **밀알이** 제법 고무질의 질긴 맛을 낼 때쯤, 우리는 철로에 닿곤 했습니다.

- ① 회고조의 목소리가 두드러져 과거에 대한 향수를 잘 드러낸다.
- ② **중심 제재**를 더 **자세히** 묘사하여 독자에게 선명한 인상을 준다.
- ③ 호흡을 느리게 하여 과거의 경험을 음미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 ④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여 독자가 장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 ⑤ 친밀한 느낌을 주는 말투를 써서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를 좁혀 준다.

풀이 자세하다면 양이 늘어나야 한다.

‘자세하다’는 말은 애매하다. 어떻게 되어 있어야 자세한 건가? 판단하기 쉽게, 질적 개념을 양적 개념으로 바꿔보자.
‘양이 더 많이 늘었다면 더 자세한 것이다.’

적용 ② 선택지 : 중심 제재를 ‘더 자세히’ 묘사하여 / 독자에게 선명한 인상을 준다. 선명한 인상을 주는지, 안 주는지는 주관적이므로 판단 대상이 아니다.
중심 제재는 ‘밀’이다. ‘밀’을 더 자세하게 묘사했다면 더 많은 횟수가 언급되어야 한다. [A]에는 3회 <보기>에는 (4회 같은) 3회다. 같은 3회이므로 양이 더 많이 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 불일치

결론 **답②**

중심, 자세하다 (수)

| 수능 2004 31 | ★★★★★

바꿔다

발문은 ‘바꿔 썼을 때의 효과’를 묻는다. 바꿔었다면 ‘없던 것이 생겨났거나(無⇒有)’, ‘있던 것이 사라지거나(有⇒無)’, ‘있던 것이 많아지거나(有⇒有有)’, ‘많이 있던 것이 적어지거나(有有⇒有)’ 한다.

발문을 불일치하는 선택지를 찾으라고 하므로, 바꿔지 않은 것이 답!

① 두드러지다

어떻게 되어야 두드러진 건가. 애매하다. 회고조의 목소리가 없었는데 있거나, 몇 개 없었는데, 많아진 경우이다. (회고조의 목소리는 회상하는 목소리)

② ‘중심’ 제재가 뭐가? 중심이라는 말도 애매하다. 반복되는 단어가 중심 단어이다. 글 전체를 관통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가 중심 제재 또는 주제이다.

한 움큼씩 털어 넣은 ‘밀알’……. ‘밀알’은 울울이 흘러지고, 두 ‘밀알’ 중 하나를 빼도 문장이 자연스럽다. 뺄 수 있다면 별 의미가 없다는 거다.

47. <보기>를 참조하여 윗글의 ‘노란색(빛)’ 이미지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범주 교차

| 수능 2004 32 | ★★★

- 노란색 : 병색(病色). 구역질. 기쁨, 에너지의 색. 경계 경고의 색.
- 노랗다(관용적 표현) : 영양 결핍. 핏기 없음. 기력이 쇠함.
- 해인초 : 홍조류의 해조. 회충약으로 쓰이거나 석회의 접착력을 높이는 데 쓰임. 꿀일 때 냄새가 강함.
- 산토닌 : 구충제. 부작용은 모든 사물이 노랗게 보이는 증세, 두통, 구토.

- ① 겨울의 **암울**한 이미지와 대비되어, 동네 아이들의 **소망**을 상징한다.
- ② ‘중국인 거리’의 불안정한 분위기와 그에 대한 ‘나’의 **낮춤**을 표현한다.
- ③ 메스꺼움과 연관되면서 ‘나’가 성장 과정에서 겪는 **부적응** 상태를 암시한다.
- ④ 해인초의 후각적인 이미지와 결합하여, ‘나’의 **몽롱한** 의식 상태를 드러낸다.
- ⑤ 공복과 산토닌이 어우러진 상태에서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을 **시각화**한 것이다.



풀이 하나의 범주는 하나로 읽어야 한다.

적용 ① 선택지 : 겨울의 ‘암울한 이미지와 대비되어, 동네 아이’들의 ‘소망’을 상징한다.

선택지는 3군데나 틀렸다.

범주 교차 겨울은 (+)인데, ‘암울’은 (-)이다. ∴ 불일치

수 ‘소망’을 얘기하는 아이는 ‘치욕’이 뿐이므로 단수인데, ‘아이들’이라고 하므로 ∴ 불일치

범주 교차 봄은 (-)인데, ‘소망’은 (+) 단어이다. ∴ 불일치

지문에서 ‘아이들의 소망’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보자. 나는 커서 미용사가 될 거야. 이 부분이다. 이 말을 치욕이가 노오란 목소리로 말했다. 따라서 ‘될 거야’는 소망이고, 소망을 말한 사람은 치욕이다.

결론 **답①**